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가정학 박사 학위논문

부모 그릿과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그릿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Parental Grit and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Happin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Grit and Peer Relationships-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임은숙

부모 그릿과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그릿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Parental Grit and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Happin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Grit and Peer Relationships-

지도교수 정민자

이 논문을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4년 2월

울산대학교 대학원
아동가정복지학과
임은숙

임은숙의 가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허 은 정 인

심사위원 김 영 주 인

심사위원 박 수 경 인

심사위원 이 승 미 인

심사위원 정 민 자 인

울 산 대 학 교 대 학 원

2024년 2월

감사의 글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 왔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고 한여름 피약벌에 싹이 타들어 갈까, 장마에 쓸려 내려갈까 노심초사하면서 긴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가을이 되어 푸른 하늘과 햇볕이 곡식을 영글게 해줍니다. 익어가는 곡식들을 바라보며 흐뭇하기도 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제 가을걷이도 끝이 나고 잘 익은 곡식들을 곳간에 차곡차곡 쌓아봅니다. 이 곡식들이 세상 누군가의 마음의 허기를 채워주기를 기대하면서 말입니다.

먼 길을 달려온 것 같습니다.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너무 많았지만, 정민자 교수님을 처음 뵈었던 어느 겨울날의 따스함이 믿음으로 남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늘 할 수 있다고 격려해 주시면서 부족한 저를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맛있는 밥으로, 늘 챙겨주시는 김치로 사랑을 전해주셨던 정민자 교수님.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희망과 용기를 주셨습니다. 마음 깊이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족한 논문을 알차게 만들어 주신 허은정 교수님, 참고문헌 하나하나 챙겨주신 김영주 교수님, 따스한 피드백으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신 박수경 교수님, 먼 길 달려와 조목조목 알려주신 이승미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와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함께 해준 우리 동기들, 끝까지 함께 하자고 굳건하게 지켜준 동장군 전영화 선생님, 봄날같이 따스한 김지현 선생님, 한여름의 뜨거운 열정을 닮은 석미진 선생님, 세 분이 함께여서 행복했습니다. 동기쌤들 사랑합니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지지해 주고 버텨준 학부모지원센터 김홍예, 힘들 때 돈가스 먹으라고 용돈 보내준 구미진, 함께 울어주며 언제든 달려오겠다던 이효원, 아침밥 먹으라고 도시락 싸서 문고리에 걸어준 조정숙,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응급조치해 준 선배 강남숙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를 낳으시고 길러주시고 딸래미 박사 되기를 맘нат없이 기도해 주신 나의 어머니 강일선 여사와 아침마다 전화로 격려해 준 동생 임은미에게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엄마라는 세상에 초대해 준 자랑스러운 첫째 딸 허진수와 장모님 되게 해준 멋진 사위 김정신, 척척박사 되라고 격려해 준 든든한 둘째 딸 허은정과 두 딸을 내게 보내준 남편 허정용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이 외에도 저를 위해 기도해 주고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논문을 쓰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가족과 부모의 존재는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도 가족학자로 나아가겠습니다. 행복은 아주 가까이 있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밥 한 끼, 커피 한 잔에... 참 많이 고맙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랑합니다.

2024년 2월 임 은 숙 올림

국 문 초 록

부모 그릇과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그릇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아동·가정복지학 전공 임은숙
지도교수 정민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밝히고자 청소년의 개인 내적 변인인 그릇과 청소년의 학교 환경적 변인인 또래관계와 청소년의 직접적인 발달 환경인 부모 변인으로 그릇과 양육태도를 선정하였다. 이에 부모 그릇과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그 관계에서 청소년 그릇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의 초4 패널 4차 연도 자료를 활용하여 중학교 1학년인 학생 2,241명과 그들의 부모 2,241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통계분석,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일원 배치 분산분석(ANOVA)을 진행하였고,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매개 모형 분석 및 부트스트래핑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상정한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 부모 그릇, 부모양육태도, 청소년 그릇, 청소년 또래관계 및 청소년의 행복감 간에는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상정한 모든 주요 변인들 간에는 서로 정적 상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둘째,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2단계에 걸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1단계에서 부모 그릇은 청소년 그릇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또래관계에는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그릇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또래관계에도 정적 영향을 미쳤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그릇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또래관계에는 정적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부모 그릇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긍정적 양육태도는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쳤고, 부정적 양육태도는 부적 영향을 미쳤다. 청소년 그릇과 또래관계는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부모 그릇과 양육태도가 청소년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청소년 그릇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효과 분해를 실시한 결과, 부모 그릇은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고 청소년 그릇을 통한 간접적 영향만 나타났다. 이는 부모 그릇이 높을 때 자녀가 부모의 행동과 태도를 모델링 하여 청소년 그릇이 향상되고 이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간접적 영향을 미쳐 행복감이 증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 부모 그릇의 간접 영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청소년 그릇과 또래관계를 통해서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쳤다. 이는 긍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청소년의 행복감을 직접적으로 증진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 그릇이 증진되도록 촉진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감이 간접적으로 증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직간접적 영향력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부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청소년 그릇에는 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쳤고, 청소년의 또래관계에는 간접적 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는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을 직접적으로 저하시킬 뿐 아니라, 청소년 그릇을 낮추고 청소년의 또래관계에는 정적 영향을 미쳐 청소년이 또래관계에 더 의존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부정적 양육태도의 직간접적 영향을 고려하여 부정적 양육태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하여 청소년은 자신의 강점을 알고 스스로의 성장과 발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부모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그릇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청소년 자녀가 부모를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양육태도에 있어서는 온정적이며 지지적 양육태도로 청소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둘째,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청소년 그릇을 높이기 위해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 차원에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셋째,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통하여 행복한 삶을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한계와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의 4차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의 대상을 중학교 1학년 학생만으로 한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을 중학생 전체로 확장하여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들에서 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여 분석한다면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보다 풍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부모 그릿, 부모양육태도, 청소년 그릿, 또래관계, 행복감, 청소년 자녀.

목 차

<감사의 글>

<국문 초록>

I.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2. 연구 문제 7
- 3. 용어 정의 8

II. 이론적 배경 10

- 1. 그릿 10
 - 1) 그릿의 개념 10
 - 2) 그릿의 구성요소 14
 - 3) 그릿에 관한 선행연구 15
- 2. 부모양육태도 18
 - 1) 부모양육태도의 개념 18
 - 2) 부모양육태도의 구성요소 19
 - 3)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28
- 3. 또래관계 30
 - 1) 또래관계의 개념 30
 - 2) 또래관계의 구성요소 33
 - 3) 또래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34
- 4. 행복감 37
 - 1) 행복감의 개념 37
 - 2) 행복감의 구성요소 45

3) 행복감에 관한 선행연구	48
5.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	51
1) 부모 그릿과 청소년 그릿 및 행복감 간의 관계	51
2)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 그릿 간의 관계	54
3)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 간의 관계	55
4) 부모양육태도와 행복감 간의 관계	57
5) 청소년 그릿과 행복감 간의 관계	58
6) 또래관계와 행복감 간의 관계	59

III. 연구 방법 61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61
2. 분석 자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63
1) 조사 개요	63
2) 조사 배경 및 목적	64
3) 조사 대상 및 내용	65
3. 연구 대상	67
4. 연구 절차	68
5. 연구 도구	69
1) 부모 그릿	69
2) 부모양육태도	70
3) 청소년 그릿	70
4) 또래관계	70
5) 청소년의 행복감	71
6.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72

IV. 연구 결과 73

1.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73
2.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74
1) 부모 그릿	75
2) 부모양육태도	76

3) 청소년 그릿	78
4) 또래관계	79
5) 청소년의 행복감	80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81
4.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82
1) 부모 그릿	83
2) 긍정적 양육태도	84
3) 부정적 양육태도	85
4) 청소년 그릿	86
5) 또래관계	87
6) 청소년의 행복감	88
5.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89
6.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90
7. 매개효과 검증 및 효과분해	92
8. 연구가설 검증 내용 및 결과	94

V. 요약 및 논의 98

1. 요약	98
2. 논의	101
3. 제언	111

참고문헌 112

부록 156

Abstract 162

표 목 차

<표 II-1> 연구자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의 유형	27
<표 II-2> 또래관계의 정의	32
<표 II-3> 행복감의 개념	41
<표 II-4> 행복감의 구성요소	47
<표 III-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원패널	65
<표 III-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조사 대상과 내용	66
<표 III-3> 문항의 출처	69
<표 III-4> 자료분석 방법	72
<표 IV-1>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73
<표 IV-2> 부모 그릿의 타당도와 신뢰도	75
<표 IV-3> 부모양육태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77
<표 IV-4> 청소년 그릿의 타당도와 신뢰도	78
<표 IV-5> 또래관계의 타당도와 신뢰도	79
<표 IV-6> 행복감의 타당도와 신뢰도	80
<표 IV-7>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81
<표 IV-8>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그릿의 차이	83
<표 IV-9>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긍정적 양육태도의 차이	84
<표 IV-10>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정적 양육태도의 차이	85
<표 IV-11>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그릿의 차이	86
<표 IV-1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또래관계의 차이	87
<표 IV-13>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88
<표 IV-14>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89
<표 IV-15> 회귀분석 결과	91
<표 IV-16> 효과분해 및 부트스트랩 검증	93
<표 IV-17> 가설검증 요약	97

그림 목 차

[그림 II-1] Symonds(1949)의 양육태도	21
[그림 II-2] Schaefer(1959)의 양육태도	22
[그림 III-1] 연구 모형	61
[그림 III-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추진 절차	64
[그림 III-3]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연혁	65
[그림 III-4] 분석 절차의 체계도	68
[그림 IV-1] 최종 모형	93
[그림 IV-2] 가설검증 모형	96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삶의 궁극적 목적은 행복이며,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이다. 행복은 개인이 경험하는 일상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즐거움, 좋음,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정서를 의미한다. 행복의 핵심은 부정적 정서에 비해 긍정적인 정서 경험을 더 자주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정서 경험의 빈도가 일반적으로 행복을 결정한다고 알려져 있다((Diener, Sandvik, & Pavot, 1991).

‘아동·청소년 삶의 질 2022’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는 OECD 가입국 중 27번째로 매우 낮은 편이다. 아동·청소년의 사망원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자살은 2018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1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2.7명으로 200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또한, ‘2021 한국 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 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주관적 행복지수’는 2년 전 대비 9점 감소하여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초등학교 5학년~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 아동행복지수’ 조사에서 전체 응답 청소년 중 약 86.9%인 1,940명의 행복지수가 ‘하(下)’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우울·불안과 충동적 자살 생각, 보호자의 방임·정서학대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충동적·극단적 선택에 대한 응답은 2023년에 10.2%로 2021년 4.4%에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학벌이나 경제 수준과 같이 개인의 성취가 강조되는 우리나라의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청소년들은 신체적·심리적 변화와 더불어 입시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행복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보고되고 있다(지선례, 2018).

또한, ‘2020년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10명 중 4명은 일상에서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었으며 10명 중 3명은 최근 1년 이내에 우울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20). 이러한 연구 결과는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이 지속해서 낮아지고 있음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예로 아동·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중간단계로,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이러한 이유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다(유영숙, 하창순, 2016). 신체적으로는 호르몬의 변화와 더불어 신체 기능의 변화가 일어나며, 심

리적으로는 삶에 대한 가치관과 신념, 사회관 등에 대한 이해를 통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점차 탈피하게 된다. 사회적으로는 가정에서 학교로 생활영역이 확대되면서 교사, 친구와 교류하는 등 다양한 관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역할을 하게 된다(임선영, 2015). Erikson(1963)에 따르면, 청소년기는 전기와 후기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전기를 11~16세, 후기를 16~22세로 구분하였고, 나는 누구인지,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가지는 시기라고 하였다.

특히, 청소년기 중 중학생 시기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중학교라는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물리적인 생활환경이 확장되고, 심리·정서적 환경의 변화로 소위 ‘생태학적 전환기’를 맞이하는 시기이다. 구체적으로는 또래관계, 자아 정체감의 혼란, 외모에 대한 불만, 진로와 학업에 대한 고민, 입시 위주의 교육 환경 등 생의 중요한 발달단계에서 경험하는 변화들이 균형을 이루기도 하지만, 불안과 우울, 때로는 삶에 대한 좌절을 경험하기도 한다(남명희, 박응임, 2017).

청소년은 주변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으며 이들의 성장과 발달, 삶에 대한 만족은 환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환경체계는 청소년의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 등이 있다. 이 중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발달 환경인 부모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부모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부모로부터 거리 두기 등 심리적 독립을 시작하며,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하는 시기이다.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를 지나친 간섭이나 감독 등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애정이나 지지적인 태도, 신뢰와 수용으로 받아들일 때 청소년의 행복감이 증진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최근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청소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 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에서 행복과 관련된 단어로 ‘가족’을 모든 연령대에서 선택하였다. 청소년의 행복을 위해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4%가 ‘가족’이라고 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시작이며, 가족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김경민, 2021).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다양한 변인들을 제시하였다(김진미, 2019; Gilman & Huebner, 2003). 여기에는 부모의 경제 수준, 직업, 학력, 아동의 성별 및 연령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요인(이수진, 정익중, 2020)과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자아탄력성 같은 아동의 개인 내적 요인(김진미, 2019), 부모양육태도,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과 같은 가족 환경적 요인(권미나, 이진숙, 2015; 서재욱, 정운태, 2014; 송원숙, 심재웅, 2018; Gilman & Huebner, 2003; Milevsky, Schlechter,

Netter, & Keehn, 2007), 그리고 친구나 교사, 학교생활과 같은 학교 환경적 요인(남궁지영, 김양분, 2015; 송경오, 2011) 등이 포함된다.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분류하여 종단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학업 성취, 또래 애착, 교사 애착, 지역사회 애착, 자아존중감, 부모 애착 중 부모 애착이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이재경, 조혜정, 2012). 부모와 자녀의 정서적인 상호작용은 자녀의 건강한 인격 발달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며 부모와 자녀의 충분한 정서적인 상호작용은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친다(Gabor Mate, 2012). 또한, 부모의 전반적인 행복과 자녀와의 관계가 자녀의 문제행동 및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Fingerman, et al., 2012).

이와 더불어 부모와 청소년 자녀의 상호 관계는 자녀의 인격 형성뿐만 아니라 자녀의 가치관이나 사회에 대한 적응력 또는 생활 습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하다(김갑순, 박윤조, 2016). 따라서 부모와 자녀의 상호 관계는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많은 선행연구(박영숙, 2022; 지선례, 2018; 이미영, 2023; 권유정, 임지영, 최유석, 2022; 김명화, 김혜진, 최재혁, 2022; 우성현, 안도희, 2022; 홍은비, 노성향, 2022; 박소연, 2021; 최정화, 김정화, 2021; 이미영, 2020; 이주연, 한세영 2021; 강수현, 2019; 이서희, 김기민, 2019; 오인수, 반지윤, 2019; 김서연, 2018)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 상호작용 관계인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행동과 태도(Becker, 1964)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가지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반영한다(박은민, 백서희, 2017).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양육 과정에서 자녀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건강한 정신을 가진 사람으로 자랄 수 있게 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Bowlby, 1988).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기 자녀가 인식하기에 자신이 부모의 존중을 많이 받는다고 느낄수록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송미라, 한기백, 2015). 따라서, 부모양육태도가 따스하고 온정적이며, 자녀가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며, 그 선택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며 행복감을 느낀다(안지영 등, 2021; 한영숙, 2020). 또한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그것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었다(엄태순, 윤미선, 2020).

최근 부모양육태도와 관련하여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 SDT)(Ryan & Deci, 2003)에 기반을 둔 연구가 늘어나고 있다(김태명, 이은주, 2017; 유계환, 최희정, 2021; 조정숙, 박경애, 2021).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인

간은 외부적 보상이 없어도 도전과 만족을 추구하고 흥미로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는 내재적 동기를 지닌 존재로 태어났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근거하여 부모양육태도를 살펴보면, 따스함과 구조 제공, 자율성 지지는 긍정적 양육태도로 구분되고, 강요, 거부, 비밀관성은 부정적 양육태도로 구분된다. 이러한 여섯 가지의 요인들은 각각 독립적으로 작용한다(김태명, 이은주, 2017).

이 중 긍정적 양육태도인 따스함은 애정, 사랑 등이 표현되는 양육태도이다(Rohner, 1994). 따스하고 반응적인 양육태도는 안정적인 애착의 기반이 된다. 구조 제공은 명확하고 일관된 규칙, 지침과 자원의 제공을 의미한다(Grolnick & Ryan, 1989). 자녀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부모가 규칙과 정보를 제공해 주고 도움을 주려고 하는 정도를 말한다. 구조 제공의 양육태도는 자녀가 자신의 행동에 대한 결과를 예측하게 하고, 규칙과 계획에 맞게 행동하도록 하여 학습에 대한 동기와 성과를 높이도록 기여한다(김도희, 2022). 자율성 지지의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이다.

부정적 양육태도 중 강요는 자녀의 요구에 응해주지 않고,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압박을 주는 것이다(Deci et al., 1994). 거부적 양육태도는 자녀를 소홀히 대하거나 밀어내는 양육태도를 말한다. 거부적인 어머니를 둔 유아는 낮은 사회적 능력을 보일 수 있으며,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렵다(원영숙, 2009). 비밀관성은 부모가 자녀양육에 있어서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상이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임정자, 2022).

한편, 청소년의 행복감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그릿(Grit)의 영향력이 확인되면서(Duckworth & Quinn, 2009; 양수연, 2023), 그릿을 촉진하는 선행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부모의 그릿이 자녀의 그릿으로 세대 간 이전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었다(전향신, 박분희, 2020; 이혜원, 최진수, 이수란, 2021; Kevin et al., 2020). 부모가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꾸준한 노력과 열정을 기울이는 모습을 본 자녀는 부모의 이러한 모습과 행동을 모델링 하여 그릿을 발달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릿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검증하였고(박상미, 박응임, 2020), 부모 그릿은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의 그릿을 강화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강보은, 2022).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요인으로서의 부모 그릿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한편, 청소년기에 또래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청소년기는 성인기로의 이행을 준비하는 과도기적 시기로, 심리적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욕구가 강한 발달적 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친구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또래관계(peer relationships)란 친구들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상호작용을 통해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인 안정감

을 제공받는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다양한 사회적 기술을 배울 수 있는 독특한 관계이다. 친구관계가 다른 인간관계와 구별되는 것은 친구 집단 내 구성원 간의 이해와 양보를 요구하는 동시에 경쟁과 갈등을 내포하는 수평적이고 대등한 관계라는 점이다(Erwin, 2001).

친구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으며 도움과 충고, 인정과 보살핌 등 질적으로 좋은 관계를 경험할 때 청소년은 문제행동이 없이 잘 적응하고 학교에 대한 애착과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이 높아져 학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낮다(백소영, 이준우, 임수정, 2018). 친구관계에서 생겨나는 사회적 자원은 청소년의 인지적·비인지적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러한 상호성이 곧 중요한 지지원의 역할을 한다(Covay & Carbonaro, 2010; Vaquera & Kao, 2012). 한편, 청소년은 부모양육태도를 통해 대인관계의 기술을 모델링 하게 되는데(Dekovic & Janssens, 1992), 이는 청소년기의 또래 관계가 부모와의 관계의 질을 토대로 예측할 수 있다는 결과(Wilkinson, 2004)를 지지한다.

또래관계의 확장은 청소년기의 특징 중 하나로, 청소년기의 또래집단은 지지집단 혹은 준거집단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Gross & Siperstein, 1997). 그럼으로써 자신들의 고민과 갈등을 서로 나누고 해결 방안을 찾아나가면서 심리·정서적 지지체계와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다. 학교에서 머무는 시간이 점차적으로 길어짐에 따라 동등한 지위를 가진 동료이자 경쟁자가 되어 서로에게 지지와 피드백을 나누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청소년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다고 느끼게 한다(최지은, 신용주, 2003; Rubin et al., 2004). 이러한 과정을 통해 청소년은 부모와 분리되어 자율성을 획득하게 되며, 이 발달단계에서의 또래관계는 매우 중요한 사회적 관계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이다(Batool & Lewis, 2020; Tilton-Weaver & Galambos, 2003). 부모가 온정적, 지지적인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자녀는 자신과 타인을 긍정적으로 인식할 뿐만 아니라 부모에 대한 정서적 안정감과 신뢰감을 바탕으로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된다(Gorrese & Ruggieri, 2012; Llorca et al., 2017).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부모와는 다른 일종의 사회적 지원으로서 역할을 하며, 청소년의 심리 내적 발달에 도움이 되는 주요한 변수로, 청소년의 행복감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청소년의 발달은 개인의 특성과 개인과 환경 간의 다차원적 상호작용 속 역동 과정에 의해 좌우된다(Bronfenbrenner & Morris, 2006). Erikson(1964)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발달적 상호작용’의 개념을 설명하면서 인간의 심리·사회적인 생존은 조직된 환경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지속적이고 중복되는 세대 간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이에 청소년기는 다른 어떤 시기보다 행복감이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

이는 시기로,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를 종합하여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내적 요인으로는 그릇을, 환경적 요인으로는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를 선정하고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그릇이 부모로부터 자녀에게로 이전되어 부모 그릇이 자녀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그릇, 부모양육태도, 청소년 그릇,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중심으로 관계를 살펴보고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끌어내고자 한다. 또한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기 위한 실증적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부모 그릇과 양육태도가 청소년 그릇과 또래관계를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행복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한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 문제 1. 부모 그릇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2.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 문제 3. 부모 그릇과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 그릇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연구 문제 4. 부모 그릇과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연구 문제 5.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 그릇은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연구 문제 6.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매개효과를 가지는가?

3. 용어 정의

용어의 정의는 연구에서 선택된 개념의 측정 상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개념적 정의를 구체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조작적 정의가 필요하다(채서일, 2003).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그릿, 양육태도, 또래관계, 행복감 및 연구 대상인 청소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작적 정의를 내리고자 한다.

1) 그릿

본 연구에서는 그릿의 개념을 장기적인 목표 성취를 위한 인내심과 열정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흥미를 유지하며 노력을 기울일 수 있는 능력’으로 정의(Duckworth et al., 2007)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릿의 하위 요인 중 흥미 유지는 ‘장기적 목표를 이루기 위한 열정과 끈기가 높은 것’으로 정의하며, 노력 지속은 ‘자신이 세운 목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

2) 부모양육태도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의 개념을 Becker(1964)의 개념을 토대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현적·외현적 태도 및 행동’으로 정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A)(Skinner, Johnson & Snyder, 2005)를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Korean Adolescents:PSCQ_KA)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이 척도의 하위 요인은 따스함, 거부, 자율성 지지, 강요, 구조 제공, 비밀관성으로 구분된다.

3) 또래관계

또래는 연령, 학년, 성별에서 비슷한 수준과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성적 발달이 비슷하고 사회적으로 동일시되며, 함께 긍정적,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그들이 맺는 관계를 또래관계라 한다(Perry & Bussey, 1984). 본

연구에서는 또래관계의 개념을 ‘청소년이 발달적 수준이 비슷한 동년배 친구들과 질적으로 상호작용하는 정도’로 정의하고,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배성만, 홍지영, 현명호, 2015). 본 연구에서의 또래관계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또래관계’로 정의한다.

4) 행복감

청소년의 행복감은 Diener(1984)와 정이나(2015)의 개념을 기초로 하여 청소년의 행복감은 ‘청소년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기 삶의 만족에 대한 높은 긍정적 정서와 낮은 부정적 정서의 상태의 정도’라고 정의한다. 청소년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Lyubomirsky and Lepper(1999)의 주관적 행복 척도(The 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를 이정립 외(2015)가 변안하여 사용한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행복지수 관련 문항으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에서 사용한 설문 문항들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행복감은 ‘청소년의 행복감’으로 정의한다.

5) 청소년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는 중간단계로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도덕적으로 급격한 발달이 일어나는 시기이다(네이버 지식백과, 2021). 우리나라 청소년기본법에 의거한 청소년 나이는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등(2019)은 초기 청소년기를 10~13세로 구분하고 있다. 청소년기 발달을 연구한 Erikson(1963)은 청소년의 전기를 11~16세, 청소년의 후기를 16~22세로 구분하였으며, Hall은 청소년 초기를 8~14세, 후기를 14~25세로 구분하였고, Sullivan은 청소년 초기를 12~17세, 후기를 18세~20세로 구분하였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Lipsitz(1977)는 청소년기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 11세~14세, 15세~18세, 18세~21세로 각각 구분하였고, Caskey and Anfara(2007)는 10~15세로 초기 청소년기를 분류하였다.

이처럼 청소년 초기는 일반적으로 중학생 시기에 해당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청소년을 KCYPS 2018 4차 연도 패널 대상자의 2021년 현재 연령인 ‘중학교 1학년’으로 규정한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의 연구 대상은 청소년 자녀와 그들의 부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은 ‘청소년 자녀’로 규정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그릿

1) 그릿의 개념

그릿(Grit)은 긍정심리학에 기초하여 미국의 Angela Duckworth와 동료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소개된 개념이다. 개인의 강점을 통한 성장과 발달에 주목하여 최근 10여 년 동안 교육학, 사회학, 심리학 등 관련 영역에서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Duckworth et al.(2007)는 ‘지능이 동일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 특출한 성취를 보이는 사람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그릿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릿은 실패나 역경, 정체(plateaus)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성격특성이다(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2006)는 창조성, 열성, 정서지능, 카리스마, 자기 확신과 같은 개인의 높은 성취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정의적 속성 중 특정 직업적 영역과 상관없이 본질적인 특성을 끈기(grit)라고 명명하였다. 끈기가 강한 개인은 장기적인 과제를 목표로 하여 맹렬히 전진하며, 어떠한 방해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실패할지라도 관심과 노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Duckworth et al.(2007)는 2004년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인 웨스트포인트 신입 생도들을 대상으로 성공적으로 훈련을 마친 생도와 중도 포기한 생도와의 차이를 연구하였고, 2005년 전국에서 모인 영어 스펠링 대회에 참가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최종 라운드까지 남은 아이들과 탈락한 아이들의 차이를 연구하였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영업사원들의 영업실적과 근속연한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 역시 그릿이며 아이비리그 대학생의 성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지능이 아닌 그릿이라는 사실을 입증하였다.

2000년에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경제학자 Heckman(2006)은 그의 연구에서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 실험을 바탕으로 유아교육에 투자하는 것이 주식이나 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월등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저명한 학술지인 <사이언스>지를 통해 발표했다. Heckman(2010)은 가난한 아이들의 성취도가 낮은 것은 지능의 문제라기보다 끈기나 성실성과 같은 비인지적 능력을 계발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이를 향상하기 위해 정부가 투자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인간이 살아가는 데 꼭 필요

한 비인지 능력은 지적 능력이나 지식 외에 어려움을 참아내는 인내력, 타인과 관계를 맺는 친화력 등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결국 그릿과 소통 능력으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가 역설하는 비인지 능력이 인간의 성공적인 삶에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른 연구에서도 밝혀졌다. 1972년 뉴질랜드의 더니든(Dunedin) 시에서 시작된 대규모의 종단 연구에서 1972년 4월에서 1973년 3월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 1,037명을 대상으로 사람을 건강하고 행복하고 부유하게 만드는 요인이 무엇인지 연구하였다. 이들 조사 대상자가 32세가 되었을 때 96%의 대상자가 패널에 남아 있었다. 연구 결과, 건강하고 부유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하는 것은 지능이 아니라 그릿을 포함한 비인지 능력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Moffitt, T. E., et al., 2011). 여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아동기의 그릿 수준은 성인이 되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게 될 것인가를 단적으로 예측하는 지표라 할 수 있겠다.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그릿은 단순한 열정과 집념이 아니라 주어진 일이 힘들수록 더 열심히 하는 마음의 근력이다. 결국 그릿은 끝까지 노력할 수 있는 마음의 근력이다. 힘들어도 참아내는 힘을 말한다. 교육학자인 대니얼 윌링햄 역시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과 성공적인 대학 생활의 여부는 ‘끝까지 해내는 성향(follow-through)’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는 그릿과 유사한 개념으로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가장 확실하게 예측하는 요인임을 밝혔다(Willingham, 1985).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목표에 대해 흥미를 느끼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며, 실패나 어려움에 대해 굴하지 않고 일관되게 노력을 유지하며 집중하여 과제를 완수할 가능성이 높다(Duckworth, 2016; Duckworth et al., 2007, 2009).

Seligman et al.(2006)의 연구에서 그릿이 지능지수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다. 그는 인지적으로 뛰어난 개인들이라고 해서 목표를 향해 오랫동안, 열심히 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연구는 극단적으로 어려운 목표의 성취는 개인의 재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집중적인 재능이 장기적으로 수반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Kleiman et al.(2013)은 그릿에 대해 성취가 즉각적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자신에게 의미 있는 목표에 대한 집중을 유지하며 일상생활에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Mandelbaum(2016)은 그릿이 학습경험에 따라 바뀌지 않는 비교적 안정된 성격 특성이라고 보았다. Duckworth(2006)는 그릿은 지적 능력보다도 강력하게 높은 성취를 예측할 수 있는 성격 특성이므로, 평범한 지능을 가진 사람도 높은 성취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릿에 관련된 선행연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용어에 대한 정리가 미흡한 실정

이다. 연구자에 따라 다양한 번역으로 끈기(임효진, 하혜숙, 2017), 투지(이수란, 손영우, 2013; 김진구, 박다은, 2017) 등으로 사용하거나 Grit(신민, 안도희, 2015) 또는 GRIT의 한글 발음 그릿(이정림, 권대훈, 2016; 김성철, 2019) 등의 다양한 표기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투지’는 원래의 뜻을 강조하여 사전 그대로 번역한 경우로, ‘이를 악물고 싸우는’이라는 뜻이다. ‘끈기’는 투쟁의 의지가 아닌 인내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 용어 모두 그릿의 개념을 완벽히 반영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열정’은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한 구인으로 주로 심리학 분야에서 소개되었다.

Vallerand et al.,(2003, 2007)와 Marsh et al.(2013)의 연구를 종합한 Vallerand(2015)는 열정을 정체성의 일부로 보았으며 “매우 좋아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여 정기적으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활동에 대한 강한 이끌림”으로 정의하였다. 그는 이원론적 열정 모델을 제시하였고, 조화 열정과 강박 열정으로 구분하였다. 조화 열정(harmonious passion) 형성은 자율적 내면화 과정을 거치며 이를 통해 자유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조절하며, 다른 활동에도 유연하게 참여하여 삶의 다른 측면과 조화를 이룬다. 강박 열정(obsessive passion)은 통제적·강압적으로 내재화된 열정이다. 좋아하고 중요한 활동이지만, 통제 불가능하고 경직된 지속성과 충동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것이 삶의 다른 부분과 균형이 맞지 않게 된다(Vallerand, 2010). Vallerand et al., (2003)은 열정의 소유 여부에 대해 활동에 대한 시간과 에너지의 투자, 좋아함, 가치 평가, 정체성 등으로 평가하였다. 그릿은 가끔 자기통제(self-control)나 성실성(conscientiousness)과 비슷한 개념으로 사용되나, 자기통제는 일상에서 만족 지연이나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선택과 관련이 있어 장기간 목표를 이루기 위해 흥미와 노력을 지속하는 그릿과는 차이가 있다.

김주환(2013)은 능력 성장의 믿음(growth Mindset)의 약어 M, 회복탄력성(Resilience)의 약어 R, 내재적 동기(Intrinsic motivation)의 약어 I, 끈기(Tenacity)의 약어 T의 네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GRIT으로 말하였다. 그는 그릿의 개념을 ‘자신이 세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어려움을 잘 견뎌내며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게 하는 마음의 근력’으로 정의하였다(김주환, 2013). 국내에서는 점차 “그릿”이라는 한글 표기로 쓰이는 추세이다.

한편, 그릿은 동기에서 비롯된다. 무슨 일이든 열정적으로 해내려면 스스로 동기를 부여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를 ‘자기 동기력’이라 한다. 동기(motivation)는 어떠한 행동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일종의 원동력이다. 동기에는 내재적 동기와 외재적 동기가 있다. 외재적 동기는 어떠한 보상 때문에 특정 행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돈이라는 보상이 외재적 동기가 된다. 내재적 동기는 보상

보다는 일 자체가 재미있고 즐거워서 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내재적 동기는 사람을 즐겁고 행복하게 만든다. 우리는 어떤 일을 좋아서 할 때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다. 내재적 동기는 자신이 하는 일이 재미있고 즐거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 일에 빠져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릇을 위해서는 외재적 동기와 내재적 동기 모두 필요하다. 예를 들어, 동일 시간 동안 같은 공부를 할 경우, 재미있어서 공부하는 학생(내재적 동기)이 성적을 잘 받기 위해 공부하는 학생(외재적 동기)보다 더 효율적으로 공부하게 된다. 하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지겹고 힘든 순간이 올 것이다. 이때 적절한 외재적 동기가 필요하다. 공부에 대한 필요성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 등을 일깨워줄 때 지속적인 열정과 끈기를 끌어낼 수 있다.

Deci and Ryan.,(2012)에 따르면, 자율성이야말로 스스로 동기를 유발하는 핵심적 요인이다. 인간의 심리적 욕구 중 하나인 자율성은 “내 삶의 주인은 나다. 내 인생에서 중요한 결정은 스스로 내린다.”라는 의미이다. 자율성의 수준이 높은 사람은 자기 동기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커진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자율성의 핵심이다. 그들은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동기부여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자율성임을 암시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나 집에서 해야 하는 일들이 스스로 결정해서 하는 일은 거의 없다. 어떤 일을 하면서 내 뜻이 아니라 타인의 기대나 요구에 의해서 하게 될 때, 자율성을 갖지 못하고 내재적 동기 역시 사라져 버린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거나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 잘 해내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앞서 말한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에서 강조하는 유아교육의 핵심도 아이들에게 자율성의 느낌을 지속해서 심어주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한편, 그동안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성공과 성취를 예측하는 변인으로서 그릇의 연구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개인적인 성격 특성인 그릇을 발달시키기 위한 선행요인과 발달 환경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Duckworth(2016)는 그의 저서 그릿(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에서 그릇을 발달시킬 수 있는 환경으로서 부모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Duckworth(2016)는 첫째, 청소년 그릿 발달에 있어 부모양육태도가 중요한 요소라고 주장한다. 특히, 자녀에게 애정과 존중 속에서 자유를 허용하나 분명한 한계를 제공하는 권위 양육방식(authoritative parenting)이 청소년 그릿을 발달시킨다는 것이다. 둘째, 정서적 지지이다. 개인적 삶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경험되는 사건들 속에서 좌절과 역경을 견딜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와 주변인의 도움이 그릇을 발달시킨다고 본다. 셋째, 성장 과정에서 실패와 역경을 이겨내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를 보면 그릿은 어린 시절 실패와 역경을 이겨내는 경험으로 길러지며 새로운 도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서적 지지를 최대한 제공해 주는 부모 역할이 그릿 발달의 핵심이다(강문선, 양수진, 2019).

이에 Duckworth(2016)의 주장에서와 같이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한다. 부모 그릿과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 그릿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 그릿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2) 그릿의 구성요소

Duckworth et al.(2007)은 그릿의 유형을 열정과 끈기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그릿은 Grit-O(Original Grit Scale, 12문항) 척도가 Grit-S(Short Grit Scale, 8문항) 척도로 개발되면서, 그릿의 하위 요인은 흥미 유지(consistency of interest) 4문항과 노력 지속(perseverance of effort) 4문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Duckworth et al., 2009).

노력 지속이란 오랜 시간에 걸쳐 꾸준히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이러한 노력을 유지해 나가는 특성이며, 흥미 유지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지속하여 관심을 기울이고자 하는 특성이다(Aparicio et al., 2017; Duckworth, 2016). 이는 꾸준함과 지속성에 가장 큰 초점을 둔다는 점에서 일시적으로 집중하여 몰두하는 것을 넘어선다. 노력의 지속성은 끈기(persistence)로 설명되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좌절감에도 불구하고 목적 지향적인 자발적 행동을 지속하는 능력이다(Duckworth, 2016). 끈기는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시작한 일을 잘 처리하여 완성하는 능력으로, 목표를 향해 지속해서 행동하는 과정에서 얻게 되는 또 다른 만족감을 느끼는 태도이다. 즉, 끈기는 근면성과 인내의 유사한 개념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 실패나 역경에도 불구하고 지속해서 노력하는 성향을 의미한다(Duckworth, 2016). 흥미 유지는 열정(zest, enthusiasm)으로 해석되어 사용된다. 열정은 목적과 관심이라는 심리적 자산으로, 여기서 목적은 자신이 하는 일이 소중하다는 확신을 가지게 해주며, 관심은 자신이 하는 일을 진정으로 즐기는 것이다(Duckworth, 2016).

한편, Stoltz(2015)는 개인이 가치 있게 생각하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고통이나 희생을 참아내는 능력을 그릿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끈질김(Tenacity), 성장(Growth), 회복탄력성(Resilience) 및 직감(Intrinsic) 등으로 구분하였다. Thaler and Koval(2015)은 그릿을 끈질김(Tenacity), 배짱(Guts), 회복탄력성(Resilience) 및 주도성(Initiative) 등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Reed and Jeremiah(2017)는 그릿을 동기(Motivation), 목표 지향성(Goal-Directedness), 자기통제(Self-Control), 긍정 마인드셋(Positive Mindset) 등으로 구성하였다. 임효진(2018)의 연구에서는 그릿의 요인 구조를 비교한 연구에서 두 요인을 구분하여 2요인 모형 혹은 일반 요인(general factor)과 특수요인(specific factor)을 모두 고려하는 2중 요인(bi-factor) 모형이 제안된 바 있으나 ‘장기적 목표’와 ‘열정’ 요소가 적절하게 측정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국내의 대부분 연구에서도 그릿을 2요인으로 분석하였으나, 2개의 요인에 대해서 각각 다르게 명명하였다. 임효진(2018)은 각 요인을 흥미 유지와 노력 지속으로 명명하였으며, 윤상천과 최선영(2017)은 관심의 지속과 꾸준한 노력으로 구성하였고, 한수연과 박용한(2018)은 흥미유지와 끈기로 명명하였고, 신민과 안도희(2015)는 관심의 일관성과 노력의 인내로 구성하였다. 또한, 이수란과 손영우(2013)는 관심의 일관성과 노력의 꾸준함으로 구성하였고, 유영란, 유지원과 박현경(2015)은 지속적 관심과 꾸준한 노력으로 구성하였으며, 문공주와 함은혜(2016)는 흥미의 일관성과 노력의 지속성 등의 표현으로 사용하였다.

이상과 같이 그릿과 관련된 대다수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열정(passion)과 끈기(perseverance)’로 구분(Duckworth et al., 2007)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효진(2018)의 연구를 참고하여 그릿의 유형을 흥미 유지와 노력 지속의 2개 요인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3) 그릿에 관한 선행연구

그동안 그릿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업 장면에서 성공적인 수행이나 학업성취를 예측하게 만드는 핵심 요인으로 연구되었다. 특히 입시 경쟁으로 인한 학업 스트레스가 심한 청소년들에게 그릿은 학업을 포기하지 않고 부정적 정서를 조절하여 감소하게 하는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다(정혜원, 김예림, 박소영, 2020; 최정운, 임효진, 2021).

최근 부모양육태도와 관련한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는 그릿에 직접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그릿을 통한 청소년의 행복감 수준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함영란, 2023; 양수연, 2023; 모화숙, 문화진, 2022; 김명화, 김혜진, 최재혁, 2022; 정성원, 장유나, 홍세희, 2021; 이미라, 전향신, 2020; 홍은비, 노성향, 2022, 우성현, 안도희, 2022, 송홍정, 2020). 국외 연구에서도 부모양육태도는 그릿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Levy & Steele, 2011), 그릿 수준을 정적으로 예측하였다(Mandelbaum, 2016; Lin & Chang, 2017; Shaw, 2017).

조규영과 김승윤(2021)은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자녀가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릇을 높이고, 그릇이 자녀의 또래관계의 질을 높여서 궁극적으로 자녀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화숙과 문화진(2022)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학업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지지하며 이것이 심리·정서적 자원으로 작용하게 되어 목표 달성에 열의를 보이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은서와 정혜원(2022)은 부모양육태도가 그릇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자아존중감을 매개하여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초기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자아존중감이 그릇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명화, 김혜진과 최재혁(2022) 연구에서는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태도가 그릇과 주의 집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그릇은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이는 그릇 수준이 높을수록 주의 집중의 문제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청소년의 행복감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부모의 애정 어린 태도와 존중과 같은 정서적 지지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양수연(2023)은 청소년의 행복감과 영향 요인에 대한 중단 연구에서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 때 그릇과 학업 열의, 행복감 수준을 유의하게 예측하였다. 이는 청소년의 긍정적 정서 발달과 학업을 도울 수 있는 교육적 개입 방향을 제시하였다.

홍은비와 노성향(2022)은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아동은 높은 그릇을 형성하여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현정과 전주성(2021)은 부모양육태도가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 그릇을 매개로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원례와 한천우(2022)의 연구에서 중학생의 그릇 수준은 부모양육태도가 온정적이고 지지적일수록 자녀는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꾸준히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 성취의 결과 혹은 노력하는 모습 자체로 인해 자신을 더욱 가치 있고 유능한 인간으로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이미라와 전향신(2020)은 부모의 따스함, 자율성 지지와 구조 제공의 양육태도가 그릇을 매개로 학업성취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업성취는 학령기의 청소년들에게는 단기 목표이자 장기 목표이다. 따라서 부모는 학업성취에만 관심을 두기보다 적절한 정보와 지침을 제공하며 따스한 관심과 배려와 같은 정서적 지지를 제공할 때 자녀의 그릇이 키워질 수 있을 것임을 알려준다. 정성원, 장유나와 홍세희(2021)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학업 무기력을 완화하는 데 유의하지 않지만,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통해 중학생 자녀의 삶의 만족도가 증가함으로써 그릇이 높아져 궁극적으로 학업 무기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성현과 안도희(2022)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하에 성장한 자녀들이 그릿 수준이 높았으며 반면 과보호적 양육태도 하에 성장한 자녀들의 그릿 수준은 낮았다. 부모양육태도에 영향을 받은 그릿에 의해 우울 수준이 낮아지며 이에 따라 행복감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청소년 자녀뿐만 아니라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도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송홍정(2020)은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며, 자아존중감은 흥미 유지와 노력 지속에 높은 영향력을 가지며 이는 흥미 유지와 노력 지속을 더욱 높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흥미 유지와 노력 지속이라는 그릿의 하위 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함영란(2023)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청소년들이 성적 향상과 돈이 행복감 향상에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에 대하여 학업성취에 대한 예측력이 가장 높은 내적 품성으로 그릿의 중요성을 언급하였다. 청소년의 행복감과 그릿의 향상이 학업성취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Steinberg(2001)는 부모가 청소년에게 애정 어린 태도와 지지적 태도를 자주 보이고, 요구의 수준이 높을 때 청소년은 학업성취 수준이 높고 독립적인 성향을 보인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자녀들은 우울, 불안과 같은 정서적 문제나 비행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게 보고된다고 하였다. Havewala(2012)는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 태도로 인식할수록 그릿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를 통해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그릿 수준이 높아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릿을 발달시키기 위한 선행요인으로서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 그릿의 발달 환경으로서 부모 그릿을 선정하였다. 부모 그릿이 세대 간 이전(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관점에서 청소년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 부모 그릿과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 그릿이 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고자 한다.

2. 부모양육태도

1) 부모양육태도의 개념

부모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취하는 일반적인 태도나 행동 양식을 말한다(국립특수교육원, 2008). 자녀에게 부모는 태어나 처음으로 만나는 대상인 동시에 최초의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주요 타자(significant others)이다. 자녀는 부모를 통해서 가정환경에 적응하는 방법을 익히고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서 자기 삶의 인식과 성인들의 생활양식을 습득함으로써 사회규범에 알맞은 행동을 배운다(이선형, 문수백, 2020). 이러한 까닭에 부모의 양육방식이나 태도, 행동 등은 자녀의 자아개념 형성뿐만 아니라 인지·정서·행동 발달 등 전반적인 성장 및 발달에 영향을 미친다(정계숙, 최은실, 2012). 부모는 자녀에게 중요한 영향력을 가지며, 부모가 어떠한 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가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측면에서 부모 양육태도는 자녀의 심리적 분화와 결합의 발달에 영향을 주어 자녀의 정서적 특성 형성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특히 중학생 시기는 초기 학령기를 끝내고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과 더불어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변화에 대한 급격한 경험으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는 시기이다. 부모에 대해 의존하고자 하는 마음과 부모에게서 독립하여 주체성을 확립하려는 마음이 공존하는 시기이다. 이때 부모양육태도를 청소년 자녀가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력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parenting attitude)는 양육행위, 양육방식, 양육태도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며,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Skinner et al.(2005)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일관적인 행동과 이에 대한 경향이라고 하였다. 김명숙(2008)에 따르면, 양육태도란 부모나 부모를 대신하는 다른 보호자가 아이들을 양육하는 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나타내는 외현적이거나 내현적인 행동이며, 아이들의 요구에 대한 부모의 반응 방식을 포함한다. 따라서 부모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부모의 가치관이나 신념까지도 포함하는 전반적인 태도라고 하였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 내현적 행동에는 언행, 표정뿐만 아니라 부모의 가치, 신념, 믿음, 부모가 관찰한 자녀의 인식, 행동, 태도에 관한 부모의 반응, 즉 평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Bohman, 1991; 배문주, 2004). Fishbein and Ajzen(1975)에 의하면, 양육태도란 하나의 문화 방식으로 자녀

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부모가 가르치는 양태이며, 행동에 대한 경향성과 반응 양식으로 가족의 구성 형태, 가족의 분위기, 사회·경제적 지위, 문화적 배경, 부모나 자녀의 개인적 관계에 깊은 연관을 가진다. 남상인(1983)과 함정숙(1981)도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구체적인 태도와 행동이라 하였다.

일반적으로 부모양육태도란 가정 내에서 자녀의 특성, 태도, 가치 체계 등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정서적·심리적 태도이다. 이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기르고 가르치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행동이며 자녀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난다(김선영, 2007; 이진술, 2007).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외현적, 내현적 행동에는 언행, 표정뿐만 아니라 부모의 가치, 신념, 믿음, 부모가 관찰한 자녀의 인식, 행동, 태도에 관한 부모의 반응, 즉 평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Bohman, 1991; 배문주, 2004).

이상과 같이 학자에 따라 양육태도의 개념을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결국 부모양육태도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내현적·외현적 태도 및 행동이다. 즉 부모의 태도와 그에 따른 자녀의 반응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포함하는 쌍방향적인 측면에서의 반응양식 및 부모의 내적인 가치나 신념까지를 포함한 전체적인 태도라고 할 수 있겠다.

2) 부모양육태도의 구성요소

부모양육태도에 대한 연구는 Symonds(1949)에 의해 최초로 체계화되었다. 그 후 Schaefer and Bell(1959), Schaefer(1959), Becker(1964), Parker, Tupling and Brown(1979), Ferris, Jacobsson, Lindstrom, Knorrning and Perris(1980) 등이 부모양육태도의 특정한 요인들을 규정하고 이를 측정하기 위한 질문지를 개발하면서부터 더욱더 구체적이고 정교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는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형식과 차원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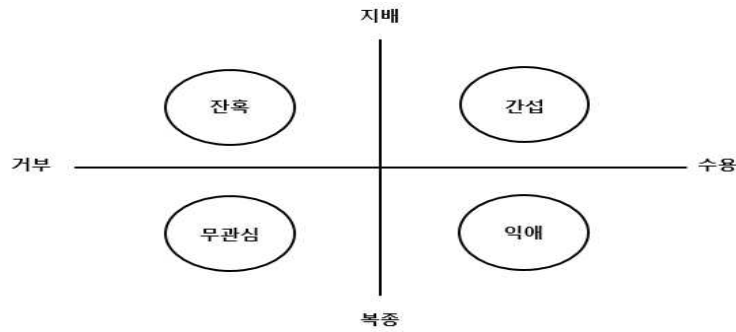
(1) 차원론적 구성

차원론적 구성은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을 구분하여 이를 측정하고, 양육태도의 하위 요인 사이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차원론적 구성에는 Symonds(1949), Roff(1949), Becker(1964), Schaefer(1959), Parker(1979) 등의 연구가 포함된다. Roff(1949)는 자유(freedom)-독단적 통제(arbitrary control), 자극(stimulation)-무시(neglect), 어

린아이 취급(babying)-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격려(adulting), 부적응(maladjusted)-적응(well-adjusted), 칭찬하는(approving)-협담하는(deprecating), 이성적인(rational)-비이성적인(nonrational), 그리고 훈련(training)-방임(free-growth)으로 분류하였다. Parker(1979)는 과잉보호와 돌봄이라는 두 개의 차원으로 구분하였다. 그는 각 차원의 직교좌표를 적절한 유대(optimal bonding), 유대의 결여나 결함(absent or weak bonding), 애정적 제한(affectionate constraint), 애정 없는 통제(affectionless control)의 네 가지 양육태도로 구분하였다.

Symonds(1949)는 양육태도를 수용-거부와 지배-복종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거부적, 익애적, 과잉 보호적, 엄격 권위적, 포부 야심적, 의존적, 애증적 유형으로 분류했다. 부모양육태도를 이론으로 처음 정리한 Symonds(1949)는 양육태도를 수용-거부와 지배-복종의 두 차원으로 구분하여 거부적, 익애적, 과잉 보호적, 엄격 권위적, 포부 야심적, 의존적, 애증적 유형으로 분류했다. 수용형(acceptance)은 부모가 자녀를 수용하고 애정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과잉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 거부형(rejection)은 자녀에 대해서 무관심, 조건적인 애정표현, 벌주기, 적대감 표출 등 거부하는 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자녀는 부모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반항적, 거짓말, 도둑질 등 문제행동을 보일 수 있다. 지배형(dominance)은 자녀에 대해 기대치를 높게 설정하고 그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라며 과도한 부담을 주는 경향이 있다. 복종형(submission)은 부모의 시간을 자녀에게 모두 소비하며 자녀로부터 모든 즐거움을 얻으려는 경향이 있다.

Symonds(1949)가 분류한 부모양육태도에서 부모가 지배-수용적이라면 수용을 통해 자녀를 용납하고 보호하지만, 지배적이어서 자녀를 부모의 뜻대로 통제하려고 하기에 간섭이 될 수 있다. 모든 것을 허용하고 자녀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해주는 복종은 익애가 될 수 있으며, 지배적이면서 자녀의 요구를 받아주지 않고 거부하는 것은 자녀에게 잔인한 것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녀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지배 의지도 없고 자녀에 대한 수용, 보호도 없는 것은 무관심으로 볼 수 있다. Symonds가 말한 가장 이상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수용-거부, 지배-복종의 두 가지 축에서 양극단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위치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출처: Symonds(1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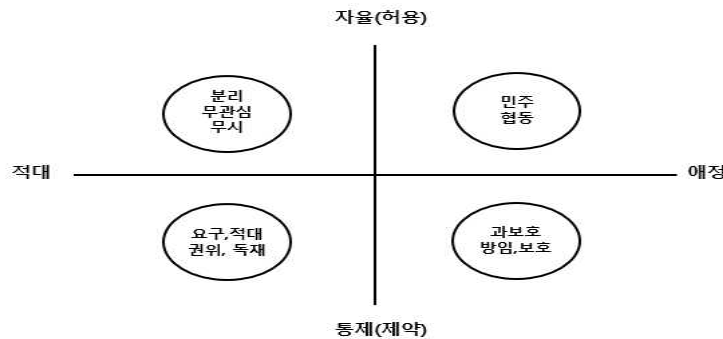
[그림 II-1] Symonds(1949)의 양육태도

이후 많은 학자에 의해 부모양육태도가 다양하게 분류되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Schaefer(1959)의 양육태도 모형이다. Schaefer의 모형은 기존의 양육태도 특성을 두 가지 주요 차원으로 분리한 것이다. Schaefer는 Guttman(1954)의 circumplex를 적용하여 부모의 다양한 양육태도 특성을 두 개의 축으로 구분했다. 두 개의 축은 변인(특성) 간의 상호관계를 고려하여 관련이 있는 요인은 가까운 곳에, 서로 대립하는 요인은 반대쪽에 배치하였다. 그의 모형은 애정-거부와 자율-통제의 두 개의 축을 중심으로 하며 애정-거부는 부모-자녀의 정서적 관계를 다루는 것이며, 자율-통제는 자녀의 행동에 대한 제한 및 규제를 다루는 것이다.

Schaefer의 양육태도 유형에 따른 부모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애정-자율적 양육태도는 부모가 자녀에게 자유, 민주, 협동, 수용의 태도를 갖는 것을 말한다. 즉, 부모가 애정을 가지고 자녀와 대화를 나누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녀를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며 민주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양육태도라 할 수 있다. 둘째, 거부-자율적 양육태도는 방임적인 양육태도로 자녀를 보호하거나 수용하지 않고 거부함과 동시에 자녀를 마음대로 행동하게 내버려둔다. 즉, 자녀는 부모에게 사랑과 보호를 받지 못하고, 행동이나 태도에 있어서 뚜렷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규범이나 기준을 습득하지 못한다. 불안정하고 공격적이며 때로는 반사회적 성향이 나타날 수 있다. 셋째, 애정-통제적 양육태도는 익애형의 양육태도로서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많이 주면서도 그에 따른 행동에 대해 엄격하게 제약을 가하는 특성이 있다. 즉,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여 자녀의 행동이나 선택의 기회를 부모가 결정하여 자녀가 선택할 기회를 제한하게 된다. 이러한 양육태도는 과잉보호의 형태로 드러나며, 자녀가 독립적인 행동을 하려고 할 때 좌절감을 느끼고, 자녀에게 심리적 통제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 넷째, 거부-통제적 양육태도는 독재적

인 양육태도로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과 보호를 주지 않으면서 자녀의 요구를 거부하고, 자녀의 행동을 독단적으로 통제하고 체벌하며 심리적으로 규제하는 태도이다. 이러한 부모의 태도에서 자녀는 자신에 대한 분노로 스스로를 적대시하고 내면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며, 자신을 확대하는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이영주, 2007).

정원식(1991)은 가정의 환경을 지위 환경, 과정 환경, 구조 환경으로 분류하고, 가정의 심리적 과정을 자율-통제, 성취-안일, 수용-거부, 보호-방임, 개방-폐쇄의 5차원으로 구분하였다. 이숙, 박성연(1988)은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연구에서 Schaefer의 개념을 토대로 온정·거부, 권위주의적 통제의 2개 요인으로 부모양육태도 유형을 구분하였다. 김태명과 이은주(2017)에 따르면, 자녀의 자율동기 촉진적 측면에서 부모양육태도 유형을 자율성 지지, 따스함, 거부, 구조 제공, 비밀관성, 강요 등의 6 요인으로 구성하여 분류하였다. 이 외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한종혜(1980)는 민주, 자율-권위, 통제, 그리고 애정, 수용-적대, 거부의 2개 차원으로 분류하였다.



출처: Schaefer(1959)

[그림 II-2] Schaefer(1959)의 양육태도

(2) 유형론적 구성

유형론적 구성은 차원을 가정하지 않고 양육 환경에 초점을 맞춰 양육과정에서 보이는 보편적인 행동이나 경향을 몇 개의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유형론적 구성으로는 Baldwin(1949), Baumrind(1967), Perris et al.(1980)등이 있다. Baldwin(1949)는 애정, 방임, 민주 세 가지로 구분하였으며, Perris et al.(1980)는 거부, 온정, 과잉

보호, 편애의 4개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대표적인 모델로 Baumrind(1967)는 독재적, 허용적, 민주적, 온정적 태도로 분류하였다. Baumrind(1991)는 부모-자녀 관계를 관찰한 연구에서 권위형(authoritative parenting), 독재형(authoritarian parenting), 허용형(indulgent parenting), 무관심형(neglective parenting)의 네 가지 유형으로 양육태도를 구분하였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권위형 양육태도(authoritative parenting)는 민주적 양육태도로 자녀를 애정을 가지고 대하며, 자녀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유를 허용하나 분명한 한계를 설정한다. 부모와 자녀는 상호 간의 권리와 의무를 중요시하며 소통을 중요한 원칙으로 생각하여 자녀가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자녀들은 규칙을 지키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사회적 규범과 질서를 습득하게 된다.

둘째, 독재형 양육태도(authoritarian parenting)는 권위주의적 양육태도라고도 하며, 자녀에게 지나친 간섭과 억압을 하면서 자녀의 요구에 관심이 적고 높은 통제를 요구한다. 애정이 적고 민주적 의사소통을 허용하지 않으며 규율을 맹목적으로 강요한다. 자녀의 복종 여부에 따라 조건부 애정과 관심을 보이며, 복종하지 않으면 처벌과 강제적인 힘을 행사한다. 부모는 지배적이고 자녀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허용하지 않으며 큰소리로 호통을 치거나 위협하는 특징이 있다. 자녀들은 자기표현이 제한되고 뚜렷한 기준을 형성하지 못해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과 자기 신뢰감을 형성하게 된다.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며 반항적 태도와 강한 분노를 보이며, 지적 성취와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초기성인기의 정체성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한다.

셋째, 허용형 양육태도(indulgent parenting)는 부모가 자녀의 요구에 지나치게 관대하거나 관심이 적고 나쁜 행동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편이며, 통제나 처벌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자녀의 나이에 상관없이 많은 결정을 하도록 허락하여 어른들에게 과도한 요구를 하거나 의존적인 경향이 있으며 충동적, 공격적, 반항적이다. 학업성취가 낮으며 참을성이 없고 복종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유형의 부모는 자기 영향력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경우이다.

넷째, 무관심형 양육태도(neglective parenting)는 방임형 양육태도라고 하며 자녀에 대해 최소한의 관심을 가지며 자녀의 의견에 대한 통제나 수용은 없는 태도이다. 이런 유형의 부모는 자녀 양육에 대한 의지가 희박하거나 정서적으로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고, 자신의 생활에서 과도한 스트레스와 압력을 받아 자녀에게 관심을 쏟을 여유가 없는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다. 우울증에 빠져 있는 경우도 해당이 되며 최악의 경우 자녀를 방임할 수 있다. 자녀는 우울함이나 분노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을 경

협할 수 있으며 낮은 학업성취와 반사회적 행동을 보인다.

국내 연구에서는 박성연과 이숙(1990)은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를 일관성 있는 규제, 성취, 적극적 참여,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의 7개 하위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종일, 송수길과 윤창영(1998)은 아버지의 양육태도를 능동적 참여, 민주적 지도, 온정, 적대의 4 요인으로 양육태도를 구분하였다.

최근 부모양육태도 관련 연구에서는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 Theory)의 적용이 늘어나고 있다(김명숙, 2019; 이미라, 전향신, 2020; 최현철, 엄우용, 2020). 자기결정성 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외부적 보상이 없어도 도전과 만족을 추구하고 흥미로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성장과 발전을 지향하는 내재적 동기를 지닌 존재로 태어났다고 본다. 개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 스스로 대처하고 목표를 향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결정하며, 목표를 위한 행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동기를 자기결정성 동기라고 한다(Sheldon, Ryan, & Reis, 1996).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심리욕구(자율성, 유능성, 관계성)들이 충족될 때 자기결정성이 증가하고, 내재적 동기를 가지게 된다고 설명하였다(Deci & Ryan, 1985; Deci & Ryan, 2012). 모든 인간은 기본적인 심리욕구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하며(Baard, Deci, & Ryan, 2004), 자기결정성 이론의 세 가지 기본심리적 욕구인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율성은 스스로 결정하고자 하는 욕구를 의미하며, 삶의 중요한 문제에 관하여 타인으로부터 통제당하거나 강요받지 않으려는 욕구를 말한다. 유능성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과제에 도전하고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관계성은 타인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소속되어 상호작용하고자 하는 욕구이다. 이 세 가지 욕구가 사회적 환경 속에서 충족될 때, 사회화 과정이 습득될 수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은 아이들의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부모는 온정적이고, 체계적이며,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는 환경을 제안한다(Deci & Ryan, 2000). 이때 부모는 자녀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요한 사회적 맥락이 된다고 보았다(Soenens & Vansteenkiste, 2010). 이로써 부모양육태도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형성됨을 알 수 있다.

최근 양육행동 척도의 차원성(dimensionality) 관련 연구들(Johnson, 2004; Skinner et al., 2005)은 양극성 모형(bipolar model)보다는 단극성 모형(unipolar model)이 양육행동을 훨씬 잘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한다. 즉, 6 요인(자율성 지지, 강요, 구조 제공, 비밀관성, 애정, 거부)들이 별개의 독립된 요인으로 분리되었을 때 훨씬 더 높은 적합도와 설명력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후 Skinner et al.(2005)은 기존의 80문항으로 구성된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Skinner, Wellborn, & Regan, 1986)를 바탕으로

차원성 검증 과정을 통해 6 요인 모형이 3 요인 모형보다 우수한 적합도가 보임을 증명하였고, 따스함, 거부, 자율성 지지, 강요, 구조 제공, 비밀관성의 6 요인으로 구성된 양육 척도를 제시하였다. 그는 각 양육태도 요인을 독립적으로 보는 단극성 모형(unipolar model)이 부모양육태도를 잘 나타낸다고 보았다. 기본적인 심리 욕구와 내재적 동기를 촉진하는 양육태도로 따스함(warmth), 자율성 지지(autonomy support), 구조(structure)를, 이와 반대로 심리적 욕구를 저해하는 양육태도로 강제(coercion), 거부(rejection), 혼란(chaos)을 제시하여 양육태도 하위 요인을 설명하였다. Skinner 등(2005)은 부모의 온정적 관여가 청소년의 관계욕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자율성 지지는 청소년이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여 행동할 수 있도록 하며, 구조 제공을 통하여 청소년 스스로 유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기 촉진적 관점에서 부모양육태도 척도((PSCQ_A)(Skinner et al., 2005)를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타당화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 척도(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Korean Adolescents; PSCQ_KA)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 요인은 따스함, 거부, 자율성 지지, 강요, 구조 제공, 비밀관성으로 구성되며, 6 요인은 서로 대척점에 있다기보다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김태명, 이은주, 2017; 정교영, 신희천, 2011).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따스함은 자녀에게 온정적인 태도로 애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과 배려, 정서적 지지 등이 포함된다(Skinner et al., 2005). 이는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또래관계나 교사와의 관계 등 사회적 적응을 예측한다(김태명, 이은주, 2017). 사회적 적응을 통한 관계성의 충족은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부모의 가치와 기대에 따르도록 유도한다(Hardy et al., 2011). 부모의 따뜻하고 반응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자아 개념을 향상시키고,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통제하고 스스로 조절할 힘을 생기게 하여 자녀의 행복감을 향상시킨다.

둘째, 자율성은 심리적 통제(Barber, 1996; Schaefer, 1965)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개인이 자기 삶의 원인과 동기가 되고 통합된 자아와 조화로운 삶을 살아가는 욕구이다(Deci & Ryan, 2012). 부모의 자율성 지지는 자녀에게 자율적으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자기성찰의 과정을 통해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부모의 특성을 의미한다(Grolnick, et al., 2002; Ryan, Deci, & Grolnick, 1995).

셋째, 구조 제공은 명확하고 일관된 기대와 행동 기준, 규칙을 제공하는 것으로(Grolnick & Ryan, 1989), 구조 제공의 개념 및 하위 요인에 대해 Farkas와 Grolnick(2010)는 “유능성을 촉진하기 위해 환경을 조직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구조

제공은 규칙의 설정이나 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함으로써 자녀가 명확하게 자신에게 기대되는 행동이나 과제를 인식함으로써 보다 계획적이고 조절된 행동을 돕는다(Vansteenkiste et al., 2012). 구조 제공은 명확한 기준과 정보 제공으로 인해 보다 신중한 판단과 결정을 돕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넷째, 강요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압박을 주는 것이다(Deci et al., 1994). 부모가 자녀의 요구나 필요에 응해주지 않고, 강압적인 방식으로 자녀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는 방식이다(Barber, 1996). 이러한 강요적 양육태도를 Schaefer(1959)의 분류에서는 애정과 적대, 자율과 통제 중 적대-통제적 태도와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Baumrind(1966)의 유형에서는 통제 수준이 높은 권위주의적(authoritarian) 양육태도와 유사하고, Barber and Buehler(1996)의 유형에서는 통제적인 부모에 해당하며, Parker et al., (1979)의 유형에서는 애정 없는 통제 유형, 그리고 Skinner et al., (2005)의 유형에서는 강제(coercion)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다섯째, 거부적 양육태도는 따스함의 반대개념으로, 부모가 자녀의 단점을 강조하고, 소홀히 대하거나 무시, 밀어내는 양육태도이다(Rohner, Khaleque, & Cournoyer, 2005). 거부하는 부모는 자녀와 부정적, 적대적, 반대, 비판적, 과민 반응, 짜증, 폭발적인 방식을 사용한다.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어머니를 둔 유아는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자신감이 결여되어(Schaefer, 1959),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낮은 사회적 능력을 보일 수 있다(원영숙, 2009).

여섯째, 비일관적 양육태도는 구조 제공의 반대개념으로, 부모가 자녀양육에 일관성이 없고, 예측할 수 없으며, 자신의 상황과 감정에 따라 상이한 행동을 보이는 것을 말한다(임정자, 2022). 비일관적인 양육태도를 보이는 부모는 독단적이고, 의지할 수 없으며,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키고 의사소통을 방해하여 자녀의 정서 문제를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박희현, 김진아, 한귀례, 2014; 배성만, 2014). Gallagher and Cartwright-Hatton (2008)의 연구에서는 비일관적인 부모양육태도는 자녀가 모호한 상황을 부정적 사건으로 초점화하여 스스로 모든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는 인지 왜곡 발달을 일으켜 자녀들을 더욱 불안하게 만든다고 보고하였다.

<표 II-1> 연구자에 따른 부모양육태도의 유형

연구자(연도)	유형
Symonds(1949)	지배-복종, 수용-거부
Baldwin(1949)	익애형, 민주형, 거부형, 전제형
Schaefer(1959)	자율-통제, 애정-거부
Becker(1964)	제한-허용, 감정적 개입-냉정한 초연함, 온정-적대,
Baumrind(1973)	애정, 요구 → 권위적, 독재적, 허용적, 무관심형
Parker(1979)	과잉보호와 돌봄→유대의 결여나 결함, 애정 없는 통제, 애정적 제한, 적절한 유대
Perris et al.(1980)	온정, 거부, 과잉보호, 편애
Ryan, Deci & Grolnick (1995)	온정-관여, 구조화, 자녀의 자율성 지지
Arrindell & Engebretsen(2000)	거부형, 애정형, 과보호형
Skinner et al. (2005)	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 제공, 거부, 강요, 비밀관성
오성심, 이종승(1982)	자율-통제, 애정-적대, 합리-비합리, 성취-비성취
박성연, 이숙(1990)	합리적 지도, 애정, 권위주의적 통제, 과보호, 성취, 적극적인 참여, 일관성 있는 규제
이종일, 송수길, 윤창영(1998)	능동적 참여, 민주적 지도, 온정, 적대
허묘연(2004)	애정, 합리적 설명, 감독, 비밀관성, 과잉간섭, 과잉기대, 학대, 방치
김태명, 이은주(2017)	강요, 비밀관성, 거부, 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 제공

출처: 연구자 제공

3) 부모양육태도에 관한 선행연구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환경적 변인으로 그 성격에 따라 서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많은 선행연구에서 아동 및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입증하였다(허영주, 2023; 김도희, 2022; 임정자, 2022; 서선숙, 백진아, 2020; 송미라, 한기백, 2015; 안지영, 이은경, 김지신, 2021; 유계환, 최희정, 2021; 허은, 2021; 권유정, 임지영, 최유석, 2022; 함영난, 박분희, 2021; 지선례, 2018; 정미애, 김효진, 2022; 이은경, 한세영, 2016; 이서희, 김기민, 2019; 조은혜, 송주연, 이우걸, 2022; 김명숙, 2019; 김은혜, 김민정, 2020; 양수연, 2023).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주의집중, 또래관계, 교사관계, 그릿, 협동심, 창의적 성향, 학업 성취, 학교생활 적응, 스마트폰 의존, 우울, 공격성, 정서·행동 문제, 진로 정체감 등 청소년과 관련 있는 사회자본 및 생태 체계적 변인까지 청소년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양하게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로 살펴보았는데(김도희, 2020; 서선숙, 백진아, 2020; 함영난, 박분희, 2021; 허은, 2021 등), 부모양육태도의 유형을 기준으로 하여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애정적이고 자율적 양육태도에 가까우며, 부모가 자녀에게 온정적이고 친밀하게 대하는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태도 및 행동을 의미한다(서석남, 이상구, 임상호, 2012).

반면,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간섭이나 강요, 방임, 비일관적, 과잉기대와 같은 방식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을 말한다(서선숙, 2018).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모양육태도가 부정적이면 자녀가 부정적인 자아상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고(Baumrind, 1971), 이렇게 형성된 부정적인 자아상은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어(Soenens, Vansteenkiste, Luyten, Duriez, & Goossens, 2005), 열등감과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더 많이 느낄 것이다.

또한 자신이 부모의 기준에 미달하였다는 느낌이 계속되어, 자신의 욕구보다는 부모나 타인에게 인정받는 방식으로 행동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우영지, 이기학, 2007). 또한 거부적이거나 과보호적인 부모양육태도는 타인의 평가적 의견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가져 대인 불안으로 이어지게 된다(Allaman, Joyce, & Crandell, 1972; Baumrind, 1976; 김나영, 조유진, 2009).

이 외에도 김윤덕(2023)의 연구에서는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 때 자아존중감과 그릿을 매개로 학업성취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지혜, 한재희(2009)는 실업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부모양육태도가 자녀의 우울함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였고,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를 애정적, 합리적이라고 인식할 때 우울함이 낮아진다는 것을 밝혔다. 임정자(2022)의 연구에서는 비행 경험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하여 가정 환경적 요인인 부모양육태도의 중요성을 학업 무기력과의 관계를 통하여 입증하였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와 자녀 관계는 청소년의 성격 형성뿐만 아니라 지적 발달에 가장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작용의 주요 변인이며 (Bronfenbrenner, 1976), 부모-자녀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되는 부모양육태도 보다는 청소년의 주관적 인식이 중요하다.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향후 청소년의 삶의 질과 방향은 현격히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Darling & Steinberg, 1993).

3. 또래관계

1) 또래관계의 개념

아동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관계에 대한 사회적 욕구의 변화를 경험한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또래와 친구의 구분이 명확해지고(Allen & Land, 1999; Hartup, 1990), 자주 만나서 놀고, 특정 또래와 공통된 가치를 찾고, 자기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는 정서적인 교류를 중요하게 생각한다(Berndt & Perry, 1990; Rubin et al., 2006). 자기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대상과 관계 맺기를 원한다(Allen & Land, 1999). 이에 따라 또래와 친구의 구분이 명확해지고, 여러 명의 친구 중 소수의 친구와 특별한 관계를 맺기 시작한다.

또래란 연령이나 학년 등이 비슷하고 신체적, 정신적 발달 정도가 비슷하여 공통된 사회적 배경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상호작용 할 수 있는 대상이다(Santrock, 1990; Perry & Bussey, 1984). 또한, 또래관계는 애정, 흥미, 관심 및 정보를 공유하며 타인과 관계를 유지하는 독특한 애착 관계이며(Hartup, 1983), 또래가 정서적 유대감을 가진 집단에서 수용과 인정을 주고받는 역동적인 관계이다(Shaffer, 2000).

Gross and Siperstein(1997)은 또래관계의 확장을 청소년기의 특징 중 하나라고 설명하였는데, 또래집단은 지지집단, 준거집단 등의 역할을 행함으로써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고민과 갈등을 서로 이해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해결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다. 또래관계는 청소년기에 매우 중요한 사회적 관계로, 스트레스에 함께 대처하며 서로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할 수 있다(안수영, 이형실, 2009).

또래는 연령, 학년, 성별에서 비슷한 수준과 특성이 있으며 신체적, 정신적, 성적 수준 발달이 비슷하고 사회적으로 동일시되며 함께 긍정적, 부정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이고 그들이 맺는 관계를 또래관계라 한다(Perry & Bussey, 1984). 이와 관련하여 이정숙과 명신영(2007)은 또래관계란 또래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지고 고민을 함께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면서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또래는 같은 학년, 학급에 속해있는 구성원들로, 비슷한 연령과 성숙 수준이 비슷한 사람들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서적 유대감을 가지고, 서로에게 수용되고 인정을 받으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계이다.

한편, 또래관계는 친근하고 동등한 지위를 가진 또래와 상호작용함으로써 감정적 교류와 지지를 주고받는 관계를 의미한다(형영옥, 2017). 또래관계는 영유아기부터 시작해서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평생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다. 특히, 사회관계를 넓혀가고 있는 중학생 시기는 자율성이 발달과업으로 간주하면서, 부모로부터 서서히 분리되면서 또래나 교사 등 보다 넓은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또래와의 유대감과 지지가 더욱 중요해지는 시기이다(Weiss, 1982). 서로에게 동료이자 선의의 경쟁자로서 격려와 지지, 피드백을 나누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정서적으로 스스로를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지각할 수 있도록 해준다(최지은, 신용주, 2003; Rubin et al., 2004). 이런 또래관계의 경험은 친구 간의 평등성, 동료의식, 상호성을 획득하게 하며 이러한 경험은 차후 다른 관계로 확장된다(Sullivan, 1953).

Sullivan(1953)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안정적이고 친밀한 대인관계 경험이 이후의 만족스러운 대인관계 행동과 태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Erickson은 청소년기에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하는 능력을 향상하여 보다 성숙하고 원만한 대인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또한, 청소년들은 또래와의 어울림을 통해 행복감과 더불어 심리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으며 또래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다른 친구들도 자신과 같은 고민과 갈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긴장감 또한 감소할 수 있다(천수혜, 2007; 최지은, 신용주, 2003).

구본용, 김택호와 김인규(1999)는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청소년 초기에는 부모에게서 벗어나 인간관계가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는 시기로 혼란과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또래관계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능력을 배우게 된다. 둘째, 자발성을 기초로 형성되는 또래관계는 자신이 원하는 또래를 선택하고자 하며, 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강하고 상호의존성도 높다. 셋째, 또래관계는 정서적이고 사회적인 관계로 목적과 욕구 충족의 수단적인 대상이 아니라 또래와 상호작용하는 자체로 행복감과 만족을 얻게 된다. 넷째, 또래관계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게 되며 이를 통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와 이유를 경험하게 된다. 다섯째, 청소년 초기에는 취미, 가치관, 관심사 등을 통해 또래집단에 대한 동조 경향이 드러나며 그 집단 속에서 취미나 가치관, 관심사가 같은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심리적으로 친밀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 여섯째, 청소년은 부모가 자신의 또래관계를 인정해 주고 수용해 주기를 원한다. 또래관계를 부모가 인정해 주면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며 부모와의 관계도 더 친밀해진다. 일곱째, 친밀하고 안정적인 또래관계는 부모와의 관계의 질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부모와의 관계가 서로 존중하고 개방적일 때 청소년은 또래관계에서 친밀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지만, 부모가 억압적이고 폐쇄적일 때 청소년은 반사회적이고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맺기 쉽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 보면 또래관계는 급격한 신체적, 환경적, 정서적 변화를 경

협하는 시기에 청소년의 사회성 발달, 자아 정체감의 형성, 인간관계 등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또래관계는 가족관계와는 달리 또래에게 관심과 애정, 흥미와 정보 등을 공유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형성하기 때문에 무조건적이거나 일방적인 관계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다.

또한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주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청소년 초기의 또래관계를 어떻게 형성했느냐에 따라 성인기의 사회적 관계나 대인관계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청소년 초기에 형성된 친밀하고 안정된 또래관계는 성인이 된 후에도 대인관계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청소년 초기의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또래관계를 청소년이 지각하는 또래관계로 보고,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2015)의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긍정적 또래관계와 부정적 또래관계의 2개 요인과 상호친밀감, 사회적지지, 또래관계 만족, 갈등과 대립, 일방적 주도, 철회와 고립의 6개 하위요인으로 가정하였다.

<표 II-2> 또래관계의 정의

연구자(연도)	정의
Hartup (1983)	애정, 흥미, 관심 및 정보를 공유하며 타인과 관계를 유지시키는 독특한 애착관계
Perry & Bussey(1984)	연령, 학년, 성별의 수준과 특성이 비슷하며, 신체적, 정신적, 성적 발달 수준이 비슷하여 사회적으로 동일시되며 긍정적, 부정적으로 함께 상호작용할 수 있는 대상
Gross, Siperstein(1997)	지지집단, 준거집단 등의 역할을 행함으로써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고민과 갈등을 서로 이해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며 해결방향을 함께 모색
Rubin et al. (2004)	서로에게 동료이자 선의의 경쟁자로서 격려와 지지, 피드백을 나누는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정서적으로 스스로를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지각할 수 있도록 함
안수영, 이형실 (2009)	스트레스에 함께 대처하며 서로에게 심리적, 정서적 안정과 지지를 제공
형영옥 (2017)	친근하고 동등한 지위를 가진 또래와 상호작용함으로써 감정적 교류와 지지를 주고받는 관계

출처: 연구자 제공

2) 또래관계의 구성요소

문선모와 윤기수(1984)는 관계성 변화 척도(Relationship Change Scale, Schlein & Guerney, 1971)를 바탕으로 또래관계와 혼용되는 교우관계의 구성 요인을 친근감, 민감성, 개방성, 이해성, 만족감, 의사소통, 신뢰감으로 제시했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친근감은 친밀하다고 느끼는 정도이다. 둘째, 민감성은 친구들에 대한 느낌이나 반응이 예민한 정도이다. 셋째, 개방성은 친구들에게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하거나 진실하게 행동하는 정도이다. 넷째, 이해성은 친구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는 정도이다. 다섯째, 만족감은 친구와의 관계에 만족한다는 정도이다. 여섯째, 의사소통은 서로의 생각과 느낌을 전달하고 받아들이는 정도이다. 일곱째, 신뢰감은 친구를 믿고 의지하는 정도이다.

이주리(1994)는 또래관계를 평가하는 개념으로 또래 환경을 제시하였다. 또래 환경이란 사회적, 인지적, 신체적 발달에 영향을 주는 또래관계망 내의 지지를 말하며, 또래의 정서적 지지, 공동 활동, 교환적 협동으로 구분한다. 이를 살펴보면 첫째, 정서적 지지는 또래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며 이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정도를 이야기한다. 둘째, 공동 활동은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또래활동에 참여하고 즐기는 정도를 이야기한다. 셋째, 교환적 협동은 친구들이 각자의 자원을 공유하는 정도를 말한다.

박춘희 등(2018)은 또래관계의 구성 요인으로 친밀, 사회적 지지, 우의가 높고 처벌 주도권이 높고 대립 정도가 낮으면 원만한 또래관계를 맺은 것으로 여겼다. 여기서 첫째, 친밀은 자신의 비밀 등 이야기를 집단 구성원에게 말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낸다. 둘째 요인인 사회적 지지는 집단 구성원 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지지적인 대상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우의는 말 걸기나 우호적으로 친밀, 귓속말, 함께 놀기 등 호감을 표현하는 행동이며, 넷째, 처벌 주도권은 함부로 지시를 내리거나 결정을 짓고 상대방의 제안을 수용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동을 이야기한다. 마지막 구성 요인은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논쟁하거나 다투거나 언쟁하는 것이다. 한편, 부모와의 관계에서 애착이 중요시되는 것처럼 또래관계에서 형성된 애착이 중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한보현(2017)은 또래 애착의 중요성을 근거로 의사소통, 신뢰감, 화·소외감을 구성요인으로 제시하였다. 첫째, 언어적 의사소통에 관한 것으로 또래 집단은 동시대의 사회,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으로 또래만의 문화적 특성을 가지며, 서로 평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더 쉽게 자신들의 고민을 공유하고 의사소통한다. 이때 의사소통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또래관계는 더욱 굳건해질 것이다. 둘째, 신뢰감 요인은 상호 이해와

존중을 의미한다. 또래는 연령이 비슷한 집단이지만 서로 다른 특성과 기질을 가진 무리이기도 하다. 따라서 서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대할 때 다툼을 예방할 수 있으며, 서로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할 수 있다. 셋째, 화·소외감은 관계 속에서 느끼는 대인 간 분노와 소외에 대한 것이다. 청소년 초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분리되어 학교라는 확장된 사회적 공간에서 청소년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애정이 없음을 깨달으면서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또래관계가 원만하고 긍정적으로 형성되면 이러한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불안, 분노, 소외감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

Sullivan(1953)은 청소년의 또래관계 발달 과정을 세 단계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청소년 이전 시기로 이 시기의 아동들은 또래와의 친밀감의 욕구가 높아지며 특히, 동성 간 강한 집단 정체감을 형성하며 높은 또래 의식을 가진다. 두 번째 단계인 청소년 초기에는 동성 간 친밀감에서 이성 간 친밀감으로 옮겨가게 된다. 세 번째 단계로 청소년 후기에는 신체·생리적 발달단계에 따라 대부분의 청소년이 성적 욕구가 생기고 그에 대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은 성적 욕구의 감정으로 인하여 청소년들은 대인관계에서 부끄러움을 타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되며, 이성 또래와의 관계를 의식적으로 피하기도 한다. 이처럼 또래관계는 연령에 따라 동성끼리 혹은 이성끼리 다르게 형성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계속해서 다른 친구들과 사귀며 관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에 타인과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면 형식적인 대인관계만 유지하거나 자신을 고립화하여 또래관계 실패를 거듭하게 된다(김계숙, 1992).

3) 또래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청소년기는 자신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타인을 통해 자기를 조금씩 알아가는 시기로, 의미 있는 타인과 질적으로 높은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 행복감이 높아질 수 있다(Zimmerman et al., 1997). Ryan and Deci(2001)는 이러한 관계성(relatedness)은 행복감에 핵심적인 요소이고, 개인의 성장을 도우며 이에 따라 주관적 웰빙을 얻을 수 있다고 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또래와의 긍정적인 관계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높이고(안지영, 이은경, 김지신, 2021; 권유정, 임지영, 최유석; 정선아, 2021), 삶의 만족도(조규영, 김승윤, 2021; 이현정, 전주성, 2021), 그릿(이은서, 정혜원, 2022), 학교생활 적응(조성희, 김희수, 2016) 등 청소년기의 발달에 있어 중요한 변인들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래관계를 잘 맺는 것은 신체·정서·심리적 혼란기에 있는 청소년기의 중요한 발달

적 과업이며, 사회성과 독립성이 발달하여 학교 및 심리적 적응에 있어서도 그 영향력이 크다(Ladd, Kochenderfer, & Coleman, 1996; 이은혜, 김정윤, 오원정, 2001; Teja & Schonert-Reichl, 2013). 이는 성공적인 학교생활과 학업성취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Henricsson & Rydell, 2006; Rubin, Bukowski, & Parker, 1998), 좋은 또래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인지, 정서, 신체적 변화에 대한 자기 이해가 증가하고(Berndt, 1982),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및 자아개념과 자아존중감이 형성된다(홍주영, 도현심, 2002).

또래관계는 관계의 질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살펴볼 수 있다. 가까운 관계에서 서로에게 호의적이고 평등한 관계를 유지하여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갈등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도 포함하기 때문에(Rook, 1984), 또래관계의 질이 좋은 경우는 갈등이 낮은 것을 나타내는 중요한 구인이 된다. 우정의 질이 높다는 것은 친사회적 행동이나 친밀감 등의 긍정적인 측면이 높고, 갈등이나 대립과 같은 부정적 측면이 낮음을 뜻한다고 하였다(Berndt, 2002). 즉, 또래관계의 질이 높을수록 청소년 개인의 적응을 돕고, 또래 간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이 발달한다고 볼 수 있다. 긍정적인 또래관계는 학교생활에서의 적응을 돕고(박주희, 이은혜, 2001; Ladd et al., 1996), 외로움과 우울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며(Nangle, Erdley, Newman, Mason, & Carpenter, 2003), 또래 괴롭힘으로부터 보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Bollmer, Milich, Harris, & Maras, 2005).

청소년 초기에는 또래관계의 경험을 통해 상호작용 능력, 친밀한 관계 유지, 갈등 해결 등과 같은 많은 사회적 능력을 배우게 되며 또래관계에서 소속감과 애정을 느끼면서 인정과 신뢰감 같은 심리적 요인도 경험한다(Hartup, 1983). 또한 중학생에게 또래관계는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이며(김청송, 2009), 중학생의 행복에 비중이 가장 큰 요인은 긍정적인 또래관계로 나타났다(유민상, 2016). 이렇듯 또래관계는 중학생의 삶에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고혜영, 2012).

중학생 시기는 또래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매우 높은 시기(이형실, 2015), 상호적 친구가 많고 또래관계가 기능적일수록 만족도와 유능감이 높아지며(서주현, 유안진, 2001), 또래와의 관계에 의해서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진다(유설희, 박보경, 도현심, 2015). 또한 또래관계를 통해 자아존중감이 높아지면서 주관적 안녕감도 높아지고(유설희 외, 2015), 또래들이 자신에게 수용적이고 지지적이면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되어 주관적 안녕감이 높아지게 된다(배주영 외, 2015).

임민옥(2020)은 다문화가정 유아의 사회적응과 관련하여 또래관계를 살펴보았으며, 부모가 자녀를 챙기고 배려하는 마음이 클수록 유아의 또래관계도 좋아지며 결국 사

회적응을 잘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선아(2021)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가 수용적이고 자율적이며, 성취 압력적이지 않을수록 자녀는 또래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양육태도를 성취 압력적이라고 지각할수록 부정적 또래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모의 관심과 기대를 성취에 대한 압력이라고 느낌으로써 또래를 경쟁상대로 지각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박선희(2021)는 부모와 친구가 자신을 인정해 주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 부모 또는 친구와의 친밀한 관계는 스마트폰 의존을 막는 보호 요인이며, 자아존중감을 강화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김대웅(2023)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을 대상으로 아동의 외로움을 설명하기 위해 또래관계와 자기 노출의 역할을 연구하였다. 아동의 집단에서의 외로움은 친한 친구 수, 단짝 관계의 질과 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친한 친구가 적고, 또래관계 질이 낮으며 또래 수용도가 낮은 경우 집단관계에서 외로움이 많이 느끼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의 적응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전 생애에 걸쳐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는 청소년기에 느끼는 행복 경험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전 생애로 확대되어 삶의 전반에 긍정의 힘을 제공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의 행복감의 증진을 위하여 또래관계에 관심을 가져야 함을 시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의 행복감에 주목하여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을 살펴보고,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한 방안으로 청소년의 긍정적 또래관계를 위한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4. 행복감

1) 행복감의 개념

1980년대 중반부터 심리학자들은 “무엇이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는가?”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다. 이것이 긍정심리학의 모체이다. 행복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근대 이전 신화시대에는 행복을 천국에서의 삶이라고 이해하였다. 물질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고 정신적으로도 걱정이 없는 천국, 그러한 삶의 방식을 행복이라고 생각하였다.

쾌락주의 창시자인 에피쿠로스는 행복을 쾌락이라고 주장하면서, 쾌락을 영혼이 건강하고 육체적 고통이 없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그는 이성에 의해서 쾌락이 합리적으로 추구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특성을 보다 강화한 것이 스토아학파로, 그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합리적이며, 그때 행복에 이를 것이라고 이해하였다. 이성적 태도를 통하여 감성에 좌우되지 않는 냉철한 행복에 이른다는 것이다. 중세적 행복 이해의 특징이다.

르네상스를 거쳐 행복에 대한 근대적 이해는 이성이나 절대자와의 일치감을 떠나 육체적 고통이나 영혼의 문제가 없는 상태로 환원되었다. 이러한 쾌락은 선택받은 소수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시작했다. 모든 남자와 여자들은 현실에서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해야만 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행복의 가능성과 당위성이 근대 인간의 자기 이해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러한 생각은 미국의 독립선언서에서 명백하게 천명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복에 대한 이해는 행복의 문제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책임질 문제로 대두되었다는 점에서 고대와 구분된다. 행복이 사회적 차원에서 논의되면서 그 내용에서도 변화를 겪게 되는데 그것은 행복의 물질화이다. 개인의 행복은 주관적이지만 주관적 행복을 영위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으로써 제공될 수 있는 것은 주로 물질적 풍요였기 때문이다. 행복을 물질로 받아들이는 근대적 행복 이해는 근대 특유의 개인주의 내지 평등주의에서 비롯된다.

프랑스의 문화평론가 보드리야르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이런 정신에 따라서 행복에서도 평등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한다. 평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평등에 대한 양적 계량이 가능해야 한다. 행복의 평등을 이루기 위해서 양적 계량이 가능한 행복만이 행복으로서의 자격을 가지게 되는데, 이런 까닭으로 양적 계량이 가능한 물질의 소비만이 행복의 근거가 되었으며, 다양한 형태의

내면적 행복은 계량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행복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 보드리야르의 지적이다.

이로써 개인의 주관적 행복은 더 이상 행복이 아닌 것이 되었고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행복 즉 물질적 행복만이 행복이라고 불리면서 행복의 서열화가 일어나게 된다. 자신보다 더 행복한 사람들과 비교함으로써 끊임없이 불행의식에 빠져들게 되고 여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은 무한경쟁에 뛰어들기 시작하였다.

미국이나 영국, 독일의 국민들은 50년 전보다 두 배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적 풍요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행복이 그다지 증대되지 않았거나 심지어 감소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배인섭, 2006). 이스털린 역설(Easterlin paradox)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인간에게 긍정적 혹은 부정적인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행복도의 변화가 있지만 곧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행복의 세트 포인트(happiness set point)라고 하면서 그 개념을 제안하였다. 경제학자들도 7,812명의 독일인을 대상으로 16년 이상 매년 반복하여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물질적 풍요의 효과가 재화를 한 단위씩 더 소비할 때마다 그 효용이 점점 더 감소한다는 원칙을 발견하였다.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에 따르면, 가족관계, 재정 상황, 일, 공동체와 친구, 건강, 개인적 자유, 그리고 개인적 가치의 7가지가 현대인의 행복을 구성하는 요소라고 밝혔다. 미국 시카고 대학의 국립여론연구센터(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에서 실시하는 미국 일반 사회조사(U. S. General Social Survey)에서는 처음 다섯 가지가 행복 요소 중요성의 차례라고 하였다. 재정 상황은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이지만 가족관계나 공동체는 근대인들에게는 알파고 오메가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서구 선진국들이 물질적 풍요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성장만으로는 인간의 행복감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삶의 질, 또는 주관적 행복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도인종, 이양희, 2008). 그동안의 심리학은 정신질환이라는 한 가지 주제에만 매진해 왔다. 그 결과 애매모호했던 증상들을 정확히 진단하게 되었고 아울러 정신질환의 발병과정이나 심리적 원인, 생화학적 작용 등 많은 부분에서 탁월한 성과를 이루었다.

그러나 부정적인 심리상태를 완화하는 데 치중하다 보니, 삶의 긍정적 가치를 부각하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소원해질 수밖에 없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동안 진정으로 의미 있고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는 심리학에서 삶을 부정적 측면이 아니라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연구하고, 개인의 강점과 미덕을 추구하여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처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 주어야

할 때이다.

긍정심리학에서 보는 행복에 대한 연구는 세 가지 전제로부터 시작된다. 첫째, 행복은 제삼자의 시각이 아니라 주관적 판단이나 느낌으로 판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몸이 아프면 행복에 위협이 되긴 하지만, 건강할수록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둘째, 행복은 삶에서 부정적 요소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 요소보다 긍정적 요소가 더 많음을 가리키는 것이다. 셋째, 행복은 돈이나 명예, 권력이나 건강과 같은 외부적이고 물리적인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긍정심리학에서는 행복에 대한 외적이 요소보다는 행복한 사람들의 마음에 집중하여 연구한다. 인간의 강점과 미덕에 대한 과학적 연구이며, 사람들이 잘 기능하고 올바르게 행동하며, 삶을 향상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인간의 행복과 성장을 지원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긍정심리학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과 긍정적인 특성을 촉진하며 고통의 완화뿐만 아니라 행복 증진으로까지 영역을 확장한다.

Seligman(2002)은 긍정적인 상태(Positive states)와 긍정적인 제도(Positive institutions), 및 긍정적 특성(Positive traits)을 긍정심리학의 연구 주제로 분류하였다. 긍정적인 상태는 인간이 경험하는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연구로 자신감, 희망, 신뢰감 등과 같은 긍정적 정서는 삶이 편안할 때가 아니라 시련이 닥칠 때 큰 힘을 발휘한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생각, 열정, 활기 등이 포함된다. 긍정적인 제도는 긍정적인 주관적 경험을 촉진하는 가족, 학교, 조직, 사회 등의 기관이나 조직을 말한다. 삶이 힘들 때 민주주의, 유대감 깊은 가족, 자유로운 언론과 같은 긍정적인 제도를 이해하고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긍정적 특성은 긍정심리학의 핵심인 강점과 미덕은 물론 지능과 운동성 같은 개인의 '능력'까지도 포함되며, 일시적인 상태가 아니라 개인의 긍정적인 행동 양식이나 탁월한 성품과 덕목 등 지속해서 나타나는 개인의 특성을 의미한다. 용기, 미래에 대한 기대감, 공정성, 충실성 등과 같은 강점과 미덕을 이해하고 강화하는 것은 삶이 어려울 때 그 필요를 더 절감할 것이다.

긍정심리학은 긍정적 정서가 형성되면 부정적 정서는 이내 사라진다고 보았다. 개인의 강점과 미덕은 불행과 심리적 장애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활력을 되찾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긍정심리학에서 진정한 행복은 개인의 강점을 파악하고 계발하여서 일, 사랑, 자녀 양육, 여가 활동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활용함으로써 실현된다고 설명하였다.

최근 행복에 대한 연구들에서 행복은 다양하게 정의된다. 행복이라는 용어는 평안한 기분이나 마음 상태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행복의 사전적 의미는 '생활에서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어 흐뭇함. 또는 그러한 상태'(국립국어원)로 정의하고 있다. 기분이나 마음 상태 등의 의미가 포함된 만큼 인간의 심리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는 흥미로운 주제가 되기도 한다.

학술적으로는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삶의 질, 웰빙(Well-being) 등의 다양한 단어로 표현되어 연구되고 있는데, 발달심리학이나 상담 분야에서는 심리적 안녕감으로, 긍정심리학 분야에서는 개인의 전반적 삶의 만족에 대한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삶의 질, 웰빙(Well-being) 등의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주관적 행복감은 Diener(1984)에 의해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로, 행복의 핵심은 부정적 정서에 비해 긍정적 정서 경험을 일상에서 더 자주 느끼는 것이라고 하였다. 자신이 경험한 행복에 대한 주관적 가치, 즉 개인의 주관적 경험으로 적은 부정 정서, 많은 긍정 정서와 높은 삶의 만족 등을 경험하는 상태라고 하였다. Argyle와 Crossland(1987)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긍정적인 정서에 대한 빈도와 정도, 삶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 우울함이나 불안과 같은 부정적 정서의 부재에 의존한다고 하였다.

Veenhoven(1991)은 개인이 자기 삶에 대한 질적 수준을 낙관적으로 판단하는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Lyubomirsky(2001)는 행복한 사람은 현재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결혼생활이나 직장생활, 건강 등 여러 영역에서 긍정적인 태도로 살아간다. 또한 역경이나 두려움, 불안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즐거운 마음으로 대처하려는 긍정적 정서를 지닌다고 하였다. 그는 행복감을 기쁨이나 만족 등을 누리면서 자기 삶이 좋고 의미 있으며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상태로 정의하였다.

Seligman(2002)은 자기 일에 몰입하여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즐거운 기쁨을 느끼는 상태라고 정의하였다. Noddings(2003)는 행복감의 객관적 측면을 강조하였는데, 행복감이란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자기 일에 흥미를 느끼고 만족하며 사는 삶으로 객관적으로 좋은 삶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Shahrar(2014)는 행복은 원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갑자기 찾아오는 것도 아니다. 행복은 끊임없이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며 훈련이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서은국(2014)은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며, 행복한 사람은 일상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남보다 자주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하였다. 정이나(2015)는 행복감을 개인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가 높으며, 부정적인 정서가 낮은 정도라고 정의하였다. 이경민, 이난과 양경화(2018)는 인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총체적인 감정이라고 행복감을 개념화하였다. 최애리(2022)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해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지각한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 낮은 수준의 부정 정서와 높은 수준의 긍정 정서라고 하였다.

주관적 행복감의 개념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상황은 개인들의 행복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외부적인 여건이 곧 행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둘째, 행복이란 것은 개인이 느끼는 부정적인 것들이 없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인생의 좋은 측면을 반영한다. 셋째, 행복은 삶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판단이다(Diener, 1984).

행복감에 대한 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르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3> 행복감의 개념

연구자(연도)	정의
Diener(1984)	개인의 주관적 경험으로 높은 긍정정서, 낮은 부정정서, 높은 삶의 만족을 경험하는 상태
Argyle & Crossland(1987)	긍정적 정서에 대한 빈도와 정도, 삶에 대한 만족감의 정도, 부정적 정서의 부재
Veenhoven (1991)	자신의 삶에 대한 질적 수준을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정도
Lyubomirsky (2001)	기쁨이나 만족 등을 누리면서 자신의 삶이 의미있고 가치있다고 생각하는 상태
Seligman(2002)	자신의 일에 몰입하여 삶의 의미를 찾으면서 즐거운 기분을 느끼는 상태
Noddings(2003)	자신의 일에 흥미를 느끼고 타인과 좋은 관계를 맺고 만족하며 사는 삶
Shahar(2014)	행복은 끊임없이 발견해나가는 과정이고 선택해야 하는 것이며 훈련이 필요한 것
서은국(2014)	일상에서 긍정적인 정서를 남보다 자주 경험하는 사람
정이나(2015)	개인이 지각하는 삶의 만족도와 긍정적 정서가 높으며, 부정적인 정서가 낮은 정도
이경민(2018)	인간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총체적인 감정
최애리(2021)	주관적으로 지각한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 낮은 수준의 부정 정서와 높은 수준의 긍정 정서

출처: 연구자 제공

(1) 철학적 관점

전통적으로 행복감에 대한 철학적 접근은 첫째, 쾌락주의적 입장으로 행복을 극대화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여겼던 Epicurus의 쾌락주의 학파와 관련이 있다.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이고 자신이 원하는 중요한 것을 얻었을 때 느끼는 긍정적인 정서를 동반한 상태로 정의한다(Kraut, 1979). 쾌락주의는 자칫 참기 힘든 것은 회피하고 육체적으로 즐겁고 감각적인 것을 추구하는 방탕한 삶을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우나, 아픔과 고통보다는 즐거움을 좋게 여겨 이를 추구하는 것으로 인간에게 좋은 경험적 자료가 된다고 보았다. 대표적인 쾌락주의의 선봉자인 Epicurus(B.C. 342~270)는 ‘내가 말한 쾌락은 몸의 고통이나 마음의 혼란으로부터의 자유이다’라고 단언한 바 있다. 그는 쾌락을 육체적 감각에만 국한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강조하였다. 강영하(2012)는 신체적으로 고통이 없고 영혼의 문제가 없는 것을 쾌락이라고 정의하면서 행복감을 쾌락이라고 주장하였다. Epicurus의 철학의 목적은 행복하고 평온한 삶을 얻는 데 있다. 그는 평정(ataraxia), 평화, 공포로부터의 자유, 무통(aponia)을 행복하고 평온한 삶의 특징이라고 하였다. 서장원과 권석만(2015)은 행복감의 추구는 즉각적인 감각의 만족을 중시하면서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하였다. 종합해 보면, 쾌락주의적 관점의 핵심은 좋은 삶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개인적 행복감과 즐거움의 추구를 그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자기실현적 관점이다. 고대 그리스의 Aristotele이 자신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을 통해 제시한 endaimonia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행복(happiness), 잘 삶, 또는 웰빙(well-being), 번성하다(flourish) 등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는 인간의 활동과 행동이 지향하는 목표를 선(the good)이라고 하였고 선 가운데 최고선(Supreme good)을 자기실현적 행복과 동일시하였다(조대웅, 2008). 그리하여 행복감이란 더 이상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이며, 인생의 의미이자 목적이며 인간 존재의 전체적이고 궁극적인 목표라고 하였다(김태길, 1996). Aristotele에 따르면 진정한 행복은 단순히 즐거운 정서 상태에 도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한 가치를 알고 그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을 통해 추구할 수 있다. 이후, 자기실현적 관점에서 행복은 충분히 기능하는 인간(fully-functioning person)을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제시한 Rogers(1951)와 자기결정성 이론(self-determination)을 주장한 Deci and Ryan(2000) 등에 의해 발전되었다.

행복감은 타인과 구별되는 자신만의 독특함을 인식하고 실현하는 것으로, 자신의 진정한 본성(daimon)을 깨닫고 발휘하는 것이며, 개인적 성장과 발달, 도전과 노력이 관련된다고 보았다(Ryan & Deci, 2001). 특히, Riff(1989)는 인간의 강점과 그에 대

한 계발을 통해 행복을 추구할 수 있으며, 단순히 정서적 차원의 즐거움이나 만족감 만으로는 행복을 충분히 설명할 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셋째, 통합적 관점이다. 쾌락주의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의 개념을 통합하여 연구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유민상, 2016).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Seligman (2002)은 행복에 대한 쾌락주의적 관점과 자기실현적 관점과 더불어 ‘몰입(engagement)’을 추구함으로써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몰입이란 특정 활동을 수행하는데 온전히 빠져들어 마치 시간이 멈춘 것과 같이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심리적 상태로 설명하였다.

Seligman(2002)은 몰입이 쾌락주의적 행복과 자기실현적 행복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강조하였다(Peterson et al., 2005). 그에 따르면 몰입은 그 어떠한 정서를 느낄 수 없고 어떠한 것도 인지할 수 없는 상태라는 점에서 쾌락주의적 행복과 차이가 있다. 또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한다고 해서 몰입을 느끼는 것도 아니고 몰입을 경험한 개인의 삶이 무조건 의미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몰입은 자기실현적 행복과도 별개의 개념이다.

이상을 바탕으로, Seligman(2002)은 행복한 삶의 구성요소로 즐거운 삶(pleasant life), 의미 있는 삶(meaning life), 몰입하는 삶(engaged life)으로 분류하였다. 즐거운 삶(Pleasant life)이란 현재, 과거, 미래에 대해 즐겁고 기쁜 감정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다. 과거의 삶에 대해서는 수용과 감사의 마음으로 만족감과 흡족함을 느끼고, 현재의 삶 안에서는 집중과 적극적 참여를 통해 유쾌함과 즐거움을 경험하며, 미래의 삶에 대해서는 도전과 낙관적인 기대를 통해 희망을 느끼며 살아가는 삶이다. 의미 있는 삶(Meaning life)이란 자신보다 큰 무엇인가에 의미를 두고 사는 삶으로, 자신을 초월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행복을 의미한다. 개인적인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 직장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와 세계 등 사회의 이익을 추구하고 공헌하며 존재가치를 느끼는 것이다. 몰입하는 삶(Engaged life)이란 매일의 삶에서 자신이 추구하고자 하는 활동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삶을 뜻한다. 몰입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나가 자기실현을 이루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실현적 입장이 가지고 있는 행복의 개념은 개인의 목표, 의식, 덕성, 성품 등 측정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진행되고 있다(유민상, 2016). 또한 자아실현은 Maslow(1970)의 욕구 이론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욕구로 생애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으며,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존중의 욕구 등 하위 욕구가 충족되었을 때 비로소 실현 가능해진다(김유현, 강옥려, 2019). 반면, 쾌락주의적 입장은 측정의 용이성과 개념의 단순 명료함으로 인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유민상, 2016).

(2) 심리학적 관점

첫째, 행복감에 대한 이론 중 대표적인 것이 비교 이론(Comparison theory) 또는 격차 이론(Discrepancy theory)이다(Michalos, 1985). 비교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자신을 타인과 비교함으로써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는데, 현재 자신의 상태를 어떤 기준과 비교하여 그 기준보다 상향된 방향으로 차이가 클수록 행복을 많이 느낀다. 인간이 자신을 평가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사회적 비교(Social comparison)이다. 사회적 비교는 비교 대상에 따라서 수평적 비교(Lateral comparison)와 상향적 비교(Upward comparison), 하향적 비교(Downward comparison)로 구분할 수 있다. 수평적 비교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고, 상향적 비교는 자신보다 나은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 하향적 비교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다. 실증적 연구에 따르면, 상향적 비교를 하는 사람들보다 하향적 비교를 하는 사람들의 행복 수준이 더 높다(Lyubomirsky & Ross, 1997). 권석만(2008)은 타인, 과거의 삶, 이상적 자기상, 지향하는 목표 등이 주요한 비교 기준이라고 하였다.

청소년기는 어떠한 생애주기보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기이다.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장 밀접하게 상호작용하는 환경체계인 청소년의 가족, 친구, 학교, 지역사회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적절한 비교 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면 청소년의 행복감이 증진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심리학 이론 중 행복감을 설명하는 주된 이론은 목표이론(Goal theory)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오랫동안 추구해 왔던 목표를 이루었을 때 강렬한 행복감을 느낀다. 인간은 목표의 설정, 목표를 향한 진전감 그리고 목표의 성취를 이룰 때 행복감을 느낀다(Austin & Vancouver, 1996). 목표는 미래에 대한 기대나 희망의 구체적인 내용 또는 개인이 행동을 통해 성취하고자 하는 구체적인 지향점을 의미한다. 인간의 행복을 목표성취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목표와 성취 간의 격차가 적을수록 행복해지며(Wilson, 1967), 목표의 설정과 성취는 주관적 안녕감과 긍정적 정서를 증가시킨다(Brunstein, 1993; Brunstein, Schultheiss & Grässman, 1998). 또한 자신의 내면적 동기와 추구하는 목표가 잘 부합할 때 행복감이 증가한다. 반면, 목표가 많은 사람은 삶의 만족도, 자존감, 긍정적 정서가 높고 성취의 즐거움도 많지만, 목표를 성취해야 하는 부담감도 크기 때문에 스트레스와 불안감도 많이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추구하는 목표 간의 일관성과 통합성이 중요하다(Sheldon & Kasser, 1995). 양립되기 어려운 목표들을 추구하는 사람은 그 과정에서 부정적 감정을 많이 느낀다. 특히 많은 발달과업이 요구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에는 조화롭고 일관성 있는 목표를 선택하여 추구하는 것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중요하다.

2) 행복감의 구성요소

행복감의 구성요소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다르다. Andrew and Withey(1976)는 자신의 기대나 희망, 다른 집단과 비교를 통해 얻은 삶의 만족감과 긍정적 정서 경험과 부정적 정서 경험을 포함한 정서적 안녕감으로 설명하였다. Veit and Ware(1983)는 행복감의 측정에 있어서 안녕감이 측정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되므로, 이를 근거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해야 한다고 하였다.

Fordyce(1988)는 삶의 만족도, 안녕감, 행복감, 사기를 관련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Riff(1989)는 자기실현적 관점에 기초하여 심리적 안녕감에서 발생하는 행복감은 사회 속에서 잘 기능하는 것이 개인의 삶의 질을 높여 준다고 파악하고, 바람직한 삶에 대한 자아수용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 성장의 6개 요소를 행복감의 구성요소로 설명하였다.

양옥경(1994)은 주관적 복지와 안녕, 그리고 삶의 만족을 동일한 개념으로 간주하였다. 한정원(1997)은 안녕감에 작용하는 하위 개념으로 행복감, 삶의 만족도, 사기를 제시하였다. Diener(2000)는 인지적 측면인 삶의 만족도와 정서적 측면인 정서적 행복감을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Seligman(2002)은 행복감의 구성요소에 대해 개인이 평가하는 인지적 측면과 긍정적 감정을 자아내는 정서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명수정(2011)은 행복감과 관련한 구성요소를 삶의 만족을 의미하는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낮은 부정적 정서를 의미하는 자기통제로 분류하였다. 황정우(2011)는 행복감의 구성요소를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로 구분하였다. 삶의 만족은 자기 현재의 삶과 이상적 삶의 모습과의 차이에 대한 인지적 판단이고, 긍정적 정서는 행복이나 기쁨과 같은 즐거운 정서에 대한 빈도와 강도를 의미하며, 부정적 정서는 슬픔과 근심과 불쾌한 정서에 대한 빈도와 강도를 의미한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행복감의 구성요소에 대해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인지적 요소와 정서적 요소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인지적 요소는 삶의 만족도 즉, 자기 삶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서의 만족이 행복감으로 이어지는 것이라면, 정서적 요소는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간 균형이 행복감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즉, 개인의 삶에 대한 장기적인 판단 및 평가를 만족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행복은 개인의 주관적 경험에서의 유쾌하고 불쾌한 정서를 반영한다 (Keyes et al., 2002).

(1) 인지적 요소

인지적 요소의 행복은 개인이 자기 삶에 대해 평가하는 인지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입장으로 삶의 만족을 의미한다. 삶의 만족도란 “자신이 스스로 정한 기준을 지금의 삶과 비교하고 평가하는 과정으로서 스스로 정한 기준과 지금 인식하는 인생의 환경들이 일치할 때 느끼는 삶의 만족감에 대한 수준”이다(박민정, 2012). 즉 삶의 만족도는 자기 삶에 대해 느끼는 인지적이고 의식적인 판단이다. 권석만(2008)은 인지적 요소는 삶의 만족을 의미하는데, 삶의 만족은 “자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전체적인 인생의 만족”을 말한다. 자신이 지각하는 삶의 여건들이 자신이 설정한 기준과 부합한다면 삶의 만족도는 높을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느끼는 인지적이고 의식적인 판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인생의 사건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실제로 더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느끼게 만들 수 있다(유혜경, 2014).

일반적으로, 중학생 시기는 초기 학령기를 끝내고 중학교라는 상급학교로 진학하여 새로운 환경과 심리·정서적 상황으로 이른바 ‘생태학적 전환기’를 맞이하는 때이다. 급격한 신체적 성장과 정서적 변화를 경험하면서 주관적 인식에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 이때 청소년의 주관적 만족감은 또래와의 비교를 통해서 지각하기도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비춰서 기준보다 높으면 행복하고, 낮으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Veenhoven, 1991; 박영준, 이정숙, 2016). 이러한 인지적 판단은 행복을 추구하는 행동에 방향성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실제 정서와 행동을 유발하는 요인으로 행복 연구의 중요성이 내포되어 있다(강금주, 2019).

(2) 정서적 요소

정서적 측면의 행복은 “긍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감정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 과거의 심리학은 우울하고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심리를 다루는 학문이었다. 그 결과 정신질환의 발병과정이나 유전적 특징, 심리적 원인에 대해서 지식을 축적하게 되었고 증세를 완화하는 방법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삶을 불행하게 하는 심리상태는 완화되었지만,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었다. 우울증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를 제거하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정서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였지만, 그 결과 긍정적인 정서가 저절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행복감의 가장 기초적인 자료가 되는 기쁘다, 재미있다, 즐겁다, 좋다 등은 모두 쾌의 원료가 되는 경험으로 이러한 여러 감정을 묶어 심리학에서는 ‘긍정적 정서(pleasant emotions)’라고 한다. 반대로 불쾌에 바탕을 둔 분노, 슬픔, 두려움, 외로움

등을 묶어 ‘부정적 정서(unpleasant emotions)’라고 한다(서은국, 2014). Watson and Tellegen(1985)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감정의 정서적 측면으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는 개별적인 차원임을 보고하였다. 이것을 긍정·부정 정서의 독립성이라고 하며, 정신 병리에 몰두했던 심리학이 행복 연구를 시작하게 된 이론적 배경이다.

정서 학자들의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불행의 감소와 행복의 증가에 기여하는 요인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다. 불행의 요인들을 줄이는 것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행복은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쾌락은 곧 소멸하기 때문에, 한 번의 커다란 기쁨보다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절대적이다. 행복의 기쁨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이다. 행복은 한 번의 큰 기쁨보다는 여러 번의 기쁨이 중요하다. 따라서 행복감 증진을 위해서는 일상생활에서 소소한 기쁨이나 즐거움을 자주 경험하도록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청소년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자기 자질을 얼마나 좋아하느냐가 행복과 더 관련이 있다.

<표 II-4 > 행복감의 구성요소

연구자(연도)	정의
Andrew & Withey(1976)	삶의 만족감(인지적 평가), 정서적 안녕감
Veit & Ware (1983)	주관적 안녕감
Fordyce (1988)	안녕감, 행복감, 삶의 만족도, 사기
Riff (1989)	자아수용성, 긍정적 대인관계, 자율성, 환경통제력, 삶의 목적, 개인의 성장
Diener (2000)	삶의 만족도(인지적 측면),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정서적 측면)
Seligman (2002)	개인이 평가하는 인지적인 면, 긍정적 감정을 자아내는 정서적 측면
양옥경 (1994)	주관적 복지와 안녕, 삶의 만족
한정원 (1997)	행복감, 삶의 만족도, 사기
강영하 (2008)	자아존중감, 낙관주의, 친구관계, 가정환경을 하위변인으로 봄
명수정(2011)	삶의 만족도, 긍정적 정서, 낮은 부정적 정서(자기 통제)
황정우(2011)	삶의 만족,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출처: 연구자 제공

3) 행복감에 관한 선행연구

청소년 행복감에 관한 연구는 행복, 행복감,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웰빙(Well-being) 등의 용어를 활용하여 연구되었다. 국내의 경우, 1990년에 청소년 현장이 제정된 시점부터 청소년 행복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도현 외, 2021).

김청송(2009)은 청소년의 행복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을 개인 요인, 가족 요인, 친구 요인, 사회 요인 등 영역별로 구분한 후 관련 변인들을 메타 분석하였는데, 개인적 특성으로 정서적 안정-불안정 차원과 자기효능감이며, 가족 변인으로는 어머니의 양육태도였다. 어머니의 적극적 개입은 청소년들의 행복감을 증진하는 뚜렷한 효과가 확인되었다. 또래관계는 청소년 초기와 후기에서 다르게 나타났으며, 학업성적 또한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은선과 조한익(2009)은 부모양육태도에서 돌봄이 높고 과보호가 낮을수록 청소년의 강인성과 행복감이 높았다. 한지숙(2011)은 아동에 행복감에 미치는 개인 내적 변인을 탐색하였는데, 아동의 자기효능감이 행복감에 가장 우선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리와 김남희(2014)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어머니의 행복감과 양육 행동에 대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유아의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유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어머니의 행복감 증진이 중요한 변인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긍정적 심리 상태 즉 행복감이 어머니의 긍정적 양육 행동과 상호관련성이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유진희와 김진숙(2018)은 부모효율성훈련을 통해 어머니의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가 감소하였고 애정적이고 자율적 양육태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행복감 간의 상관관계는 자율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행복감도 높아진다는 결론을 얻었다.

서현, 조다혜와 박미자(2018)는 영유아 부모 22명을 대상으로 자녀의 행복과 부모 역할에 대한 탐색을 위하여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 자녀의 행복은 목표한 것을 이루며 성취할 때, 원하는 것을 소유하여 욕구가 충족될 때, 좋아하는 사람과 관계 맺음을 할 때로 나타났다. 오인수와 반지윤(2019)은 자녀의 행복감을 증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부모양육태도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바꾸는 것임을 시사하였다. 부모의 민주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일상적인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반면 권위적 양육태도는 스트레스를 증가시켰으며,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세영과 유설희(2019)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중간체계 환

경은 구성원 간의 긍정적 관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공동체 소속감이 매개적 역할로 작용함을 밝혔다. 이서희와 김기민(2019)의 연구에서는 부모 양육태도, 학교적응, 자기효능감이 초등학생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영(2020)은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며, 자아존중감이 매개효과를 가진다고 하였다.

정성원, 장유나와 홍세희(2021)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학업 무기력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이 되며, 자녀 삶의 만족도에 정적 상관을 보였다. 박경희, 윤미선(2021)은 자녀의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학업열의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어머니가 행복할수록 자녀의 학업 열의도 높았다. 어머니의 자아존중감은 자녀의 행복감과 학업 열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허은(2021)은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아동 삶의 만족도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행복감을 매개로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아동의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이는 아동 삶의 만족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예은과 이주연(2021)은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들 중 월평균 소득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학력이 높을수록, 한부모가정이 아닐수록 아동이 지각하는 행복감이 높았다. 사회인구학적 변인은 아동의 일상 경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부모양육태도 중 구조 제공 즉, 규칙을 설명해 주거나 문제해결을 위해 도움을 주고 논리적으로 지도해주는 등의 양육을 하는 부모와 대화를 많이 하는 아동의 행복감이 특히 높았다. 이는 학령기 아동의 발달과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모양육태도로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류승우와 신윤정(2021)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중학교 1학년의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적 요인으로 유기체 요인인 자아존중감을 들어 설명하였다. 한지연(2021)은 부모-자녀의 행복 수준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가족 친밀감이 높을수록 자녀들은 행복하다고 느끼게 되며, 어머니의 대화방식이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경우 행복감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부모가 행복하다고 느낄 때 자녀들도 유사할 것이고, 불행감을 느끼는 부모의 자녀는 동시에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부모-자녀 간 긍정적인 정서와 부정적인 정서의 높은 관련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가정의 구성원의 행복은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므로 '가정의 화목'은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곽수란, 송미옥과 김영호(2021)는 부모의 행복감은 자녀행복감에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공통으로 유의한 정적 효과가 나타났지만, 부모의 자존감은 초등학생 모형과

중학생 모형에서 각기 다른 결과를 보여주었다. 사춘기인 중학생 시기에 부모의 자존감이 높으면 자녀의 행복감은 낮고, 부모 행복감이 높으면 자녀의 자존감이 낮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중학생 시기는 중요한 사회적 관계가 가정에서 학교로 이행되는 시기이므로 교사나 친구와의 관계가 의미 있게 대두되는 시기이기도 하다. 역설적으로 부모와의 관계가 예민하게 수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부모의 자존감이 권위적이라고 인식된다면 청소년의 행복감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김명화, 김혜진과 최재혁(2022)의 연구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는 방식의 양육태도를 보일 때 자녀의 그것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것은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태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태도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박영숙(2022)은 부모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모가 자기 방식대로 따르기를 강압적으로 요구할 때 자녀의 우울 수준이 높아지고 이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비행 경험 청소년의 경우, 우울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에 취약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는 부정적 양육태도인 강요적 양육을 줄여야 하며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정미애와 김효진(2022)은 어머니의 행복감이 유아기 자녀의 행복감에 아버지의 행복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양육 과정에서 어머니에게 부부 갈등이 나타나도 자녀에게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자녀들에게 좋은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 하는 어머니의 마음이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성현과 안도희(2022)는 대학생 자녀가 부모양육태도를 애정적으로 인식할수록 그것이 높아지고 우울은 감소하였고, 부모양육태도를 과보호적으로 인식할수록 그것이 감소하고 이를 통해 우울 수준이 증가하며 행복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청소년기 자녀는 물론이고 대학생 자녀의 심리적 안정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함영란(2023)의 연구에서는 부모 행복감이 높을수록 자녀 행복감이 높아지고, 부모 그것이 높을수록 자녀 그것이 높아지며, 자녀 행복감은 자녀 그것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가 행복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5. 주요 변인들 간의 관계

1) 부모 그릿과 청소년 그릿 및 행복감 간의 관계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주요 변인 간 관계를 확인하였다. 먼저 부모 그릿과 청소년 그릿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릿은 개인 내적 특성으로 목표를 향해 장기적으로 노력하고, 열정과 흥미를 유지하는 것이다(Duckworth, et al., 2007). 그동안의 그릿에 대한 연구는 학업성취, 학업 무기력, 학교생활적응, 진로발달 등과 관련하여 높은 성취를 예견하는 비인지적 요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정성원, 장유나, 홍세희, 2021; 모화숙, 문화진, 2022; 이미라, 전향신, 2020, 함영란, 2023; ; Duckworth et al., 2007; Duckworth & Quinn, 2009). 그릿은 부모를 비롯한 주변 성인들의 영향을 받는다. 성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과 도전하는 모습을 본 유아들은 다른 조건의 유아들보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더 많은 시도를 하였다(Leonard, Lee, & Schulz, 2017). 또한, 성인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성공하는 모습을 본 아동이 지속적인 노력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Leonard, Garcia, & Schulz, 2019). 이는 그릿을 성장시킬 수 있는 가정 환경 요인을 강조한 Duckworth(2016)의 연구와도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는 가정에서 경험하는 새롭고 다양한 경험이 그릿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근거로, 그릿의 발달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부모 그릿에 대한 관심이 최근 높아지고 있다. 연구들은 청소년 그릿에 부모 그릿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밝히고 있다(함영란, 2023; 강보은, 2021; 이해원, 최진수, 이수란, 2021; 전향신, 박분희, 2020; 황용재, 김창점, 2020; 윤기봉, 2020; Kevin et al., 2020). 강보은(2021)은 부모 그릿이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의 그릿을 강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릿의 두 하위 요인 중 흥미 유지 수준이 높은 부모는 강요하는 태도를 적게 보이고, 노력 지속 수준이 높은 부모는 자녀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함으로써 청소년 그릿을 강화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향신과 박분희(2020)는 학업에 대한 압박이 시작되는 중학생의 그릿에 대한 세대 간 이전 연구를 하였는데, 어머니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그릿 수준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함영란(2023)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행복감과 그릿이 높으면 자녀의 행복감과 그릿이 높아지며, 청소년의 행복감과 그릿은 학업성취도에도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최근의 연구들은 그릿이 학업이나 성취 외에도 다양한 변인들에 대해 설명력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특히 그릿이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하는 강력한 동기를 형성하고 행동하는 측면에서 삶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기여하는 바가 있음을 보여준다(Dahlsgaard, Peterson, & Seligman, 2005). 즉, 그릿은 개인의 생산성과 창의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삶의 만족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Pennings, Law, Green, & Anestis, 2015). 청소년 그릿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도 그릿이 청소년의 행복감(함영란, 2023; 양수연, 2023; 우성현, 안도희, 2022; 김명화, 김혜진, 최재혁, 2022; 홍은비, 노성향, 2022)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바 있다.

자아 정체감 형성과 진로발달이라는 중요한 발달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청소년시기에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꾸준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할 수 있다면 이후의 삶이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것이다. 결국, 그릿이 높은 사람들은 스스로 움직이며, 삶에서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통해 행복감을 획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들은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련된 청소년 그릿에 대한 선행연구이고, 부모 그릿에 대한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다. 제한적으로 연구된 부모 그릿과 관련된 국내연구들을 살펴보면, 황용재, 김창겸(2020)의 연구에서 부모 그릿은 부모양육태도 중 자율성 지지의 양육태도를 증진하는 데 유의한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부모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안다휘, 이휘승, 2017)를 지지한다.

강보은(2022)은 부모 그릿과 양육태도가 청소년 그릿을 증진하는 데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그릿의 하위요인별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부모의 흥미 유지는 자녀의 그릿에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강요적 양육태도를 통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부모의 노력 지속은 자율성 지지를 통해 자녀의 그릿을 지속해서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그릿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하더라도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성실하며 자기 통제력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연구 결과(Credé, Tynan, & Harms, 2017)와 관련이 있다. 즉, 그릿이 높은 부모일수록 자기조절을 통해 자녀에게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관심을 보여주고 자녀의 행동에 대해 지지하고 격려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한 가정에서 성장한 자녀는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는다고 느낄 것이며, 부모와의 소통 과정에서 지지받는다고 인식하게 될 것이다.

박분희와 전향신(2020)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의 그릿이 높을수록 자녀그릿이 높다는 것을 확인하여 부모-자녀 세대 간 그릿의 전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윤미리, 이현정과 홍세희(2020)는 중학교 1학년 자녀와 그들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릿과 행복감, 삶의 만족도와의 관계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어머니의 그릿은 본인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를 모두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머니의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지만 행복감의 수준은 높아지지 않았다. 반면 자녀의 그릿이 높을수록 어머니의 행복감과 삶의 만족도가 모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구성원 간에 자녀의 그릿이 부모의 정서나 인지로 전이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하문선(2020)의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그릿이 어머니 자신의 삶의 만족에는 부적 효과가 나타났고, 청소년 자녀의 삶의 만족에는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힘든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고 잘 버티어 줄 때, 질풍노도의 시기를 경험하고 있는 자녀도 그들의 삶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어머니의 삶의 태도를 배워 그들의 삶을 만족스럽게 살아갈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Erikson(1964)의 발달적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면서 부모의 발달단계와 자녀의 발달단계가 맞물려지는 것으로, 가족이란 발달 과정에서 서로 다른 구성원에게 영향을 주고 상호작용하는 인성의 체계라고 설명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성인은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부모의 역할을 하도록 사회화되고, 아동은 부모에 의해 성인으로 사회화되는 것이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은 부모와 자녀 서로가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을 성취하도록 한다.

또한 아동 및 청소년기에는 충동의 억제나 만족 지연 등 그릿의 다양한 전략을 습득하여 꾸준히 발달한다는 보고가 있다(Casey, Tottenham, Liston, & Durston, 2005; Eskreis-Winkler & Duckworth, 2014). 이는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 또래의 영향력이 커짐을 의미하며, 부모를 떠나 독립 욕구가 커지지만 경제적으로 부모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는 점에서 부모의 영향은 청소년의 그릿 발달에 중요한 환경적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부모 그릿과 관련된 연구는 청소년 그릿과는 달리 선행연구가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며, 특히 부모와 자녀 세대를 함께 조사한 연구는 매우 드물다(전향신 외, 2020; 윤미리 외, 2020; 함영난, 2023; 김가연 외, 2023).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문항으로 부모-자녀 세대를 함께 조사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자료를 활용하여 부모 그릿이 자녀 그릿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세대 간 그릿의 이전을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부모 그릿이 자녀의 그릿을 통하여 청소년의 행복감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자 한다.

2)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 그릿 간의 관계

Erikson(1950)에 따르면, 발달적 상호작용은 부모와 자녀 사이의 상호작용이 건강한 심리·사회적 발달을 성취하도록 한다. 부모가 자녀의 발달에 영향력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동의 다양한 발달적 요구가 부모의 양육 반응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으로 성인의 발달도 아동에 의해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Bronfenbrenner(1976)는 부모와 자녀 관계는 개인의 성격 발달뿐만 아니라 지적 발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며,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객관적인 양육태도의 측정정보는 청소년이 어떻게 인식하는가 하는 주관적 인식이 중요하다. 청소년이 부모양육태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 청소년의 향후 적응과 삶의 질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Darling & Steinberg, 1993).

Duckworth(2016)는 개인의 그릿을 발달시키기 위한 내적 조건으로 주변인의 정서적 지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개인이 자기 삶에 관해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주변인, 특히 부모는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발달에 중요한 발달 환경을 제공하며, 청소년의 그릿을 증진시키는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먼저,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 그릿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 그릿을 정적으로 예측하는 요인으로(Mandelbaum, 2016; Lin & Chang, 2017; Shaw, 2017), 유아, 아동, 청소년, 대학생 및 비행 경험 청소년 자녀 모두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그릿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김지혜, 2022; 홍은비, 노성향, 2022; 우성현, 안도희, 2022; 김명화, 김혜진, 최재혁, 2022; 양수연, 2023; 이선형, 최자은, 2019; 조규영, 김승윤, 2021; 송홍정, 2020; 안영미, 김미혜, 정익중, 2022; 이선형, 문수백, 2020; 이미라, 전향신, 2020; 홍봉선, 2018; 홍은비, 노성향, 2022; Jackson et al., 2019). 또한 부모의 애정적 및 존중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그릿을 높인다는 Duckworth(2016)의 결과와도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의 따스하고 온정적인 양육태도, 자녀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성을 지지하는 양육태도, 정확한 지침과 정보를 제공하는 구조 제공 양육태도는 청소년 그릿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관성이 없고 감정적이거나 거부적 또는 억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그릿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혜, 2022; 안영미, 김미혜, 정익중, 2022; 우성현, 김도희, 2022; 이선형, 문수백, 2020; 김은혜, 김민정, 2020).

김명화, 김혜진과 최재혁(2022)은 부모의 비밀관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이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청소년 그릿이 부모의 비밀관적 양육태도를 통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청소년은 성장 과정에서 실패와 역경을 극복하

는 경험을 통해 그릇이 발달되며, 부모의 역할은 이에 주요한 영향을 미친다 (Duckworth, 2016). 따라서, 부모의 애정적이고 존중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성장에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엄태순과 윤미선(2020) 역시 부모양육태도와 그릇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그릇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자신을 사랑하고 특별히 여기고 있으며, 자신이 하는 일을 믿고 지지해 주고, 어떤 일을 하고자 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가르쳐주신다고 지각할수록 자녀의 목표에 대한 흥미인 그릇이 유지되고, 목표를 향해 끊임없는 노력을 기울이게 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김미숙, 이성희, 백선희와 최예솔(2015)은 청소년이 그릇 발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부모, 또래, 교사와의 관계가 중학생의 중요한 발달환경 요인이라고 밝혔다(정혜원, 김예림, 박소영, 2020; 한수연, 박용한, 2018; 진병주, 정혜원, 2020). 이와 같이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 그릇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 그릇을 증진하기 위한 선행요인으로 부모양육태도는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3)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 간의 관계

국내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조규영, 김승윤, 2020; 안지영, 이은경, 김지신, 2021; 이현정, 전주성, 2021; 권유정, 임지영, 최유석, 2022; 이은서, 정혜원, 2022). 연구 결과를 통해 부모의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또래관계가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발달적 맥락으로 작용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하였다(Boden, Fergusson, & Horwood, 2007). 이상의 연구를 종합해 볼 때, 청소년의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또래관계를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부모양육태도는 또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는데, 수용적이고 온정적인 부모양육태도는 부모에 대한 신뢰감을 형성하고, 부모에 대한 신뢰감이 타인에 대한 신뢰감과 관계 형성에 중요한 토대가 되기 때문으로 확인된다.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협동역량 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이는 긍정적 또래관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아동의 행복감을 높인다(권유정, 임지영, 최유석, 2022; 안지영, 이은경, 김지신, 2021).

가정에서 학교로 사회적 관계가 확장되는 시기에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는 긍정적인 교사 관계만 아니라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이현정, 전주성,

2021). 또한 긍정적 양육태도는 그것에 영향을 주고, 그것은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친다(조규영, 김승윤, 2021). 이는 아동이 자신을 가치 있고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성희, 김희수, 2016).

또한, 장인실과 장석진(2012)은 부모양육태도를 거부적, 적대적, 비합리적으로 지각할수록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최진희(2010)는 부모가 통제적, 비성취적, 비합리적 양육태도를 취할 때 또래관계에서 부정적인 경쟁과 갈등을 경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김영숙(2017)은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와 부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됨으로써 청소년이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이는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게 되어 또래관계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였고(이현정, 전주성, 2021; 조규영, 김승윤, 2021),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또래관계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규영, 김승윤, 2021). 즉,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은 원만한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하여 성인이 된 이후의 원만한 인간관계에 바람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현정, 전주성, 2021).

또래관계는 또래의 특성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데, 일탈이나 비행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는 적절한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렵고 갈등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로 인해 청소년 자녀가 잘못된 방식으로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청소년의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 시기에는 가족의 지지 못지않게 또래의 지지가 중요하게 인식되며(Ainsworth, 1989), 부모나 가족 환경에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또래에게 지원을 요청한다는 연구가 있다(Blos, 1979; Coleman, 1961; Douvan & Adelson, 1966). 또한 청소년기에 이르면 부모로부터의 애착이 또래애착의 기능으로 일부 이동될 수 있어(황창순, 2006), 또래관계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서주현, 유안진, 2001; Armsden & Greenberg, 1987; Coleman, 1961). 따라서, 단순히 또래관계를 양적으로 활발하게 가지기보다는 건전한 또래관계를 통해 질 좋은 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장인경, 김춘경, 2016).

4) 부모양육태도와 행복감 간의 관계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어린 시절의 행복감은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 밀반침이 되며, 이는 성인 이후의 적응과 발달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어 그 의미와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다(Jose, Ryan & Pryor, 2012; Yang, 2008). 청소년의 경우 행복감이 높을수록,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능력이 뛰어나고, 자아존중감이 높으며, 타인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삶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Myers & Diener, 1995; Veenhoven, 1991).

이에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정미애, 김효진, 2022; 한세영, 유설희, 2019; 한지숙, 2011; 곽수란, 송미옥, 김영호, 2021; 김주리, 김남희, 2014; 김도희, 2022; 이미영, 2020; 정은선, 조한익, 2009; 김명화, 김혜진, 최재혁, 2022; 권유정, 임지영, 최유석, 2022, 안지영, 이은경, 김지신, 2021; 박영숙, 2022; 문예은, 이주연, 2020; 김경심, 이수경, 2022; 홍은비, 노성향, 2022; 허은, 2021; 류승우, 신윤정, 2021; 서현, 조다혜, 박미자, 2018; 한지연, 2021; 김청송, 2009; 신성희, 2023; 김환철, 2020; 김서연, 2018; 고영남, 2008; 구재선, 서은국, 2011; 문상석, 염유식, 2010; Diener, 1984; Diener, 1995; Diener, 1996; Diener & Seligman, 2002; Kashdan, Robert-Biswas, & Diener, 2008).

그중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허은, 2021; 김경심, 이수경, 2022; 박영숙, 2022; 문예은, 이주연, 2021; 권유정, 임지영, 최유석, 2022; 정은선, 조한익, 2009; 김도희, 2022; 홍은비, 노성향, 2022; 우성현, 안도희, 2022; 김명화, 김혜진, 최재혁, 2022; 이미영, 2020; 양수연, 2023; 임정자, 2022; 김서연, 2018).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아동 및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정(+)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예측한다.

즉, 부모가 진로나 진학, 공부 방법에 대해 자녀의 의견을 존중해 줄 때 청소년의 행복감이 증진되며(이미영, 2020), 부모가 합리적인 설명과 가족 내 규칙을 잘 설명해 줄 때 자녀는 행복감을 많이 느끼게 된다(오인수, 반지윤, 2019). 또한 부모의 거부와 강요, 비일관적 양육태도를 낮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행복감은 높게 나타났고(문예은, 이주연, 2021), 강요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우울을 유발하고(박영숙, 2020), 거부적이고 비일관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낮출 뿐만 아니라 학업 무기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임정자, 2022).

한지연(2021)은 초·중학생과 초·중·고등학생을 자녀로 둔 부모를 대상으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 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행복을 느끼는 부모의 패턴과 경향성이 자녀들에게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자녀의 정서가 높은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청소년 행복감의 수준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때 연령과 행복이라는 변수 사이에 정서적 지원이라는 간접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상급학교로 진학하더라도 정서적 지원을 많이 받는 청소년은 행복감이 낮아지지 않으리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5) 청소년 그릿과 행복감의 관계 간의 관계

지금까지 그릿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학업 성취나 진로 등과 관련된 연구들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 들어 그릿과 행복감, 혹은 주관적 안녕감 같은 요인을 예측하는 주요 변인으로서 그릿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Duckworth & Quinn, 2009; Duckworth, Peterson, Matthews & Kelly, 2007; Eskreis-Winkler, Shulman, Beal & Duckworth, 2014).

최근에 이루어진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그릿은 청소년의 행복감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명화, 김혜진, 최재혁, 2022; 이미라, 전향신, 2020; 김태명, 이은주, 2017; 홍은비, 노성향, 2022; 양수연, 2023; 우성현, 안도희, 2022; 함영란, 2023; 윤미리, 이현정, 홍세희, 2020).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선행요인으로 그릿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함영란(2023)의 연구에서 부모의 행복감이 높을수록 자녀의 행복감이 높아지고, 부모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의 그릿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와 자녀의 행복감과 그릿이 서로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윤미리, 이현정과 홍세희(2020)의 연구에서는 행복감과 그릿이 직접적인 영향이 나타났고, 어머니와 자녀의 행복감과 그릿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APIM)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는데, 어머니의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삶의 만족도는 높아지지만, 행복감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 자녀의 그릿 수준이 높을수록 어머니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은 모두 높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그릿은 본인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을 높이고 상대방 삶의 만족도를 높이지만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와 자녀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성현과 안도희(202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그릿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에서 성장한 자녀들은 그릿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 부모양육태도가 긍정적일수록

그릿 수준이 높아지며, 이는 우울함에 영향을 미쳐 우울 수준이 낮아지며 이에 따라 대학생의 행복감이 높아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모의 온정적이고 따스한 보살핌이 성인이 된 대학생 자녀에게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하문선(2020)은 청소년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그릿 및 삶의 만족 간 관계에서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을 연구하였고, 청소년 그릿이 청소년 삶의 만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청소년들이 처한 학업에 대한 목표나 노력이 먼 미래의 것으로 느껴지거나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너무 많은 유혹에 저항해야 한다면 청소년들의 노력 강도와 기간이 그들을 힘겹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Baumgardner & Crothers, 2009; Duckworth et al., 2007). 유성경과 김유진(2015)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행동이 지나칠 때, 오히려 조화롭지 못하며 심지어 삶의 만족감을 해칠 수도 있다고 보았다.

6) 또래관계와 행복감 간의 관계

좋은 관계는 행복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따라서 타인과의 교류와 관계 맺기는 청소년의 삶의 질과 행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사회적 영역이 확장되는 시기인 청소년기의 또래관계는 다른 어떠한 관계보다도 중요하게 다루어진다. 김청송(2009)의 청소년의 행복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또래관계의 영향력은 초기 청소년기(early adolescence)의 학생들과 초기 성인기에 진입을 앞둔 중·후기 청소년기(middle·late adolescence)의 학생들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청소년 초기에는 교우관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데 비해, 청소년 후기에는 친구에 대한 과장된 만족감과 의미 부여로 친구에게 지지받지 못하여 발생하는 불행감의 또 다른 지표가 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

권유정, 임지영과 최유석(2022)의 연구는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협동역량과 또래관계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부모가 청소년기 자녀에게 보이는 애정과 관심은 신뢰를 형성하고 이 신뢰를 바탕으로 협동역량을 형성하여, 이는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한다.

안지영, 이은경과 김지신(2021)의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아동은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신뢰를 가지며 이를 기반으로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한다(임양미, 2021). 즉, 다른 아동과 협력하여 상호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아동의 행복감을 증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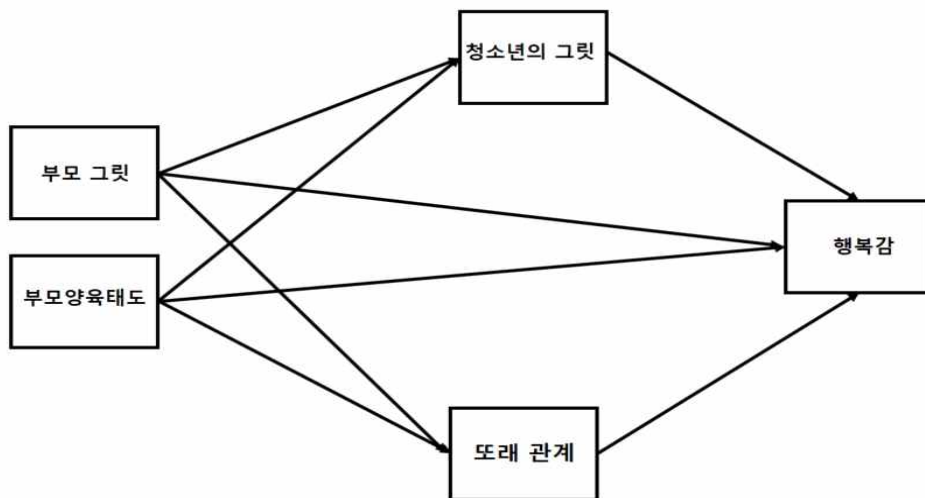
청소년이 인식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가 확인된 바 있으며(이현정, 전주성, 2021; 조규영, 김승윤, 2021),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삶의 만족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또래관계의 질을 높여 궁극적으로 자녀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조규영, 김승윤, 2021).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청소년은 원만한 또래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를 형성하며, 또래나 교사와의 원만한 관계를 맺는 청소년은 그릇 수준이 높았고 이는 높은 삶의 만족도를 보였다(이현정, 전주성, 2021).

Hartup(1983)에 따르면, 청소년 초기에는 또래관계를 통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갈등 해결 등 많은 사회적 기술을 배우게 되며 소속감과 애정을 느끼게 된다. 또한 부모나 가족에게서 충족되지 못한 욕구나 필요들을 또래를 통해 충족하기도 하고(Blos, 1979; Coleman, 1961; Douvan & Adelson, 1966), 부모 못지않은 친밀감의 원천으로 작용하여 감정의 위계에서 우위를 차지하기도 한다(Ainsworth, 1989; Armsden & Greenberg, 1987; Wilkinson, 2004). 이러한 이유로 부모 애착에서 또래 애착으로 일부 이동될 수 있으며(황창순, 2006), 또래에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Ainsworth, 1989; Armsden & Greenberg, 1987; Wilkinson, 2004).

Ⅲ. 연구방법

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는 부모 그릇과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청소년 그릇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독립변수를 부모양육태도, 부모 그릇으로, 종속변수로는 청소년의 행복감, 매개변수로는 청소년 그릇과 또래관계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연구모형은 [그림 Ⅲ-1]과 같다.



[그림 Ⅲ-1] 연구모형

연구모형에 따른 본 연구의 가설은 다음과 같다.

연구가설 1. 부모 그릇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2.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 부모 그릇과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 그릇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가설 4. 부모 그릇과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가설 5.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 그릇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5-1.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 그릇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5-2.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 그릇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연구가설 6.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6-1.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6-2.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2. 분석 자료: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본 연구에서는 부모 그릇과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기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이하 KCYPS 2018)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KCYPS 2018의 조사 개요와 목적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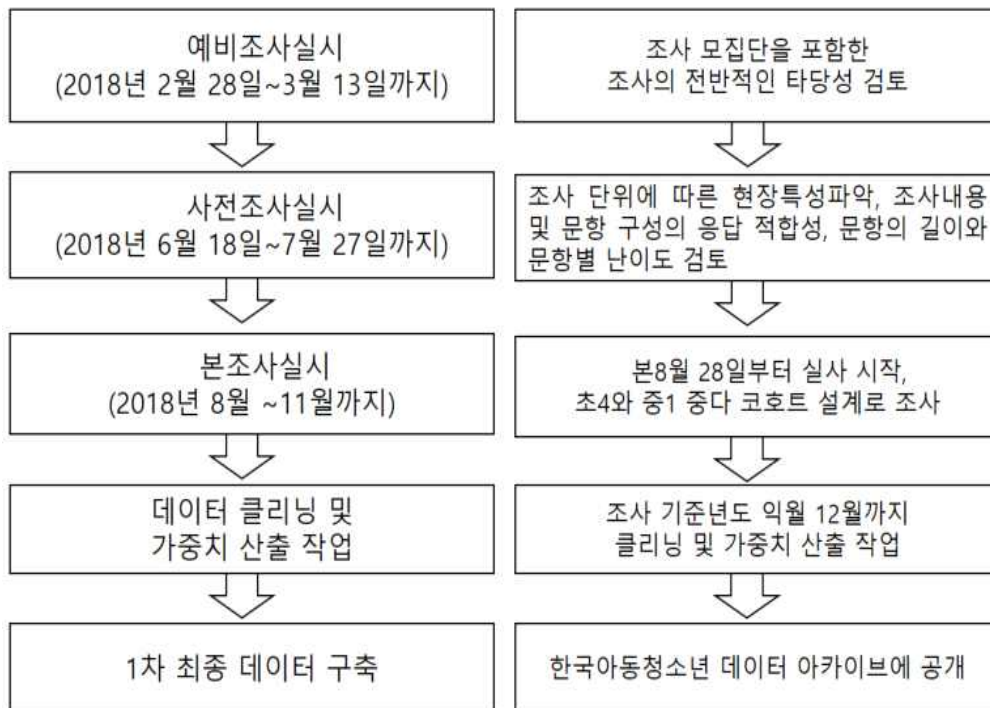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는 아동·청소년들의 성장과 발달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및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패널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현재까지 총 2기의 패널 조사를 완료하였고 사업 9차 연도인 2018년에 제3기 패널조사를 시작하였다. 2018년에 시작된 제3기 패널조사의 명칭은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이하 KCYPS 2018)’이다.

2018년에 신규 패널구축 및 제1차 연도 조사가 실시되었고, 이를 위한 기초연구를 2017년에 수행하였으며, 조사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예비조사를 2018년 2월 28일부터 3월 13일까지 실시하였다. 또한, 조사 단위에 따른 특성 파악, 조사 내용 및 문항 구성의 적합성, 문항의 길이와 난이도 검토 및 본 조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한 사전 조사를 2018년 6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실시하였다.

본조사인 KCYPS 2018은 2018년 8월 22일부터 실사가 시작되었으며, 2018년 기준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의 2개의 중다코호트 설계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KCYPS 2018은 매년 8월부터 11월에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데이터 클리닝 및 가중치 산출 작업을 거쳐 데이터가 구축되었다. KCYPS 2018은 KYPS 2003과 KCYPS 2010과는 달리 조사자가 직접 방문하여 태블릿PC를 활용한 면접조사 방식(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 이하 TAPI)을 사용함으로써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아울러 표본의 대체가 없는 동일 표본설계 방식을 통해 표본이 이탈하는 경우 데이터 가중치 보정을 활용하여 대표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조사 배경 및 목적

아동·청소년기는 생애 단계에서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많은 발달과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이다. 이에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아동·청소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며, 올바른 역량과 인성을 갖추어 자립할 수 있도록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성장/발달 양상을 파악하고, 관련 정책의 단기 및 중장기 비전 설정, 수립 및 시행을 위해서 패널 데이터의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기초자료를 수집해야 한다. KCYPS 2018은 한국청소년 패널조사 2003(2003~2008)과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2010~2016)의 후속 조사로, 아동·청소년의 다양한 성장 및 발달 양상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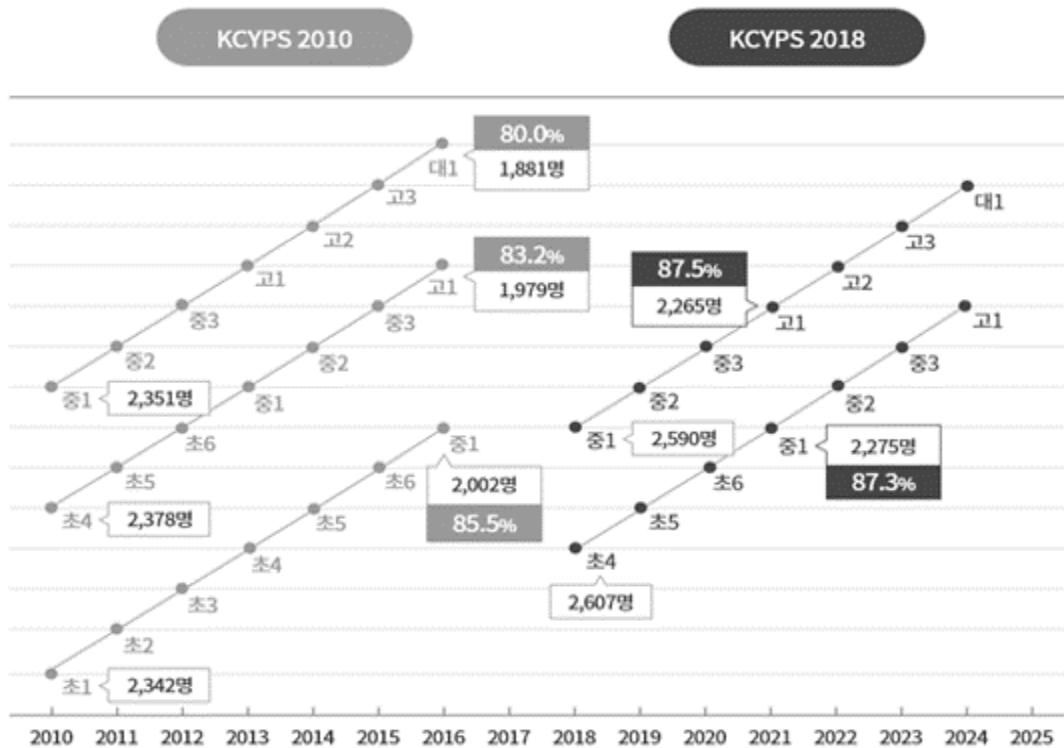
[그림 III-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추진 절차

3) 조사 대상 및 내용

KCYPS 2018의 표본은 2018년 기준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다단계층화집락표집 방식으로 추출한다. 2018년 패널구축 및 제 1차 조사를 완료한 패널(원패널)은 총 5,197명으로 그 구성은 <표 III-1>과 같다.

<표 III-1>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 원패널

구분	합계	초4 코호트	중1 코호트
사례 수	5,197명	2,607명	2,590명
학교(학급) 수	282개교	151개교	131개교



[그림 III-3]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연혁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의 조사 대상, 내용 및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18년도 조사에서는 조사 대상을 형제자매로 확대하였고, 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보호자 배경 변인에 대한 내용이 대폭 확대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 III-2>에 제시하였다.

<표 III-2>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조사 대상과 내용

구분	KCYPS 2010	KCYPS 2018
조사 기간	2010년-2016년	2018년-
조사 대상	아동·청소년+ 보호자 * 아동 2010년 기준 초1, 초4, 중1	아동·청소년+ 보호자+ 형제자매 * 아동 2018년 기준 초4, 중1
대상자 수	총 7,071명	총 5,197명
조사 목적	아동·청소년들의 개인발달, 발달환경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파악함	아동·청소년기의 성장과 발달에 대한 다양한 변화양상을 체계적, 다면적으로 볼 수 있는 자료
조사 내용	아동·청소년 개인발달(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발달, 비행, 건강, 신체발달 등) 발달환경(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 매체활동/문화환경 등)	개인발달(생활시간, 지적발달, 진로, 사회/정서/역량발달, 비행, 건강, 신체발달 등) 발달환경(가정, 학교, 친구, 지역사회, 매체활동/문화환경 등)
	보호자 배경변인(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	배경변인 (학력, 직업, 경제수준 등), 보호자 개인 특성 (사회/정서/역량, 매체이용, 건강상태 등) 아동·청소년 발달 환경(가정, 교육 등)
조사 방식	아동·청소년 개별 면접 조사	개별 면접 조사
	보호자 전화조사	개별 면접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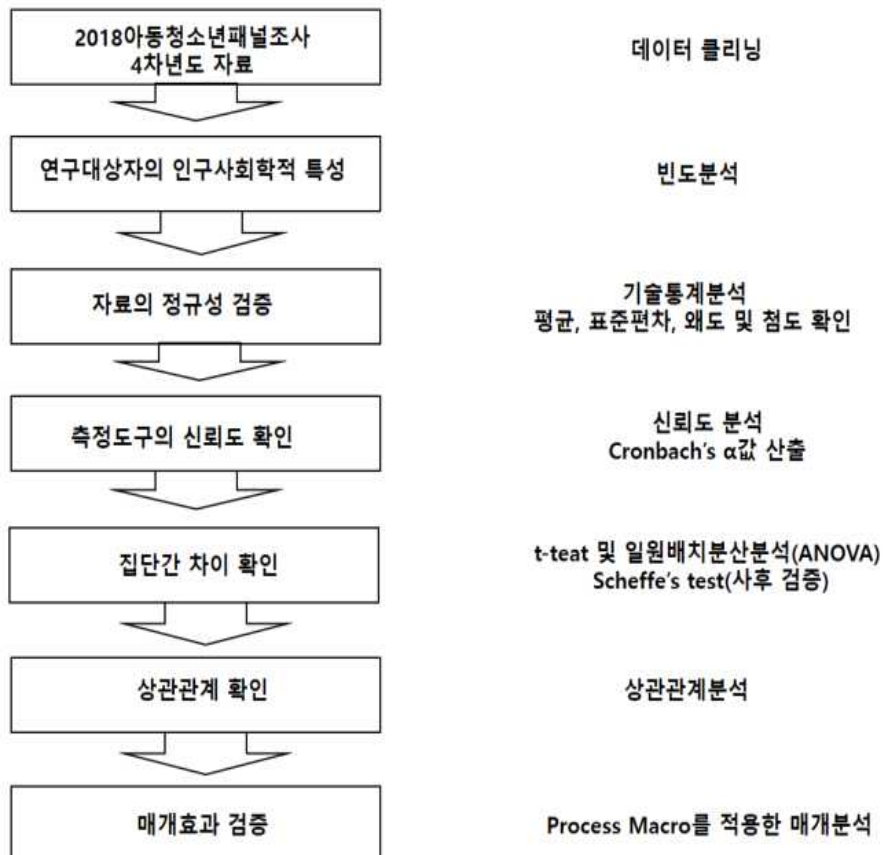
3.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 KCYPS 2018 자료를 연구 분석에 활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KCYPS 2018은 전국 단위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한 아동·청소년을 대표하는 표집 자료로, 지역과 도시 규모를 선정하여 모집단 현황을 파악하여 17개 시도별로 2개교의 최소 표본을 할당하여 종단 데이터를 구축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더불어 KCYPS 2018은 조사 대상에 보호자도 포함되어 있어 학생과 보호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세대 간 전이와 그 관계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다. 따라서 학생과 보호자의 자료를 동시에 수집하였고 대규모 표본의 자료를 수집한 KCYPS 2018을 활용하여 부모 그릿과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청소년 그릿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에 대한 이론적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이하 KCYPS) 2018의 4차 연도 초4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초4 패널 대상자는 2021년 현재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며, 조사에 참여한 초등학교 4학년 패널 2,607명과 그들의 보호자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데이터 아카이브(<http://www.nypi.re.kr/archive>)’를 통해 일반에 공개된 KCYPS 2018의 4차 연도 조사의 최종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분석을 위해 KCYPS 2018의 조사 결과 데이터를 클리닝하였다. 이 과정에서 보호자 응답 자료 중 부모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였고, 데이터 중에서 결측치가 있는 경우를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2,241개의 부모와 자녀의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4. 연구 절차

연구모형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절차 체계도는 [그림 III-4] 와 같다.



[그림 III-4] 분석 절차의 체계도

5.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도구는 그릿, 양육태도, 또래관계, 행복감이다. 본 연구는 KCYPS 2018에서 초등학교 4학년 패널의 4차 연도(2021년) 자료에서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부모 그릿, 부모양육태도, 청소년 그릿, 또래관계, 청소년 행복감을 측정된 자료를 추출하여 활용하였다. 해당 측정 문항들은 모두 Likert 4점 척도(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은 편이다, 3=그런 편이다, 4=매우 그렇다)의 자기 보고식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변인에 대한 측정 도구의 정보는 <표 III-3>과 같다.

<표 III-3> 문항의 출처

변수명	문항 수	출처
그릿(Grit)	8	김희명, 황매향 (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의 타당화. <i>교육논총</i> , 35(3), 63-74. Grit척도 8문항 사용
양육태도	24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i>청소년학연구</i> , 24(3), 313-333.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양육태도척도 24문항 사용
또래관계	13	배성만 외(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i>청소년학연구</i> , 22(5), 325-344. 또래관계 질 척도 13문항 사용
행복감	4	이정림 외(2015). 한국아동패널 2015. 육아정책연구소. 주관적 행복 척도(The 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 행복지수 관련 4문항 사용

1) 부모 그릿

그릿 척도는 Duckworth와 Quinn(2009)이 제작한 Grit-S의 문항을 김희명, 황매향(2015)이 변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흥미 유지 4문항과 노력 지속 4문항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며, 흥미 유지 문항은 부정 문항으로 모두 역채점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그릿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2) 부모양육태도

부모양육태도 척도는 KCYPS 2018 자료에서 사용한 Skinner 외(2005)의 부모양육태도 척도(PSCQ_A)를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개발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 척도(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Korean Adolescents;PSCQ_KA)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스함, 거부, 자율성 지지, 강요, 구조 제공, 비밀관성으로 각각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체적으로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신다',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부모님은 늘 나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의 수준이 높고 부정적 양육태도의 수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청소년 그릿

그릿 척도는 Duckworth와 Quinn(2009)이 제작한 Grit-S의 문항을 김희명, 황매향(2015)이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흥미유지 4문항과 노력지속 4문항의 두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나는 문제를 해결 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며, 흥미유지 문항은 부정 문항으로 모두 역채점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그릿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4) 또래관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에서는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배성만, 홍지영과 현명호(2015)의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또래관계 8문항과 부정적인 또래관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체적으로는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은 나에게 털어 놓는다’,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며, 그 중 다섯 문항은 부정 문항으로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을 의미한다.

5) 청소년의 행복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주관적 행복 척도(The 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를 이정림 등(2015)이 번안하여 사용한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의 행복지수 관련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2개의 문항은 자신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행복감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머지 1개의 문항은 타인과 비교했을 때 느끼는 행복감 수준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전반적으로 나는 ...’ 과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두 문항은 부정 문항으로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6. 자료 처리 및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2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주요 변수의 수준 및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넷째, 주요 변수 간의 전반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부모 그릇 및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청소년 그릇 및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SPSS에 Hayes(2009)의 Process Macro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독립변수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기본적인 영향 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간접효과에서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CI 값을 확인하여 0을 포함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s)은 Hayes(2009)가 제안한 기준에 따라 0을 포함하지 않으면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표 III-4> 자료분석 방법

	분석 내용	분석 방법
기 분 분 석	표본의 인구학적 특성	빈도분석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측정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주요 변수의 수준 및 분포	기술통계 분석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	차이분석(t-test, ANOVA)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	Pearson 상관분석
가설 검증	간접(매개)효과 및 유의성 검증	Process Macro Program (Hayes, 2009) 적용

IV.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인 부모와 청소년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IV-1>와 같다.

부모 응답자 성별은 여성은 2,059명(91.9%), 남성은 182명(8.1%)으로 어머니가 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600만원 미만인 948명(42.3%)으로 가장 많았고, 600~800만원 미만인 558명(24.9%), 400만원 미만인 481명(21.5%), 800만원 이상이 254명(11.3%) 순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성별은 남성은 1,126명(50.2%), 여성은 1,115명(49.8%)으로 비슷하였다. 거주지역은 대도시가 959명(42.8%)으로 가장 많았고, 중소도시가 916명(40.9%), 읍면지역이 366명(16.3%)으로 나타났다.

<표 IV-1>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N=2,241)

특성	응답 구분	빈도(명)	백분율(%)
부모 응답자 성별	여성(모)	2,059	91.9
	남성(부)	182	8.1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원 미만	481	21.5
	400~600만원 미만	948	42.3
	600~800만원 미만	558	24.9
	800만원 이상	254	11.3
청소년 성별	남성	1,126	50.2
	여성	1,115	49.8
거주지역	대도시	959	42.8
	중소도시	916	40.9
	읍면지역	366	16.3
전체		2,241	100.0

2.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

측정 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토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의 요인 추출 방법은 최대우도법으로 하였고, 요인의 회전은 해석이 용이한 Varimax 직각 회전 방식을 택하였다. 요인의 수는 고유값 1을 기준으로 하였으나, 양육태도의 경우 부정적 요인 간, 긍정적 요인 간 합쳐지는 경향이 있어 예외적으로 2요인으로 고정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타당도 저해 문항을 걸러내기 위해 요인 적재량이 0.4 미만이거나, 부적절한 요인에 적재되는 문항은 제외하였다.

신뢰도 분석은 내적일관성 지표인 Cronbach's α 값을 확인하였으며, 0.6 이상이면 신뢰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1) 부모 그릿

본 연구는 부모 그릿 측정을 위해 Duckworth와 Quinn(2009)이 제작한 Grit-S의 문항을 김희명, 황매향(2015)이 변안·수정한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흥미 유지 4문항과 노력 지속 4문항의 두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며, 흥미 유지 문항은 부정 문항으로 모두 역채점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 그릿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부모 그릿 8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역문항인 1, 3, 5, 6번은 요인 적재량 미달로 제외하였으며, 남은 4개 문항은 KMO값이 .713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가 유의하여($\chi^2=1260.154, p<.001$), 요인 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개 문항의 분산 설명력 49.997%에서 단일 요인에 적재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 값은 .659로 나타나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본적절성이라는 기본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2> 부모 그릿의 타당도와 신뢰도

	요인 1	Cronbach's α
부모 그릿2	.404	.659
부모 그릿4	.663	
부모 그릿7	.623	
부모 그릿8	.617	
고유값	2.000	
% 분산	49.997	
KMO=.713, Bartlett's $\chi^2=1260.154(p<.001)$		

2) 부모양육태도

본 연구는 부모양육태도 측정을 위해 부모양육태도 척도(PSCQ_A)(Skinner, Johnson & Snyder, 2005)를 활용하여 김태명과 이은주(2017)가 개발한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for Korean Adolescents:PSCQ_KA)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2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따스함, 거부, 자율성 지지, 강요, 구조 제공, 비밀관성으로 각각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양육태도의 수준이 높고 부정적 양육태도의 수준이 낮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부모양육태도 24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구조 제공 1번은 요인 적재량 미달로 제외하였으며, 남은 23개 문항은 KMO값이 .929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가 유의하여($\chi^2=25098.707$, $p<.001$),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3개 문항에 대한 분산 설명력 48.515%에서 2개 요인에 적재되었다. 2개의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들은 각각 긍정적으로 해석되는 요인과 부정적으로 해석되는 요인에 속하는 문항들이므로, 2개 요인은 긍정적 양육태도 및 부정적 양육태도로 명명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 값은 긍정적 양육태도 .914, 부정적 양육태도 .866으로 나타나 기준값을 상회하였다.

<표 IV-3> 부모양육태도의 타당도와 신뢰도

	요인		Cronbach's α	
	1(긍정적)	2(부정적)		
따스함1	.767	-.130	.914	
따스함2	.786	-.148		
따스함3	.776	-.177		
따스함4	.740	-.102		
자율성 지지1	.727	-.172		
자율성 지지2	.697	-.198		
자율성 지지3	.692	-.210		
자율성 지지4	.720	-.161		
구조 제공2	.534	-.100		
구조 제공3	.581	-.144		
구조 제공4	.526	-.060		
거부1	-.054	.466		.866
거부2	-.282	.602		
거부3	-.308	.627		
거부4	-.317	.615		
강요1	.120	.449		
강요2	-.092	.575		
강요3	-.122	.595		
강요4	-.258	.615		
비일관성1	-.084	.587		
비일관성2	-.061	.498		
비일관성3	-.189	.623		
비일관성4	-.245	.648		
고유값	7.945	3.213		
% 분산	34.544	13.971		
누적 %	34.544	48.515		

KMO=.929, Bartlett's $\chi^2=25098.707(p<.001)$

3) 청소년 그릿

본 연구는 청소년 그릿 측정을 위해 Duckworth와 Quinn(2009)이 제작한 Grit-S의 문항을 김희명, 황매향(2015)이 번안·수정한 한국판 아동용 끈기(Grit)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흥미 유지 4문항과 노력 지속 4문항의 두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며, 흥미 유지 문항은 부정 문항으로 모두 역채점하여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 그릿 수준이 높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청소년 그릿 8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1, 2, 3, 5, 6번은 요인 적재량 미달로 제외하였으며, 남은 3개 문항은 KMO값이 .656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가 유의하여($\chi^2=894.136, p<.001$),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개 문항의 분산 설명력 58.917%에서 단일 요인에 적재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 값은 .651로 나타나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본적절성이라는 기본 가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4> 청소년 그릿의 타당도와 신뢰도

	요인	Cronbach's α
	1	
청소년그릿4	.604	.651
청소년그릿7	.649	
청소년그릿8	.606	
고유값	1.768	
% 분산	58.917	
KMO=.656, Bartlett's $\chi^2=894.136(p<.001)$		

4) 또래관계

본 연구는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배성만과 홍지영, 현명호(2015)의 청소년의 또래관계 질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13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긍정적인 또래관계 8문항과 부정적인 또래관계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며, 그 중 다섯 문항은 부정 문항으로 역코딩하여 사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또래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음으로 해석한다.

또래관계 13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역문항인 9, 10, 11, 12, 13번은 요인 적재량 미달로 제외하였으며, 남은 8개 문항은 KMO값이 .898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가 유의하여($\chi^2=6966.039$, $p<.001$),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은 8개 문항의 분산설명력 52.262%에서 단일 요인에 적재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 값은 .867로 나타나 기준값을 상회하였다.

<표 IV-5> 또래관계의 타당도와 신뢰도

	요인	Cronbach's α
	1	
또래관계1	.654	.867
또래관계2	.679	
또래관계3	.670	
또래관계4	.653	
또래관계5	.719	
또래관계6	.733	
또래관계7	.716	
또래관계8	.559	
고유값	4.181	
% 분산	52.262	
KMO=.898, Bartlett's $\chi^2=6966.039(p<.001)$		

5) 청소년의 행복감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측정하기 위해 Lyubomirsky와 Lepper(1999)의 주관적 행복 척도(The Subjective Happiness Scale, SHS)를 이정립 등(2015)이 번안하여 사용한 육아정책연구소의 한국아동패널조사(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PSKC)(김은설 외, 2016)의 행복지수 관련 문항을 사용하였다. 본 척도는 총 4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Likert 척도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부터 매우 그렇다(4점)까지 응답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행복감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행복감 4문항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과정에서 역문항인 4번은 요인적재량 미달로 제외하였으며, 남은 3개 문항은 KMO값이 .688이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증 결과가 유의하여($\chi^2=2187.298$, $p<.001$), 요인분석이 적절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은 3개 문항의 분산 설명력 71.305%에서 단일 요인에 적재되었다.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Cronbach's α 값은 .793로 나타나 기준값을 상회하였다.

<표 IV-6> 행복감의 타당도와 신뢰도

	요인 1	Cronbach's α
행복감1	.849	.793
행복감2	.780	
행복감3	.640	
고유값	2.139	
% 분산	71.305	
KMO=.688, Bartlett's $\chi^2=2187.298(p<.001)$		

3.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주요 변수의 수준 및 분포를 확인하기 위한 기술통계분석의 결과는 <표 IV-7>와 같다. 주요 변수의 수준은 평균값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균값(표준편차)은 부모 그릇 $M=2.71(SD=.47)$, 긍정적 양육태도 $M=3.18(SD=.49)$, 부정적 양육태도 $M=2.06(SD=.51)$, 청소년그릇 $M=2.61(SD=.56)$, 또래관계 $M=3.01(SD=.50)$, 행복감 $M=3.10(SD=.49)$ 등으로 나타났다. 측정범위 1~4를 고려하면 그릇 변수들은 보통 수준, 그릇 이외의 변수들은 긍정적인 응답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평균값으로 볼 때, 긍정적 양육태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행복감, 또래관계, 부모 그릇, 청소년 그릇, 부정적 양육태도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변수의 분포는 왜도 및 첨도를 통해 정규분포와 유사한지 확인할 수 있다. 왜도의 절댓값이 3 미만, 첨도의 절댓값이 7 미만이면 정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채구묵, 2018), 주요 변수들은 모두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V-7>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

	측정 범위	평균	표준편차	왜도	첨도
부모 그릇	1~4	2.71	.47	-0.15	0.38
긍정적 양육태도	1~4	3.18	.49	-0.36	0.22
부정적 양육태도	1~4	2.06	.51	0.36	0.25
청소년그릇	1~4	2.61	.56	0.03	0.14
또래관계	1~4	3.01	.50	-0.30	0.83
행복감	1~4	3.10	.49	-0.07	0.73

4.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주요 변수의 차이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인 부모의 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청소년 성별, 거주지역에 따른 부모 그릿,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청소년 그릿, 또래관계, 행복감의 집단 간 차이를 독립표본 t 검정 및 일원 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집단이 2개이면 독립표본 t 검증, 3개 이상일 경우 일원 배치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일원 배치 분산분석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 경우 사후 검증으로는 Scheffe's test 검증을 실시하였다.

1) 부모 그릇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그릇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가구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IV-8 >과 같다.

부모 응답자 성별에 따른 부모 그릇은 여성($M=2.71$, $SD=.48$), 남성($M=2.76$, $SD=.45$)으로 남성이 조금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t=-1.495$, $p=.135$).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른 부모 그릇은 400만 원 미만($M=2.72$, $SD=.43$), 400~600만 원 미만($M=2.74$, $SD=.46$), 600~800만 원 미만($M=2.61$, $SD=.52$), 800만 원 이상($M=2.85$, $SD=.44$)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17.138$, $p<.001$). 사후검정 결과 부모 그릇은 800만 원 이상일 때 가장 높았고, 600~800만 원 미만일 때 가장 낮았다($c<ab<d$).

청소년 성별에 따른 부모 그릇은 남성($M=2.72$, $SD=.47$), 여성($M=2.71$, $SD=.47$)로 남성이 조금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241$, $p=.810$). 거주 지역에 따른 부모 그릇은 대도시($M=2.71$, $SD=.48$), 중소도시($M=2.70$, $SD=.47$), 읍면지역($M=2.74$, $SD=.47$)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F=.954$, $p=.385$).

<표 IV-8>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모 그릇의 차이 (N=2,241)

특성	집단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Scheffe)
부모 응답자 성별	여성(모)	2,059	2.71	.48	-1.495	.135
	남성(부)	182	2.76	.45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 원 미만(a)	481	2.72	.43	17.138***	.000 (c<ab<d)
	400~600만 원 미만(b)	948	2.74	.46		
	600~800만 원 미만(c)	558	2.61	.52		
	800만 원 이상(d)	254	2.85	.44		
청소년 성별	남성	1,126	2.72	.47	.241	.810
	여성	1,115	2.71	.47		
거주지역	대도시	959	2.71	.48	.954	.385
	중소도시	916	2.70	.47		
	읍면지역	366	2.74	.47		

* $p<.05$, ** $p<.01$, *** $p<.001$

2) 긍정적 양육태도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긍정적 양육태도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가구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IV-9>와 같다.

부모 응답자 성별에 따른 긍정적 양육태도는 여성($M=3.18$, $SD=.49$), 남성($M=3.16$, $SD=.49$)으로 남성보다 여성이 조금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468$, $p=.640$).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른 긍정적 양육태도는 400만 원 미만($M=3.15$, $SD=.49$), 400~600만 원 미만($M=3.18$, $SD=.47$), 600~800만 원 미만($M=3.14$, $SD=.54$), 800만 원 이상($M=3.29$, $SD=.46$)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5.760$, $p<.001$). 사후검정 결과 긍정적 양육태도는 월평균 가구소득이 800만 원 이상일 때 가장 높았다($abc<d$).

청소년 성별에 따른 긍정적 양육태도는 남성($M=3.17$, $SD=.50$), 여성($M=3.18$, $SD=.49$)로 여성이 조금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305$, $p=.761$). 거주지역에 따른 긍정적 양육태도는 대도시($M=3.17$, $SD=.49$), 중소도시($M=3.19$, $SD=.49$), 읍면지역($M=3.16$, $SD=.50$)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F=.536$, $p=.585$).

<표 IV-9>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긍정적 양육태도의 차이 (N=2,241)

특성	집단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Scheffe)
부모 응답자 성별	여성(모)	2,059	3.18	.49	.468	.640
	남성(부)	182	3.16	.49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 원 미만(a)	481	3.15	.49	5.760***	.001 (abc<d)
	400~600만 원 미만(b)	948	3.18	.47		
	600~800만 원 미만(c)	558	3.14	.54		
	800만 원 이상(d)	254	3.29	.46		
청소년 성별	남성	1,126	3.17	.50	-.305	.761
	여성	1,115	3.18	.49		
거주지역	대도시	959	3.17	.49	.536	.585
	중소도시	916	3.19	.49		
	읍면지역	366	3.16	.50		

* $p<.05$, ** $p<.01$, *** $p<.001$

3) 부정적 양육태도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정적 양육태도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가구 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IV-10>과 같다.

부모 응답자 성별에 따른 부정적 양육태도는 여성($M=2.07$, $SD=.51$), 남성($M=2.03$, $SD=.50$)으로 여성이 조금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947$, $p=.344$).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른 부정적 양육태도는 400만 원 미만($M=2.09$, $SD=.51$), 400~600만 원 미만($M=2.09$, $SD=.51$), 600~800만 원 미만($M=2.04$, $SD=.52$), 800만 원 이상($M=1.98$, $SD=.47$)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3.874$, $p<.01$). 사후검정 결과 부정적 양육태도는 600만 원 미만일 때 가장 높았고, 800만 원 이상일 때 가장 낮아, 가구 소득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d<ab$).

청소년 성별에 따른 부정적 양육태도는 남성($M=2.07$, $SD=.51$), 여성($M=2.06$, $SD=.51$)으로 남성이 조금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500$, $p=.617$). 거주지역에 따른 부정적 양육태도는 대도시($M=2.05$, $SD=.50$), 중소도시($M=2.09$, $SD=.54$), 읍면지역($M=2.04$, $SD=.46$)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F=1.987$, $p=.137$).

<표 IV-10>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부정적 양육태도의 차이 (N=2,241)

특성	집단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Scheffe)
부모 응답자 성별	여성(모)	2,059	2.07	.51	.947	.344
	남성(부)	182	2.03	.50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 원 미만(a)	481	2.09	.51	3.874**	.009 (d<ab)
	400~600만 원 미만(b)	948	2.09	.51		
	600~800만 원 미만(c)	558	2.04	.52		
	800만 원 이상(d)	254	1.98	.47		
청소년 성별	남성	1,126	2.07	.51	.500	.617
	여성	1,115	2.06	.51		
거주지역	대도시	959	2.05	.50	1.987	.137
	중소도시	916	2.09	.54		
	읍면지역	366	2.04	.46		

* $p<.05$, ** $p<.01$, *** $p<.001$

4) 청소년 그릿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그릿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IV-11>과 같다.

부모 응답자 성별에 따른 청소년 그릿은 여성($M=2.62$, $SD=.56$), 남성($M=2.55$, $SD=.55$)로 여성이 조금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1.495$, $p=.135$).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른 청소년 그릿은 400만원 미만($M=2.59$, $SD=.55$), 400~600만원 미만($M=2.64$, $SD=.56$), 600~800만원 미만($M=2.57$, $SD=.57$), 800만원 이상($M=2.65$, $SD=.56$)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F=2.242$, $p=.081$). 청소년 성별에 따른 청소년 그릿은 남성($M=2.60$, $SD=.56$), 여성($M=2.63$, $SD=.56$)으로 여성이 조금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1.396$, $p=.163$).

거주지역에 따른 청소년 그릿은 대도시($M=2.57$, $SD=.56$), 중소도시 ($M=2.62$, $SD=.56$), 읍면지역($M=2.69$, $SD=.56$)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5.739$, $p<.01$). 사후검정 결과 청소년 그릿은 읍면지역이 가장 높았고, 대도시가 가장 낮아, 거주지의 도시화 수준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IV-11>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청소년 그릿의 차이 (N=2,241)

특성	집단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Scheffe)
부모 응답자 성별	여성(모)	2,059	2.62	.56	1.495	.135
	남성(부)	182	2.55	.55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 원 미만	481	2.59	.55	2.242	.081
	400~600만 원 미만	948	2.64	.56		
	600~800만 원 미만	558	2.57	.57		
	800만 원 이상	254	2.65	.56		
청소년 성별	남성	1,126	2.60	.56	-1.396	.163
	여성	1,115	2.63	.56		
거주지역	대도시(a)	959	2.57	.56	5.739**	.003 (a<c)
	중소도시(b)	916	2.62	.56		
	읍면지역(c)	366	2.69	.56		

* $p<.05$, ** $p<.01$, *** $p<.001$

5) 또래관계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또래관계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부모의 성별, 월평균 가구 소득, 청소년 성별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IV-12>와 같다.

부모 응답자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는 여성($M= 3.02, SD=.50$), 남성($M= 2.91, SD=.48$)로 여성이 조금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t=2.784, p<.01$).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른 또래관계는 400만 원 미만($M=2.94, SD=.51$), 400~600만 원 미만($M=3.04, SD=.46$), 600~800만 원 미만($M=3.01, SD=.54$), 800만 원 이상($M=3.02, SD=.49$)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3.997, p<.01$). 사후검정 결과 또래관계는 400~600만 원 이상일 때 가장 높았고, 400만 원 미만일 때 가장 낮았다($a<b$).

청소년 성별에 따른 또래관계는 남성($M=2.95, SD=.50$), 여성($M=3.07, SD=.48$)로 여성이 조금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t=-6.058, p<.001$). 거주지역에 따른 또래관계는 대도시($M=3.03, SD=.50$), 중소도시($M=2.98, SD=.51$), 읍면지역($M=3.03, SD=.46$)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F=2.074, p=.126$).

<표 IV-12>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또래관계의 차이 (N=2,241)

특성	집단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Scheffe)
부모 응답자 성별	여성(모)	2,059	3.02	.50	2.784**	.005
	남성(부)	182	2.91	.48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 원 미만(a)	481	2.94	.51	3.997**	.008 (a<b)
	400~600만 원 미만(b)	948	3.04	.46		
	600~800만 원 미만(c)	558	3.01	.54		
	800만 원 이상(d)	254	3.02	.49		
청소년 성별	남성	1,126	2.95	.50	-6.058***	.000
	여성	1,115	3.07	.48		
거주지역	대도시	959	3.03	.50	2.074	.126
	중소도시	916	2.98	.51		
	읍면지역	366	3.03	.46		

* $p<.05$, ** $p<.01$, *** $p<.001$

6) 청소년의 행복감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의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분석한 결과 월평균 가구 소득과 거주지역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분석 결과는 <표 IV-13>와 같다.

부모 응답자 성별에 따른 행복감은 여성($M=3.10$, $SD=.49$), 남성($M=3.05$, $SD=.54$)로 여성이 조금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1.398$, $p=.162$). 월평균 가구소득에 따른 행복감은 400만 원 미만($M=3.05$, $SD=.52$), 400~600만 원 미만($M=3.11$, $SD=.47$), 600~800만 원 미만($M=3.09$, $SD=.49$), 800만 원 이상($M=3.15$, $SD=.52$)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3.199$, $p<.05$). 사후검정 결과 행복감은 800만 원 이상일 때 가장 높았고, 400만 원 미만일 때 가장 낮아, 가구 소득에 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a<d).

청소년 성별에 따른 행복감은 남성($M=3.11$, $SD=.49$), 여성($M=3.09$, $SD=.50$)로 남성이 조금 더 높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t=1.181$, $p=.238$). 거주지역에 따른 행복감은 대도시($M=3.05$, $SD=.50$), 중소도시($M=3.12$, $SD=.49$), 읍면지역($M=3.17$, $SD=.47$)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F=10.854$, $p<.001$). 사후검정 결과 행복감은 읍면지역 및 중소도시가 높아, 거주지의 도시화 수준에 반비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a<bc).

<표 IV-13> 인구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행복감의 차이 (N=2,241)

특성	집단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t or F	P (Scheffe)
부모 응답자 성별	여성(모)	2,059	3.10	.49	1.398	.162
	남성(부)	182	3.05	.54		
월평균 가구 소득	400만 원 미만(a)	481	3.05	.52	3.199*	.023 (a<d)
	400~600만 원 미만(b)	948	3.11	.47		
	600~800만 원 미만(c)	558	3.09	.49		
	800만 원 이상(d)	254	3.15	.52		
청소년 성별	남성	1,126	3.11	.49	1.181	.238
	여성	1,115	3.09	.50		
거주지역	대도시(a)	959	3.05	.50	10.854***	.000 (a<bc)
	중소도시(b)	916	3.12	.49		
	읍면지역(c)	366	3.17	.47		

* $p<.05$, ** $p<.01$, *** $p<.001$

5.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는 주요 변수 간의 전반적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Pearson 상관계수(r)를 산출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또래관계($p < .05$)를 제외한 모든 변수 간에 $p < .001$ 유의수준에서 변수 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립변수 중 부모 그릇이나 부정적 양육태도에 비해 긍정적 양육태도가 다른 변수들과 상관이 강한 편이었으며,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표 IV-14>와 같다.

부모 그릇은 긍정적 양육태도($r = .182, p < .001$), 청소년 그릇($r = .227, p < .001$), 또래관계($r = .045, p < .05$), 행복감($r = .112, p < .001$)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고, 부정적 양육태도($r = -.084, p < .001$)와는 부(-)적 상관이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그릇($r = .308, p < .001$), 또래관계($r = .380, p < .001$), 행복감($r = .440, p < .001$)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고, 부정적 양육태도($r = -.403, p < .001$)와는 부(-)적 상관이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그릇($r = -.188, p < .001$), 또래관계($r = -.114, p < .001$), 행복감($r = -.234, p < .001$)과 부(-)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청소년 그릇은 또래관계($r = .183, p < .001$), 행복감($r = .320, p < .001$)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고, 또래관계는 행복감($r = .236, p < .001$)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표 IV-14>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부모 그릇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청소년 그릇	또래관계	행복감
부모 그릇	1					
긍정적 양육태도	.182***	1				
부정적 양육태도	-.084***	-.403***	1			
청소년 그릇	.227***	.308***	-.188***	1		
또래관계	.045*	.380***	-.114***	.183***	1	
행복감	.112***	.440***	-.234***	.320***	.236***	1

* $p < .05$, ** $p < .01$, *** $p < .001$

6.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가 상정한 변인들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2단계에 걸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1단계에서는 부모 그릇과 양육태도가 청소년 그릇에 미치는 영향과 부모 그릇과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는 부모 그릇, 부모양육태도, 청소년 그릇 및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는 <표 IV-15>에 제시하였고,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1단계는 부모 그릇과 양육태도가 청소년 그릇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이며, 모형의 설명력은 13.0%였다. 부모 그릇은 청소년 그릇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76, t=8.769, p<.001$).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그릇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247, t=11.299, p<.001$),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그릇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73, t=-3.405, p<.001$).

1-2단계는 부모 그릇과 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이며, 모형의 설명력은 14.7%였다. 부모 그릇은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26, t=-1.248, p=.212$). 긍정적 양육태도는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beta=.404, t=18.671, p<.001$), 부정적 양육태도는 또래관계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ta=.047, t=2.185, p<.05$),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가 모두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는 부모 그릇, 양육태도, 청소년 그릇, 또래관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형이며, 모형의 설명력은 23.7%였다. 부모 그릇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00, t=-.016, p=.987$).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332, t=14.816, p<.001$).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56, t=-2.774, p<.01$). 청소년 그릇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195, t=9.810, p<.001$).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beta=.068, t=3.365, p<.001$).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양육태도($\beta=.332, p<.001$)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청소년 그릇($\beta=.195,$

$p < .001$), 또래관계($\beta = .068$, $p < .001$), 부정적 양육태도($\beta = -.056$, $p < .001$) 순으로 나타났고, 부모 그릇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beta = .000$, $p = .987$)을 확인하였다.

<표 IV-15> 회귀분석 결과

종속변수		<i>B</i>	β	<i>t</i>	<i>p</i>	VIF	<i>R</i> ²	<i>F</i>
1-1단계: 청소년 그릇	(상수)	1.324		11.044***	.000		.130	111.199***
	부모 그릇	.208	.176	8.769***	.000	1.034		
	긍정적 양육태도	.280	.247	11.299***	.000	1.226		
	부정적 양육태도	-.081	-.073	-3.405***	.001	1.194		
1-2단계: 또래관계	(상수)	1.694		16.089***	.000		.147	128.648***
	부모 그릇	-.026	-.025	-1.248	.212	1.034		
	긍정적 양육태도	.407	.404	18.671***	.000	1.226		
	부정적 양육태도	.046	.047	2.185*	.029	1.194		
2단계: 행복감	(상수)	1.509		14.200***	.000		.237	139.207***
	부모 그릇	.000	.000	-.016	.987	1.072		
	긍정적 양육태도	.332	.332	14.816***	.000	1.469		
	부정적 양육태도	-.055	-.056	-2.774**	.006	1.204		
	청소년그릇	.171	.195	9.810***	.000	1.157		
	또래관계	.067	.068	3.365***	.001	1.181		

* $p < .05$, ** $p < .01$, *** $p < .001$

7. 매개효과 검증 및 효과분해

부모 그릇 및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이르는 경로에서 청소년 그릇 및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효과를 분해하고,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Hayes(2018)가 제안한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적용하여 표본을 5,000회 반복 추출하고 95% 신뢰구간 내에서 검증을 실시하였다. Process Macro에서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이용해 추정된 간접효과의 신뢰구간(BootLLCI에서 BootULCI까지)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간접효과의 신뢰구간 안에 0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간접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지지된다(Preacher & Hayes, 2004). 독립변수에 따라 결과를 나열하면 <표 IV-16>과 같다.

분석 결과 부모 그릇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청소년 그릇을 통한 간접효과($B=.036$, 95% CI=.025~.048)만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부모 그릇이 또래관계를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행복감에 간접효과를 미치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 그릇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직접효과와 또래관계를 매개로 한 간접효과를 미치지 못하며, 오직 청소년 그릇을 매개로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부모 그릇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총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B=.034$, $p>.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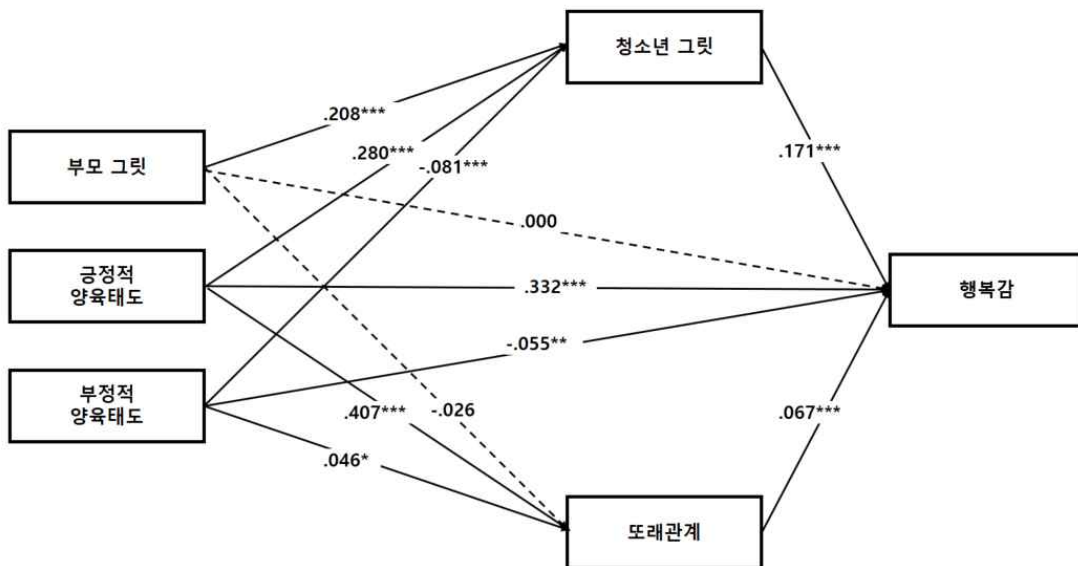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데, 직접 영향($B=.332$, $p<.001$)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 그릇을 통한 간접효과($B=.048$, 95% CI=.035~.062)와 또래관계를 통한 간접효과($B=.027$, 95% CI=.009~.045)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그릇 및 또래관계를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총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407$, $p<.001$).

부정적 양육태도는 전반적으로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혼재되어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B=-.055$, $p<.01$)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청소년 그릇을 통한 간접효과($B=-.014$, 95% CI=-.024~-0.005), 또래관계를 통한 간접효과($B=.003$, 95% CI=.000~.007) 모두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정적 양

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직간접적으로 부(-)적 영향을 미치는데, 청소년 그릿과 또래관계가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그릿을 매개로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또래관계를 매개로 하여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IV-16> 효과분해 및 부트스트랩 검증

독립변수	총 효과(<i>p</i>)	직접효과(<i>p</i>)	간접효과(boot 95% CI)	
			청소년 그릿 매개	또래관계 매개
부모 그릿	.034(.093)	.000(.987)	.036(.025~.048)	-.002(-.005~.001)
긍정적 양육태도	.407(.000)	.332(.000)	.048(.035~.062)	.027(.009~.045)
부정적 양육태도	-.065(.001)	-.055(.006)	-.014(-.024~- .005)	.003(.000~.007)



[그림 IV-1] 최종 모형

8. 연구가설 검증 내용 및 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설 1>의 ‘부모 그림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부모 그림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B=.000$, $p=.987$). 따라서 <가설 1>은 기각되었다.

둘째, <가설 2-1>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행복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332$, $p<.001$). 따라서 <가설 2-1>은 채택되었다.

<가설 2-2>의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행복감이 감소하였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B=-.055$, $p<.01$). 따라서 <가설 2-2>는 채택되었다.

셋째, <가설 3>의 ‘부모 그림과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 그림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부모 그림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B=.000$, $p=.987$), 청소년 그림을 통한 간접효과($B=.036$, 95% CI=.025~.048)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그림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간접적으로 정(+)적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 그림이 이를 매개한다. 따라서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넷째, <가설 4> ‘부모 그림과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부모 그림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B=.000$, $p=.987$), 또래관계를 통한 간접효과($B=-.002$, 95% CI=-.005~.001)가 나타나 신뢰구간 안에서 0을 포함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가설 4>는 기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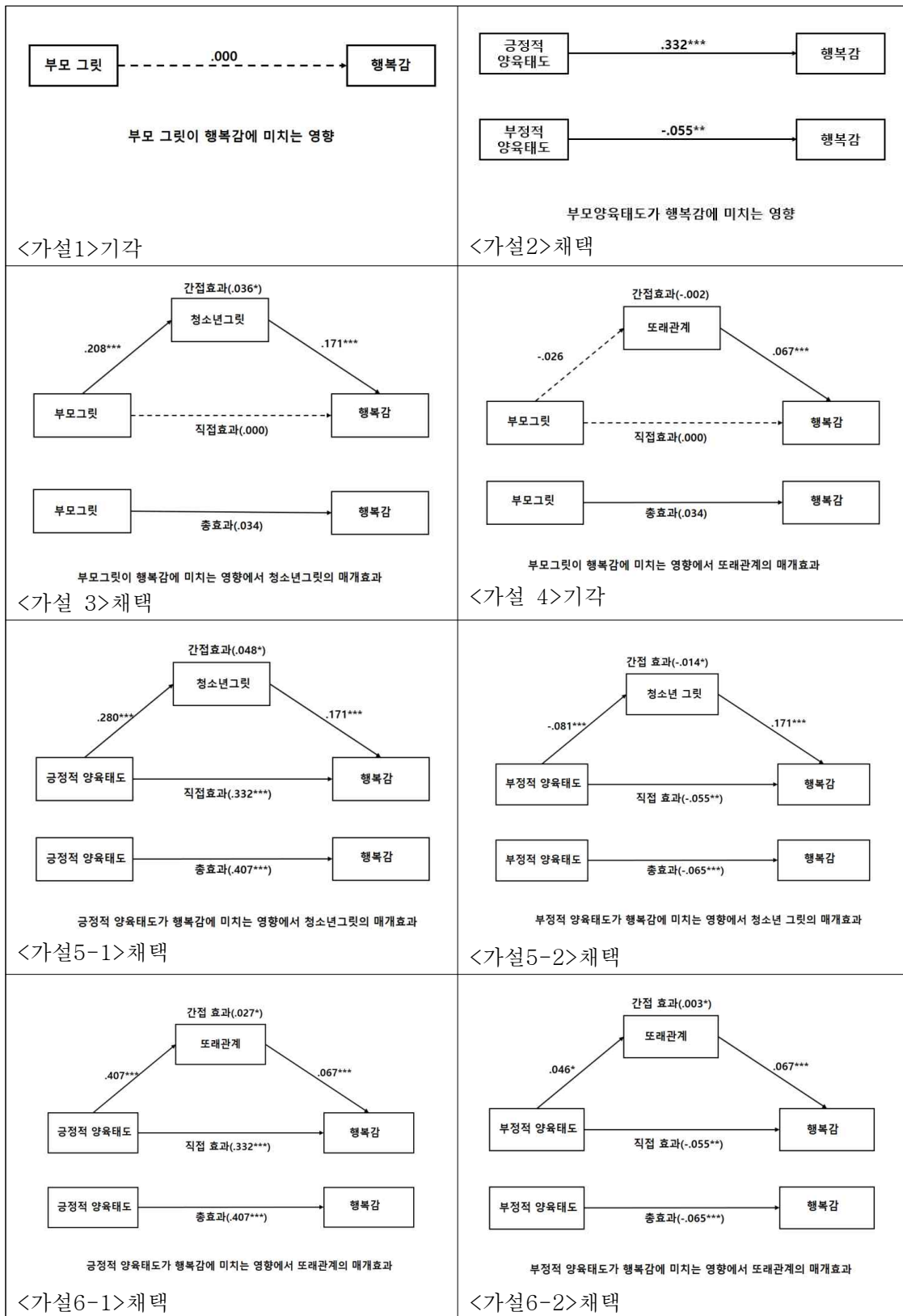
다섯째, <가설 5-1>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 그림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데(직접효과 $B=.332$, $p=.000$), 청소년 그림을 통한 간

접효과($B=.048$, 95% CI=.035~.06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 사이에 청소년 그림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5-1>은 채택되었다.

<가설 5-2>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 그림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데(직접효과 $B=-.055$, $p=.006$), 청소년 그림을 통한 간접효과($B=-.014$, 95% CI=-.024~-0.0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 사이에 청소년 그림이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5-2>는 채택되었다.

여섯째, <가설 6-1>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데(직접효과 $B=.332$, $p=.000$),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통한 간접효과($B=.027$, 95% CI=.009~.04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 사이에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6-1>는 채택되었다.

<가설 6-2>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를 검증한 결과,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데(직접효과 $B=-.055$, $p=.006$),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통한 간접효과($B=.003$, 95% CI=.000~.00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 사이에 청소년의 또래관계가 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설 6-2>은 채택되었다.



[그림 IV-2] 가설검증 모형

<표 IV-17> 가설검증 요약

	가설	채택 여부
1	부모 그릿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기각
2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1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2-2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채택
3	부모 그릿과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 그릿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4	부모 그릿과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기각
5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 그릿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5-1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 그릿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5-2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 그릿은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6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6-1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6-2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매개효과를 가질 것이다.	채택

V. 요약 및 논의

1. 요약

본 연구는 부모 그릿과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청소년 그릿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독립변수로는 부모 그릿과 부모의 긍정적, 부정적 양육태도를 선정하고, 종속변수로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선정하여 이들 변수 간의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그릿과 또래관계를 매개변수로 선정하여, 부모 그릿,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매개 역할을 하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의 초4 패널 자료에서 4차 연도(2021년)에 해당하는 중학교 1학년인 2,607명의 응답 결과를 활용하였고, 그중 2,241명을 연구대상자로 추출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6.0. Process Macro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 검정 및 일원 배치 분산분석(ANOVA), 사후 검증으로는 Scheffe 검증, Pearson 상관분석, Process macro에서 제공하는 부트스트랩 기능을 활용하여 검증 결과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자인 부모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어머니가 2,059명으로 응답자의 91.9%를 차지하여 어머니의 참여율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월평균 가구소득은 400~600만원 미만인 948명(42.3%)으로 가장 많았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남학생이 1,126명으로 50.2%를 차지하였고, 거주지역으로는 대도시가 959명으로 42.8%로 나타나 대도시에서 거주하는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둘째,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량을 살펴보면, 긍정적 양육태도의 평균값과 표준편차($M=3.18$, $SD=.49$)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다음이 종속변수인 청소년의 행복감($M=3.10$, $SD=.49$), 매개변수인 또래관계($M=3.01$, $SD=.50$), 부모 그릿($M=2.71$, $SD=.47$), 청소년 그릿($M=2.61$, $SD=.56$)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태도의 평균($M=2.06$, $SD=.5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정규분포를 나타내는 왜도는 $-0.36\sim 0.36$, 첨도는 $0.14\sim 0.83$ 으로 절댓값이 각각 3과 7 미만으로 정규성을 이루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연구대상자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인 부모의 성별, 월평균 가구소득, 청소년 성별, 거주지역에 따른 부모 그릿, 긍정적 양육태도, 부정적 양육태도, 또래관계, 청소년

년 그릇, 행복감의 집단 간 차이를 확인한 결과, 먼저 부모 그릇은 월평균 가구 소득에 따라 집단 간 차이($F=17.138, p<.001$)가 있었고, 긍정적 양육태도($F=5.760, p<.001$)와 부정적 양육태도($F=3.874, p<.01$)는 월평균 가구소득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청소년 그릇은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한 차이($F=5.739, p<.01$)가 확인되었고, 또래관계는 부모($t=2.784, p<.01$)와 청소년의 성별($t=-6.058, p<.001$)과 월평균 가구소득($F=5.739, p<.01$)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청소년의 행복감은 월평균 가구소득($F=3.199, p<.05$)과 거주지역($F=10.854, p<.001$)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중, 청소년의 행복감은 거주지역에 따른 차이가 나타났는데, 대도시에 비해 읍면 지역과 중소도시에서 행복감이 높게 확인되었다. 이는 경쟁 구도에 놓인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은 자연과 어우러진 공간의 특수성과 공동체성이 살아있으며, 배움의 공간으로서의 농촌 문화의 강점에 대한 연구(최성광, 2014)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 특히, ‘이웃의 정’이라는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면서 성장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감이 높다는 연구(최혜정, 김형관, 김진희, 2017) 결과와 청소년기 동네에 사는 이웃과의 유대감이 클수록 성인이 되어서 시민의식과 대인관계 기술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Vartanian & Buck, 2005)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긍정적 양육태도와 행복감의($r=.440, p<.001$)이 정(+)적 상관이 가장 높았고, 긍정적 양육태도와 또래관계($r=.380, p<.001$), 청소년 그릇과 행복감($r=.320, p<.001$),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그릇($r=.308, p<.001$)순으로 나타나, 긍정적 양육태도가 다른 변수와 상관이 강한 편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부정적 양육태도와 부(-)적 상관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r=-.403, p<.001$).

다섯째, 부모 그릇 및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과 청소년 그릇 및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부모 그릇은 청소년 그릇을 통한 간접효과($B=.036, 95\% CI=.025\sim.048$)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그릇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 그릇이 이를 매개한다. 부모 그릇과 행복감 간의 영향에서 또래관계의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직접효과($B=.332, p<.001$)와 청소년 그릇을 통한 간접효과($B=.048, 95\% CI=.035\sim.062$), 또래관계를 통한 간접효과($B=.027, 95\% CI=.009\sim.045$)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정적 영향과 부적 영향이 혼재되어 있다.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직접효과($B=-.055, p<.01$), 청소년 그릇을 통한 간접효과($B=-.014, 95\% CI=-.024\sim-.005$),

또래관계를 통한 간접효과($B=.003$, 95% CI=.000~.007)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에 대한 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그릇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B=.000$, $p=.987$)으로 나타나, <가설 1>은 기각되었다.

둘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B=.332$, $p=.000$)이 나타났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부($B=-.055$, $p=.006$)적 영향이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셋째, 부모 그릇은 청소년 그릇을 통한 간접효과($B=.036$, 95% CI=.025~.048)만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모 그릇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간접적으로만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청소년 그릇이 이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3>은 채택되었다.

넷째, 부모 그릇은 또래관계를 통한 간접효과($B=-.002$, 95% CI=-.005~.001)로 나타나 신뢰구간 안에서 0을 포함하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 그릇과 행복감의 관계에서 또래관계는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4>는 기각되었다.

다섯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직접효과 $B=.332$, $p=.000$), 청소년 그릇을 통한 간접효과($B=.048$, 95% CI=.035~.062)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가설 5-1>은 채택되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데(직접효과 $B=-.055$, $p=.006$), 청소년 그릇을 통한 간접효과($B=-.014$, 95% CI=-.024~-0.00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가설 5-2>는 채택되었다.

여섯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고(직접효과 $B=.332$, $p=.000$),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통한 간접효과($B=.027$, 95% CI=.009~.045)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가설 6-1>은 채택되었다.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데(직접효과 $B=-.055$, $p=.006$),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통한 간접효과($B=.003$, 95% CI=.000~.007)로 나타나 통계적으로 유의하므로, <가설 6-2>는 채택되었다.

2. 논의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그릇은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 및 국외에서 부모 그릇에 대한 연구가 현재까지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아 논의하는데 한계가 있으나, 윤미리 외(2020)는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APIM)을 사용하여 어머니와 자녀의 그릇과 행복감에 대해 연구하였고, 어머니의 그릇은 어머니 자신의 주관적 행복감은 높아지지만, 자녀의 행복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함영란(2023)의 연구에서도 부모 그릇은 자녀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행복감을 정서적 요소로 볼 때(Diener et al., 2009), 어머니의 그릇은 자녀의 정서적 요소인 행복감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유아교사의 그릇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정우정(2020), 이서연과 서현아(2019), 김시연(2014)에 따르면, 교사의 그릇은 유아의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와는 상반된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부모 그릇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자녀 및 양육 대상자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상반된 연구 결과도 존재하여 추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고,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긍정적 양육태도라 할 수 있는 따스함과 구조 제공, 자율성 지지가 높다고 지각할수록 청소년 행복감의 수준이 높게 나타나며, 부정적 양육태도인 거부, 강요, 비밀관성을 낮게 지각할수록 행복감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는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검증한 선행연구들(박미라, 2017; 이서희, 김기민, 2019; 허은, 2021; 함영란, 박분희, 2021; 정은선, 조한익, 2009; 문예은, 이주연, 2021; 홍은비, 노성향, 2022; 우성현, 안도희, 2022; 이미영, 2020; Furnham & Cheng, 2000; Holder & Coleman, 2009, 양수연, 2023; 김시연, 2018)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또한,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행복감의 수준을 높인다는 사실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지선례, 2018; 김도희, 2022; 권유정 외, 2022; 강수현, 2019; 김명숙, 2019; 박소연, 신민진, 광진영, 2021; 안지영, 이은경, 김지신,

2021; 유계환, 최희정, 2021; 한영숙, 2020; 장영애, 김상림, 2016)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즉, 부모가 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 제공의 양육태도를 보일수록 청소년의 행복감이 향상되고(허은, 2021), 부모의 민주적 양육태도 즉, 진로나 진학, 공부 방법에 대해 나의 의견을 존중해 줄 때 청소년의 행복감이 증진되며(이미영, 2020), 부모의 돌봄은 주관적 행복감을 높이고 우울감을 낮춤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정은선, 조한익, 2009). 부모가 가족 내 규칙을 잘 설명해 주고, 합리적인 설명과 이유를 통해 자녀를 지도하는 경우 자녀는 긍정 정서를 많이 느끼게 된다(오인수, 반지윤, 2019).

한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행복감의 수준을 낮춘다는 사실을 검증한 선행연구들(임정자, 2022; 박영숙, 2022; 김명화 외, 2022; 김은혜, 김민정, 2020; 유계환, 최희정, 2021; 정은선, 조한익, 2009)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부모의 거부, 강요, 비일관적 양육태도를 낮게 지각할수록 청소년의 행복감은 높았으며(문예은, 이주연, 2021), 강요적 양육태도는 자녀의 우울을 유발하고 행복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박영숙, 2020), 부모의 과보호가 높을수록 주관적 행복감이 낮아진다(정은선, 조한익, 2009). 또한 부모의 거부적, 비일관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직접적 부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학업 무기력에 간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임정자, 2022).

이상과 같이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성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요인이 되는 긍정 심리 변인으로서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이다. 즉, 청소년이 부모가 자신에게 따뜻하고 지지적이라고 지각하는 경우 청소년의 행복을 직접적으로 증진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자기 부모가 강압적이고 거부적이고 상황에 따라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보인다면 청소년의 행복감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의 자율성을 지지하고 수용해 주는 행위는 부모와 자녀의 소통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내재적 동기와 심리·사회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과 한계를 제공하는 양육 방식을 사용한다(Deci & Ryan, 2002).

논의를 종합해 보면,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성인기로의 이행 과정에 있는 청소년의 발달 단계에서 적응과 발달을 촉진할 수 있는 변수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부모가 자녀와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방식의 양육태도를 통해 자녀의 건강한 인격 발달을 도와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Gabor Mate, 2012). 또한, 청소년

년이 인식하는 행복감은 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에 주요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성인 이후의 삶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부모양육태도를 통해 이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Jose, Ryan & Pryor, 2012; Yang, 2008).

셋째, 부모 그릇과 청소년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 그릇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부모 그릇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부모 그릇은 부모의 열정과 끈기를 삶의 태도로 받아들여 모델링 하게 되며 그 과정에서 그릇이 발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청소년 그릇을 매개로 부모 그릇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간접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 그릇이 청소년 그릇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함영란, 2023; 강보은, 2021; 윤기봉, 2020; 이혜원, 최진수, 이수란, 2021; 전향신, 박분희, 2020; 황용재, 김창겸, 2020; Kevin et al., 2020; 윤미리 외, 2020)의 결과를 지지한다. 부모의 높은 그릇 수준은 자녀에게 세대 간 이전을 통하여 자녀의 그릇 수준을 강화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 그릇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자기 통제력을 비롯한 자기 조절력, 자기분화, 애착이 세대 간 전이될 수 있다는 결과에 기초하여 부모 그릇이 자녀 그릇에 전수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윤기봉, 2020; 이희길, 2008; 전향신, 박분희, 2020; 최해훈, 2015; 하상희, 정혜정, 2008; 황용재, 김창겸, 2020; Bowen, 1978; Bridgett et al., 2015). 세대 간 전이(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는 원가족의 경험이 심리적·관계적 역동을 통해서 다음 세대로 이어져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Bowen, 1976). 즉, 부모 그릇을 자녀가 모델링 하여 자녀의 그릇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부모 그릇이 자녀의 그릇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들은 많지 않다(Kevin et al., 2020).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부모 그릇 수준이 자녀의 그릇 수준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전향신, 박분희, 2020; 황용재, 김창겸, 2020; 윤기봉, 2020; 강보은, 2021)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중 강보은(2022)은 부모의 흥미 유지는 자녀의 그릇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노력 지속은 자율성 지지를 통해 그릇을 지속적으로 촉진시키며, 청소년이 심리·행동적 요인으로 부모 그릇을 모델링 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릇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안정적이고 성실하며 자기 통제력이 높은 경향이 있다(Credé et al., 2017). 이와 관련하여 그릇이 높은 부모는 자녀를 독립적인 존재로 인정하고 자기조절을 통해 일관적인 태도를 유지하여 자녀가 부모와의 소통 과정에서 지지받는다고 인식하게 되어 스스로 흥미를 찾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태도를 보인다(황용재, 김창겸, 2020).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그릿 수준이 높은 부모의 슬하에서 자란 아동은 부모의 열정과 끈기를 삶의 태도로 모델링하여 습득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그릿을 발달시키게 됨을 의미한다. 이는 부모 그릿과 관련된 연구가 미흡한 상황에서 부모 그릿과 청소년 그릿이 세대 간 이전됨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모 그릿과 청소년 자녀의 그릿 모두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

넷째, 부모 그릿과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국내외 선행연구들에서 부모 그릿에 대한 연구는 청소년 그릿과는 달리 아직까지는 미흡한 수준으로 찾아보기 힘들다. 특히 부모 그릿과 또래관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최근의 연구들은 부모 그릿이 양육태도를 매개로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관계분석(강보은, 2022), 부모 그릿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윤옥희, 2023), 어머니의 그릿과 아동의 문제행동(최예라, 2022), 부모 그릿이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황용재 외 2020), 청소년 자녀를 둔 한부모 그릿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김가연, 박정윤, 2023), 부모 그릿이 자녀의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강보은, 2021), 부모와 자녀의 행복감과 그릿, 학업무기력, 학업열의, 학업성취간 관계(함영란, 2023) 정도가 진행된 바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와 연결하여 논의하는 데는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부모 그릿과 자녀의 또래관계를 함께 살펴본 연구를 진행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다섯째,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 그릿의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으로 지각한 청소년일수록 그릿이 높음을 보고한 선행연구(함영란, 2023; 양수연, 2023; 모화숙, 문화진, 2022; 김명화, 김혜진, 최재혁, 2022; 정성원, 장유나, 홍세희, 2021; 이미라, 전향신, 2020; 홍은비, 노성향, 2022, 우성현, 안도희, 2022, 송홍정, 2020, 강선모, 2021; 양영옥 이지연, 2022; Cunsolo, 2017; Lavrič et al., 2020)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부모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그릿 수준이 낮아짐을 확인한 선행연구의 결과(엄태순, 윤미선, 2020; Howard et al., 2019)를 지지한다. 국외 연구에서도 부모양육태도는 자녀의 그릿에 유의미한 직접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Levy & Steele, 2011; Mandelbaum, 2016; Lin & Chang, 2017; Shaw, 2017).

즉, 부모양육태도를 청소년이 긍정적으로 지각할 때 기본심리욕구 충족이 잘 되고, 이러한 충족 경험은 그릿을 증진시킨다(이선형, 최자은, 2019). 부모양육태도를 긍정적이라고 인식할수록 목표 달성을 위하여 꾸준하고 장기적인 노력을 하는 그릿 수준이 높아지며 그릿이 높은 청소년은 행복감 수준이 높다(김명화, 김혜진, 최재혁, 2022)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릿은 매개변인의 역할도 하고, 그릿 자체로도 행

복감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송홍정, 2020), 청소년의 행복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릿 수준을 함께 높여야 함을 의미한다(이승진, 2022). 즉, 청소년이 지각하기에 부모가 대체로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고 격려하며 따스한 태도로 대할 때 청소년은 특정 과업에 대한 끈기와 열정을 유지하고 지속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청소년 그릿과 행복감에 대하여 부모양육태도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개인 내적 특징인 그릿을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변인이며, 그릿은 학업과 관련된 성취에 관심이 많은 한국 청소년에게 행복감을 긍정적으로 예측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사실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부모들이 자녀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양육태도를 익히고 유지할 수 있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방안과 그릿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상담적 개입 방안을 모색해야 함을 시사한다.

여섯째, 부모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의 유의미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정(+)적으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고,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행복감의 관계에서 또래관계는 정(+)적으로 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긍정적 양육태도와 부정적 양육태도 모두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역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줌으로써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부모의 애정적이고 온정적인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스트레스 지수를 낮추고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을 형성하게 한다(Corsano et al., 2006). 이러한 부모와의 신뢰감을 기반으로 또래와 긍정적 상호작용을 형성하고 궁극적으로는 행복감을 증진한다(송미라 외, 2015; 안지영 외, 2020; 김도희, 2020; 권유정 외, 2022; 정선아, 2021). 또한, 또래관계가 행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확인한 선행연구(안지영 외, 2020; 김도희, 2020; 권유정 외, 2022; 정선아, 2021; Piko & Hamvai, 2010)의 결과를 지지한다. 또한, 부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장인실, 장석진, 2012), 또래관계에 부정적인 경쟁과 갈등을 경험하게 한다(최진희, 2010). 또한 부모의 거부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가 자신과 타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게 되고, 또래와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된다(김영숙, 2017)는 연구 결과와 같이 대부분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 자녀가 부모양육태도를 통해 대인관계의 기술을 모델링하게 되는 데(Dekovic & Janssens, 1992),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는 잘못된 방식으로 청소년의 또래관계를 형성하게 하여 청소년의 행복감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볼 수 있다.

또래관계는 또래의 특성에 따라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이 공존하는데, 일탈이나 비행 등 문제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의 또래관계는 적절한 친밀감을 형성하기 어렵고 갈등 상황에 노출되기 쉽다. 따라서 단순히 또래관계를 강조하기보다는 건전한 또래관계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가정과 학교에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강인경, 김춘경, 2016).

한편,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매우 작은 수치이긴 하지만 부정적 양육태도가 증가하면 또래관계에 정적 영향을 미쳐 행복감이 증진된다는 사실을 밝혔다. 부정적 양육태도가 1 증가하면 또래관계에 정적 영향을 미쳐 청소년의 행복감이 .003 증가한다는 것이다. $B=.003$ 으로 그 값이 미미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은 부모나 가족 안에서 충족되지 못한 친밀감이나 애착의 욕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또래에게 지원을 요청한다는 연구(Blos, 1979; Coleman, 1961; Douvan & Adelson, 1966) 결과를 지지한다. 초기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가족의 지지 못지않게 또래의 지지를 중요하게 간주함으로써(Ainsworth, 1989), 또래에게 의존하거나 애착을 추구하게 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한 연구(서주현, 유안진, 2001; Armsden & Greenberg, 1987; Coleman, 1961)와 부모의 학대가 친구와의 긴밀한 관계를 추구하는 등 보상 반응을 유발함을 확인한 연구(Bolger, Patterson, & Kupersmidt, 1998)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이 중학교 1학년으로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므로 연구대상자의 발달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준비하는 시기인 청소년은 부모양육태도를 부정적으로 지각할수록 부모보다 또래에 의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부모 애착과 비행과의 사이에서 또래 애착이 초기 청소년들의 비행 속도를 빠르게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연구(이재경, 조혜정 2012; Barnow, Lucht, & Freyberger, 2005; Claes et al., 2005) 결과와 그 맥을 같이한다. 부모가 억압적이고 폐쇄적일 때 청소년은 반사회적이고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맺기 쉬우며(구본용 외, 1999), 부모의 통제적이고 방임적인 양육태도를 경험한 청소년은 부정적 또래관계에 의존하게 되어 폭력이나 미디어 중독과 같은 일탈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연구(김민정, 2019; 정복자, 박은아, 2016)의 결과를 일부 지지한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중학생 시기는 또래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중요시하는 시기로 볼 수 있다(고영남, 2008). 따라서, 또래관계를 통해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또래에게 잘 수용되기 위해 노력하며 대인관계를 배우고 사회적 기술을 터득하게 된다. 이 시기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또래나 교사 등 사회적 관계로 확장되는 시기로 청소년의 사회적 자원인 또래로 대부분 대치된다. 따라서 중학생

자녀는 부모와의 관계가 친밀할수록, 그리고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또래 관계의 질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김세연, 정신섭, 2017).

따라서, 이 시기 자녀를 둔 부모는 자녀를 억압하거나 통제적이기보다 온정적이고 명확한 기준과 규칙을 제공하며, 자녀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을 선택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자녀가 보다 건전하고 건강한 또래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긍정적 양육태도는 청소년 자녀의 자기조절 능력을 개발하여 많은 심리적 문제를 예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최주혜, 2018), 청소년 자녀와 부모 간에 발생하는 갈등 해소에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부모의 기준을 강요하고 억압하며 일관되지 않은 태도로 대할 때 자녀의 발달을 저해할 수 있으며(Skinner & Wellborn, 1994), 이러한 부모양육태도는 청소년의 행복감을 저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자녀의 심리·사회적 발달을 돕는 양육태도로 부모가 자녀에게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적절한 기준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강조된다(Soenens & Vansteenkiste, 2010).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긍정심리학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예측력을 검증하였다. 우리나라 청소년의 낮은 행복감은 한국의 독특한 입시문화와 높은 관련이 있으며,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학업과 입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행복감은 더욱 낮아짐을 경험하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에서 긍정적 요인을 강화하고 계발함으로써 청소년의 행복감을 증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통해 본 연구는 청소년이 부모의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태도를 인식하고, 또래관계에서 유능성을 경험하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몰두하는 경험을 통해 자신의 행복감을 증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행복의 핵심은 쾌락의 빈도가 행복을 결정적으로 좌우하며(Diener, Sandvik, & Pavot, 1991), 부정적 정서에 비해 긍정적 정서 경험을 강화할 때 행복감이 높아짐을 주장한 기존의 연구 결과(한지연, 2021; 함영란, 2023)를 지지한다.

둘째, 본 연구는 자기결정성 이론을 기반으로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고, 연구 결과를 토대로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기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른 적절한 양육태도를 취할 때, 자녀의 자율적인 동기를 유발하고 증진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이에 본 연구는 부모의 온정적이고 지지적인 방식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을 확인하여, 자녀의 자율성, 유능성, 관계성의 욕구 충족을 위해 온정적이고 지지적이며, 체계적인 양육태도가 요구된다는

Deci & Ryan(2000)의 연구 결과를 지지한다.

셋째, 본 연구는 부모 그릇이 세대 간 이전을 통하여 청소년 그릇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행동이 사회 환경적 요인인 가정, 또래, 학교와 미디어에 의해 행위를 학습하게 된다는 사회학습이론을 지지한다(오미영, 2008; 이고은, 정세훈, 2014). 한편, 그릇의 하위 요인인 부모의 흥미 유지와 노력 지속은 자녀 그릇을 지속해서 촉진한다는 연구(강보은, 2022) 결과를 지지한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 결과를 통해 부모 그릇은 청소년에게 사회학습이론에 근거하여 모델링 하게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행복감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정책적·제도적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하다. 부모는 가장 일차적이며 직접적으로 청소년의 성장과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발달 환경이다. 신체적·심리적·환경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안정적인 부모와의 관계는 심리·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하고 나아가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경험할 수 있게 하는 기반이 된다. 이에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함양하기 위한 부모 상담과 교육 프로그램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내의 학부모지원센터가 설립되어 교육부의 방침에 따라 다양한 교육과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나 대부분 일회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한복희, 정민자, 2018). 또한 자녀와 관계 회복에 어려움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떻게 도움을 구해야 할지 모르는 부모가 많다는 점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의 제공이 요구된다. 또한 맞벌이 부부가 증가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관련 교육과 상담을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제공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가 요구되며, 사회적 차원에서도 자녀를 위한 상담 참여시 배려할 수 있는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다.

둘째,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청소년 그릇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중학생이 되면서부터 입시 중심의 학업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한 학업 소진 등으로 행복감이 낮아진다(김환철, 2020). 그러나 그릇은 학업성취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의 공통적 요인으로(이선형, 문수백, 2020), 자아 정체감의 형성과 진로에 대해 고민하고 탐색하는 청소년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 증진해야 하는 필수 역량이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가정에서 부모는 청소년 그릇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작은 일들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명확한 지침 및 정보를 제공하고, 지지적 태도로 청소년이 스스로 자기 일을 선택하고 수행하는 기회

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Duckworth, 2016). 이를 통해 청소년은 성취감을 경험하게 되며, 자율적으로 목표를 추구하는 동기가 발생하여(이선형, 문수백, 2017), 결과적으로 그것이 향상될 수 있다.

한편, 학교에서는 청소년 그릇을 향상하는 방안으로 청소년이 관심을 갖고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과제들을 부여하고, 과제를 수행하면서 얻게 되는 만족감과 즐거움 등의 내재적 동기를 강화할 수 있는 학습 방법이 시도될 필요가 있다. Duckworth(2016)는 학생들의 그릇은 교내 특별활동의 참여와 높은 관련이 있고, 청소년 그릇을 기르기 위한 방법으로 교내 특별활동을 제안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과제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폭넓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에서는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에게 지지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수련원 등 지역사회 안에 있는 기관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들이 또래 친구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의 강점을 찾고 자신의 미래를 향한 도전을 할 기회를 기관이나 단체에서 제공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그릇이 효과적으로 증진될 것이다.

셋째, 청소년의 또래관계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어 청소년이 또래관계를 증진하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기반을 마련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초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중학교 시기는 또래와의 친밀감의 욕구가 특히 높아지는 시기이며(Sullivan, 1953), 전 생애 중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또래관계가 형성되는 시기이다. 청소년 초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분리되어 학교라는 사회적 공간에서 청소년은 더 이상 무조건적인 애정이 없음을 깨달으면서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 또한, 사춘기로 인해 멀어질 수 있는 가족 간의 관계를 보완해 주는 독특한 애착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특히, 부모가 억압적이고 폐쇄적일 때 청소년은 반사회적이고 부정적인 또래관계를 맺기 쉽다(구본용 외, 1999).

더불어 우리나라의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는 또래 관계를 경쟁적으로 인식하게 될 위험이 높다는 점에서, 학교 교육은 보다 협동적이고 참여적으로 운영되어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자연스럽게 또래와의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청소년들이 자신의 유능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내 멘토-멘티 활동, 청소년의 소질과 흥미를 고려한 동아리 활동, 자율적인 학생 자치활동 등을 활성화하여 또래와 활발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어야 한다.

하버드대가 진행한 ‘행복의 조건’을 찾는 연구 프로젝트(Waldinger & Schulz,

2023)에 따르면,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가?’보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좋은 삶으로 만드는가?’에 집중할 때 우리는 더욱 행복할 수 있다. 즉, 행복에는 친밀한 인간 관계가 필요하며, ‘관계’는 행복의 필요조건이라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의 행복감 증진을 위해 우선 청소년은 자신의 강점을 알고 자신의 성장과 발달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으며, 부모는 개인적 차원에서는 자신의 그림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청소년 자녀가 부모를 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양육태도에 있어서는 온정적이며 지지적 양육태도로 청소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부모-자녀 관계 회복이나 행복 증진 프로그램 등이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3. 제언

본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의 4차 연도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의 대상을 중학교 1학년 학생만으로 한정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참고하여 중학생 전체를 연구 대상으로 확장하여 보다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변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였다는 한계로 인해 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분석한다면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보다 풍부한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논의에서 확인한 부모 그릇에 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여 실증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부모 그릇은 대상자의 행복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상반된 연구 결과도 존재하므로 추후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명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행복감과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를 측정하였으며, 실제 부모양육태도보다 자녀가 지각하는 양육태도가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Schaefer, 1993). 또한, 부모와 자녀를 동시에 조사하여 수집한 자료를 일대일로 매칭하여 연구하였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와 차별된다. 더불어, 부모 그릇이 세대 간 이전을 통하여 청소년 그릇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쳐 부정적 또래관계에 의존하게 되거나 폭력이나 미디어 중독과 같은 일탈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행복감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인인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의 중요성을 새롭게 재조명해 봄으로써 두 요인의 효과를 증진할 수 있는 다학제적 접근과 가정,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구체적인 실천적 개입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을 가진다.

참 고 문 헌

- 강금주. (2019). **아동용 행복신념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강문선, 양수진. (2019). 대학생의 부모애착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조화·강박열정과 그릿 (Grit)의 매개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2(2), 79-101. <https://doi.org/10.35574/KJDP.2019.06.32.2.79>
- 강보은. (2021). 부모 그릿이 자녀의 협동심에 미치는 영향: 자녀 그릿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31(3), 409-435.
DOI : 10.21024/pnuedi.31.3.202109.409
- 강보은. (2022). **부모 그릿이 양육태도를 매개로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관계 분석**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 강보은. (2022). 부모 그릿이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 분석 : 부모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35(1), 31-56.
<http://dx.doi.org/10.29096/JEE.35.1.02>
- 강선모. (2021). 어머니의 주관적 안녕감과 초등학생 자녀의 그릿의 관계. **상담심리교육복지**, 8(6), 243-261. <http://dx.doi.org/10.20496/cpew.2021.8.6.243>
- 강수현. (2019). 어머니의 온정적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아 존중감 및 학교적응의 매개효과: 초등학교 1학년 중심으로.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3(2), 165-194. DOI : 10.22590/ecee.2019.23.2.165
- 강영하. (2012). 초등학생의 학교 행복감 구성요인 탐색. **초등상담연구**, 11(2), 219-235.
<https://scienceon.kisti.re.kr/commons/util/originalView.do?cn=JAKO201229665548317&oCn=JAKO201229665548317&dbt=JAKO&journal=NJOU00403793>
- 강인경, 김춘경. (2016). 청소년의 또래애착이 삶의 만족도를 매개로 자기조절학습능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교육심리연구**, 30(2), 411-428.
<http://dx.doi.org/10.17286/KJEP.2016.30.2.06>
- 고도현, 김상미. (2021). 청소년 도박의 국내 연구동향 분석.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22(1), 660-671. <https://doi.org/10.5762/KAIS.2021.22.1.660>
- 고영남. (2008). 중학생의 부 애착, 모 애착, 또래 애착 및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열**

- 린교육연구, 16(2), 111-131. UCI : G704-001282.2008.16.2.002
- 고혜영. (2012).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을 매개로 한 부모양육태도와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곽수란, 송미옥, 김영호. (2021). 부모의 자존감과 행복감이 아동·청소년기 자녀의 자존감과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보건의료 및 생명과학연구**, 9(1), 11-25.
DOI : 10.22961/JHCLS.2021.9.1.11
- 곽수란. (2007). 초·중학생의 생활만족도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17(1), 1-21.
DOI : 10.32465/ksocio.2007.17.1.001
- 구본용, 김택호, 김인규. (1999). 청소년의 또래관계.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36), 4-172.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22701485>
- 구재선, 서은국. (2011). 한국인, 누가 언제 행복한가?. **한국심리학회지**, 25(2), 143-166.
DOI : 10.21193/kjspp.2011.25.2.008
- 권미나, 이진숙. (2015).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과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행복감과의 관계. **아동과 권리**, 19(4), 589-610.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50025363776>
- 권석만. (2008). **긍정심리학: 행복의 과학적 탐구**. 학지사.
- 권석만. (2008). 왜 긍정의 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가?. **한국인간발달학회 학술대회지**, (4), 1-13.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50025378633>
- 권석만. (2015). 긍정심리학의 이해와 준적용 방안. **대한군상담학회 학술대회지**, 1, 1-49.
- 권유정, 임지영, 최유석. (2022).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협동역량과 또래관계의 순차적 매개효과.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7(1), 33-56.
DOI : 10.21321/jfr.27.1.33
- 김가연, 박정윤. (2023). 청소년 자녀를 둔 한부모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개인적 자원과 가족자원을 중심으로. **가족자원경영과 정책**, 27(2), 49-62.
<http://dx.doi.org/10.22626/jkfrma.2023.27.2.004>
- 김갑순, 박윤조. (2016). 어머니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어머니와 자녀의 상호작용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육학회지**, 16(3), 27-44.
<http://dx.doi.org/10.21213/kjcec.2016.16.3.27>
- 김경미, 염유식. (2018). 청소년의 매체중독과 주관적 행복 - 성별에 따른 신체활동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보건과 사회과학**, 48, 121-142.
KMID : 0904520180480010121

- 김경민. (2021). 어머니의 창의성과 청소년의 창의성 관계: 긍정적 양육태도로 조절된 그릿의 매개효과. **창의력교육연구**, 21(2), 47-62.
DOI : 10.36358/JCE.2021.21.2.47
- 김경심, 이수경. (2022).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에 대한 잠재집단 분류: 집단별 영향요인과 집단에 따른 정서·행동문제, 삶의 만족도 차이. **청소년시설환경**, 20(4), 3-16. DOI : 10.55063/KIYFE.2022.20.4.1
- 김계숙. (1992). **인간 성장 발달과 건강**. 신광출판사.
- 김근혜. (2019). 부모의 행복감과 양육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16, 1-20. DOI : 10.37918/kce.2019.05.116.1
- 김나영, 조유진. (2009). 대학생의 거부민감성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기개념의 매개 효과. **인간발달연구**, 16(3), 149-162.
UCI : G704-000726.2009.16.3.012
- 김남경. (2019). **초등학생의 직업가치관과 사회적지지, 부모양육태도 및 자기효능감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남희. (2011). **기본심리욕구와 수업참여를 매개로 한 학생-교사애착관계와 학업성취 간 관계: 교사지지와 학생-교사애착관계의 의미와 역할의 차이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대학원].
- 김대웅. (2023). **학령 중기 아동의 외로움**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도희. (2022). 부모의 행복과 자녀의 행복의 관계에서 긍정적 양육태도, 자아존중감, 우울의 매개효과. **디지털융복합연구**, 20(3), 469-479.
DOI : 10.14400/JDC.2022.20.3.469
- 김명숙. (2008). **어머니의 양육태도, 유아의 기질, 정서지능과 유아의 사회성간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 김명숙. (2019). 부모의 구조 제공이 중학생 자녀의 자율적 동기와 학업적 자기조절 효능감을 매개로 학업참여에 미치는 영향: 부모의 자율성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教育心理研究**, 33(1), 27-50. DOI : 10.17286/KJEP.2019.33.1.02
- 김명화, 김혜진, 최재혁. (2022).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태도와 청소년 행복감의 관계에서 주의집중과 그릿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1), 17-32.
DOI : 10.22251/jlcci.2022.22.11.17
- 김미숙, 이성희, 백선희, & 최예슬. (2015). 초·중·고 학생의 그릿(Grit)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인 및 성별·학년별 특성.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5(5), 297-322. UCI : G704-001586.2015.15.5.009
- 김민정. (2019). 청소년 문제행동과 부정적 또래관계의 상호영향관계: 부모양육태도

- 수준에 따른 다집단 분석. **미래사회복지연구**, 10(1), 107-138.
DOI : 10.22836/kaswpr.2019.10.1.107
- 김셋별. (2019).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학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5), 1101-1121.
DOI : 10.22251/jlcci.2019.19.15.1101
- 김서연. (2018).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 학교 및 지역사회 사회자본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김선영. (2007). **부모의 양육태도와 초등학교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선희. (2022). 영유아 부모양육태도 관련 변인 메타분석: 보호요인을 중심으로. **한국유아교육학회**, 42(4), 121-146. DOI : 10.18023/kjece.2022.42.4.005
- 김성철. (2019). **일터 내 그릿의 효과성**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세연, 정신섭. (2017). 중학생의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 및 친밀감이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경영연구**, 4(2), 61-76.
UCI I410-ECN-0102-2018-300-003921859
- 김순혜. (2010). 청소년의 자존감 결정요인: 자기-역량지각과 사회적 지지의 영향. **인간발달연구**, 17, 1-18. UCI : G704-000726.2010.17.4.009
- 김시연. (2014). **유아교사의 행복감, 교직에 대한 열정, 직무만족도, 교사효능감 및 교사-유아 상호작용 간의 구조분석** [박사학위논문, 광주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 김영숙. (201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또래애착 및 학교생활적응의 종단적 구조관계** [박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 김영우, 김종두. (2016).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중학생 진로교육의 효과와 문제점.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0(6), 313-321.
DOI : 10.21184/jkeia.2016.12.10.6.313
- 김유현, 강옥려. (2019).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행복을 예측하는 개인, 가족, 학교, 지역아동센터 요인 탐색. **한국초등교육**, 30(1), 191-204.
DOI : 10.20972/kjee.30.1.201903.191
- 김윤덕. (2023).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학업성취도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호남대학교대학원].
- 김은주. (2007). 부모청소년관계와 자기결정성 요인들이 대학신입생들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21(3), 539-555.
- 김은혜, 김민정. (2020). 부모의 부정적 양육행동이 대학생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 영향: 그릿 및 학업적응을 매개로. **청소년학연구**, 27(5), 405-431.
DOI : 10.21509/KJYS.2020.05.27.5.405
- 김주리, 김남희. (2014). 어머니의 행복감 및 양육행동과 유아의 행복감 간 관계. **생애학회지**, 4(1), 19-32. UCI : G704-SER000003485.2014.4.1.005
- 김주환. (2013). **GRIT**. 쌤앤파커스.
- 김지혜. (2022).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 그릿과 우울을 매개로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8(2), 45-78.
<https://doi.org/10.37342/swpp.2022.8.2.45>
- 김진구, 박다은. (2017). 지능에 대한 암묵적 신념과 학업성취의 관계에서 투지의 매개효과. **교육심리연구**, 31(1), 145-162. DOI : 10.17286/KJEP.2017.31.1.07
- 김진미. (2019). 초등학생의 행복감 영향요인 분석. **교육연구논총**, 40(3), 161-180.
DOI : 10.18612/cnujes.2019.40.3.161
- 김진아. (2020). 청소년 초기의 그릿 (Grit) 발달의 영향요인과 결과요인 검증. **청소년학연구**, 27(11), 93-116. DOI : 10.21509/KJYS.2020.11.27.11.93
- 김청송. (2009). 청소년의 행복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4(3), 649-665. DOI : 10.17315/kjhp.2009.14.3.011
- 김태길. (1996). 과학 기술의 발달과 가치관의 빈곤. **철학과 현실**, 185-190.
- 김태명, 이은주. (2017). 지각된 부모의 자기통제력과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적응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31(1), 141. DOI : 10.17286/KJEP.2017.31.1.06
- 김태명, 이은주. (2017). 한국판 청소년용 동기모형 부모양육태도척도(PSCQ_KA)의 타당화. **청소년학연구**, 24(3), 313-333.
DOI : 10.21509/KJYS.2017.03.24.3.313
- 김하람. (2021).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교사관계, 또래관계 및 학업열의의 구조적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 김하영, 강한솔, 한윤선. (2018). 초기 청소년의 기본심리욕구 잠재유형과 진로성숙도의 관계에서 자기결정성 동기의 매개효과 검증. **진로교육연구**, 31(4), 21-41.
DOI : 10.32341/JCER.2018.12.31.4.21
- 김환철. (2020). **초기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변인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김희명, 황매향. (2015). 한국판 아동용 끈기 (Grit) 척도의 타당화.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연구원 교육논총**, 35(3), 63-74. DOI : 10.25020/je.2015.35.3.63
- 나중혜. (2022). 자녀의 발달단계에 맞는 새로운 부모역할 제안: 변화하는 부모역할 개념과 수행을 중심으로. **한국생활과학회지**, 14(3), 411-421.

UCI : G704-001335.2005.14.3.014

남궁지영, 김양분. (2015). 초등학생의 학교생활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학생 및 학교 변인 탐색. **教育學研究**, 53(2), 1-25. UCI : G704-000614.2015.53.2.012

남명희, 박응임. (2017). 의미치료 집단상담 프로그램이 중학생의 삶의 목적수준, 자아존중감 및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효과. **아동학회지**, 38(1), 5-15.

UCI : G704-000080.2017.38.1.005

남상인. (198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자녀의 인지양식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도인종, 이양희. (2008). 초등학생의 낙관적 설명양식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생활과학**, 11, 97-109. UCI I410-ECN-0102-2009-300-008940675

류승우, 신윤정. (2021). 지역아동센터 이용 중학교 1학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 체계적 요인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4), 417-446. <http://dx.doi.org/10.22251/jlcci.2021.21.4.417>

마틴 셀리그만. (2009). **긍정심리학** (김인자 옮김). 물푸레.

명수정. (2011). **중학생의 행복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학업 성취 및 낙관성의 효과**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모화숙, 문화진. (2022).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업열의 간 관계에서 그릿과 창의적 성향의 매개효과 분석. **교육문화연구**, 28(4), 329-352.

DOI : 10.24159/joec.2022.28.4.329

문공주, 함은혜. (2016). 고등학생의 투지, 흥미, 과제집착력, 자기조절능력 및 과학학업성취의 관계 분석. **한국과학교육학회지**, 36(3), 445-455.

DOI : 10.14697/jkase.2016.36.3.0445

문상석, 염유식. (2010). 학벌과 불행: 한국청소년의 주관적 행복도. **현대사회와 문화**, 31, 73-102. UCI I410-ECN-0102-2012-360-002334323

문선모, 윤기수. (1984). **중학생의 배경적 특성에 따른 학교적응**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문예은, 이주연. (2021). 아동의 행복감에 대한 부모양육태도 및 부모와 대화시간의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7(1), 85-104.

DOI : 10.14698/jkcce.2021.17.01.085

미스라이. (2006). **행복: 기쁨에 대한 소고** (김영선 옮김). 동문선.

박경희, 윤미선. (2021).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의 자아존중감 및 행복감과 자녀의 학업열의 간의 관계: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 (APIM)의 적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3), 927-940.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3.927>

- 박균달, 윤종진. (2019). 초등학교 4~ 6 학년생이 인식한 부모양육태도가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경영연구**, 6(1), 1-13.
UCI I410-ECN-0102-2019-300-001177986
- 박미라. (2017).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공주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 박민정. (2012). 교육과정 실행경험에 대한 초등 교사들의 내러티브 분석. **교육과정연구**, 30(3), 247-270. DOI : 10.15708/kscs.30.3.201209.011
- 박상미, 박응임. (2020). 부모애착이 남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Grit)의 매개효과. **가정과 삶의 질연구**, 38(2), 29-49.
DOI : 10.7466/JKHMA.2020.38.2.29
- 박상미. (2019). **부모애착과 그릿(grit)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대학원].
- 박선의. (2016).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자녀 웰빙과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 박선희. (2021). 긍정적 부모양육태도, 친구관계, 스마트폰의존, 자아존중감이 청소년의 학교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효과. **청소년복지연구**, 23(1), 131-156. DOI : 10.19034/KAYW.2021.23.1.06
- 박성연, 이숙. (1990). 어머니의 양육행동 척도 표준화를 위한 예비 연구.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28(1), 141-156.
UCI I410-ECN-0102-2009-590-007105069
- 박소연, 신민진, 곽진영. (2021). 초등학교 고학년이 지각한 부모의 자율성 지지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릿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미술심리치료연구**, 1(1), 69-84. DOI 10.54071/APS.1.1.4
- 박영숙. (2022). 비행 경험 청소년의 강요적 양육태도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우울의 매개효과. **교정복지연구**, 80(76), 55-79.
<http://doi.org/10.35422/cwsk.2022.80.55>
- 박영준, 이정숙. (2016).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차별경험, 행복감 및 자아존중감과 인과관계연구.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0(1), 31-52.
UCI : G704-002073.2016.20.1.007
- 박은민, 백서희. (2017).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 양육행동과 행복의 관계에서 낙관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8(4), 149-166.
DOI : 10.15703/kjc.18.4.201708.149
- 박재홍, 김성환. (2011). 청소년기 뇌 발달과 인지, 행동 특성. **생물치료정신의학**,

- 17(1), 11-20. UCI : G704-001697.2011.17.1.010
- 박주희, 이은혜. (2001). 아동의 또래 유능성에 관련된 어머니의 양육목표, 양육행동 및 또래관계 관리전략. **아동학회지**, 22(4), 1-15.
- 박진홍, 서현아, 김수진. (2018). 예비유아교사의 그릿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서 여가만족의 매개효과. **생태유아교육연구**, 17(3), 105-126.
DOI : 10.30761/ecoece.2018.17.3.105
- 박춘희. (2018). **긍정심리 집단미술치료가 들봄 교실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사이버대학교 휴먼케어대학원].
- 박희연, 김진아, 한귀례. (201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방식이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놀이치료학회**, 17(3), 345-362.
UCI : G704-SER000000779.2014.17.3.004
- 배문주. (2004). **부모양육태도 및 양육태도 일치에 따른 유아의 정서지능**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배성만, 홍지영, 현명호. (2015). 청소년 또래관계 질 척도의 타당화 연구. **청소년학연구**, 22(5), 325-344. UCI : G704-000387.2015.22.5.004
- 배성만. (2014). 중학생의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친구관계 만족도가 휴대폰 중독적 사용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학회**, 21(11), 271-290.
UCI : G704-000387.2014.21.11.011
- 배주영, 도현심, 이선희, 신정희. (2015).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래와의 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가 학령 후기 아동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36(6), 59-83. DOI : 10.5723/KJCS.2015.36.6.59
- 백소영, 이준우, 임수정. (2018).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위험요인의 영향에서 보호요인인 또래요인의 조절효과와 매개효과 검증. **청소년복지연구**, 20(4), 109-136. DOI : 10.19034/KAYW.2018.20.4.05
- 백승희, 전현정, 이정민, 정혜원. (2019). 모와 자녀가 지각한 우울, 자아존중감, 주관적 삶의 만족도 간의 종단적 관계: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한 행위자 상대자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사회과학연구**, 30(2), 93-118.
DOI : 10.16881/jss.2019.04.30.2.93
- 빌렌브룩. (2007). **행복 경제학** (배인섭 옮김). 미래의 창.
- 서석남, 이상구, 임상호. (2012). 청소년이 느끼는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가 자기효능감, 스트레스, 우울,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디지털융복합연구**, 10(8), 327-333. UCI : G704-002010.2012.10.8.014
- 서선숙, 백진아. (2020).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

- 는 영향: 자아 존중감의 매개효과. **교육문화연구**, 26(4), 497-512.
 UCI I410-ECN-0102-2021-300-001211644
- 서선숙. (2018).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및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대학원].
- 서은국. (2014). **행복의 기원**. 21세기북스.
- 서장원, 권석만. (2015). **고통 감내력과 심리장애: 경험적 연구 개관**.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4(2), 397-427. UCI : G704-001037.2015.34.2.004
- 서재욱, 정운태. (2014). **개인능력, 가족환경, 학교환경 변인이 청소년의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력 비교**. **청소년학연구**, 2(8), 265-292.
 UCI : G704-000387.2014.21.8.023
- 서주현, 유안진. (2001).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과 친구관계의 특성**. **아동학회지**, 22(4), 149-166.
- 서현, 조다혜, 박미자. (2018). **자녀의 행복과 부모역할에 대한 탐색**. **유아교육연구**, 38(2), 205-232. DOI : 10.18023/kjece.2018.38.2.008
- 서현원, 이선영, 임혜정. (2021). **부모 자녀 대화시간이 자녀의 그릿(Grit)에 미치는 영향: 비일관적 양육태도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교육논총**, 41(3), 123-143.
 DOI : 10.25020/je.2021.41.3.123
- 성정혜. (2021). **청소년의 창의적 성격특성 관련 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 교과교육연구**, 21(13), 335-347.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13.335>
- 손경원. (2017). **행복과 괴롭힘 친화도의 관계에서 인성의 매개 및 조절 효과**. **윤리연구**, 115, 191-225. DOI : 10.15801/je.1.115.201709.191
- 송경오. (2011). **학생 개인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특성 탐색**. **한국교육**, 38(4), 39-64. DOI : 10.22804/jke.2011.38.4.002
- 송미라, 한기백. (2015). **과학고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4), 93-111. UCI : G704-000387.2015.22.4.005
- 송수정. (2022).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공격성이 친구관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2), 113-124.
 DOI : 10.22251/jlcci.2022.22.22.113
- 송원숙, 심재웅. (2018). **부모와 자녀 의사소통이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3), 857-879. DOI : 10.22251/jlcci.2018.18.3.857

- 신 민, 안도희. (2015). 영재와 평재 고등학생들의 성공에 대한 인식, Grit, 열망 및 성취목적 비교. **영재교육연구**, 25(4), 607-628.
<http://dx.doi.org/10.9722/JGTE.2015.25.4.607>
- 신성희. (2023).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주관적 행복감의 관계에 관한 중단 연구** [박사 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 안다휘, 이희승. (2017). 반복된 실패 상황에서 끈기 (Grit), 낙관성, 정서 및 인지 반응 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및성격**, 31(4), 79-102.
 DOI : 10.21193/kjspp.2017.31.4.004
- 안수영, 이형실. (2009). 남녀 청소년의 또래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과 교육학회지**, 21(3), 163-176. UCI : G704-000502.2009.21.3.002
- 안영미, 김미혜, 정익중. (2022). 부모양육태도가 중학생의 스마트폰 의존에 미치는 영향: 그릿과 학업무기력의 이중매개효과 및 성별 비교. **사회복지연구**, 53(3), 269-297. DOI : 10.16999/kasws.2022.53.3.269
- 안지영, 이은경, 김지신. (2021).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태도가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협동심, 또래관계의 순차적 다중매개효과. **한국가족복지학**, 26(2), 73-94. <https://doi.org/10.13049/kfwa.2021.26.2.4>
- 양수연, 오인수. (2023). 청소년 행복감의 변화궤적에 대한 그릿, 학업열의, 부모양육태도의 영향. **Global Creative Leader**, 13(3), 23-52.
 DOI : 10.34226/gcl.2023.13.3.23
- 양수연. (2023). **청소년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양육태도, 그릿, 학업열의 사이의 중단적 관계**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양영옥, 이지연. (2022). 초기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 자기자비의 이중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5), 281-295. DOI : 10.22251/jlcci.2022.22.5.281
- 양옥경. (1994). 삶의 만족 측정을 위한 척도 개발.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24, 157-198.
- 엄태순, 윤미선. (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그릿, 학습된 무기력의 관계: 학업 성취 수준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 1151-1176. DOI : 10.22251/jlcci.2020.20.2.1151
- 에드워드 L. 데시, 리처드 플래스트. (2011). **마음의 작동법** (이상원 옮김). 에코의 서재.
- 여성가족부. (2021). 2021. 가족실태조사. http://www.mogef.go.kr/mp/pcd/mp_pcd
 2022. 08. 18 인출.

- 여은실. (2009). 자기결정이론의 무동기 개념의 타당성 탐색: 동기에 관여하는 목표와 과제가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연은모, 최효식. (2020). 가족기능의 변화 양상에 따른 자녀의 자아존중감, 문제행동 차이.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1(10), 84-93.
DOI : 10.5762/KAIS.2020.21.10.84
- 연은모, 최효식. (2022). 부모의 양육스타일, 학업성취압력이 초등학생의 학교적응 및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4), 313-328. DOI : 10.22251/jlcci.2022.22.14.313
- 오미영. (2008). 언어 폭력 확산과 미디어: 공격성에 대한 사회 학습 이론과 점화 효과를 중심으로. **현상과 인식**, 32(3), 54-72.
UCI : G704-001417.2008.32.3.003
- 오인수, 반지윤. (2019). 초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일상생활 스트레스의 매개를 통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학생-교사 애착 수준에 따른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혁신연구**, 29(2), 69-93. DOI : 10.21024/pnuedi.29.2.201906.69
- 우성현, 안도희. (2022). 대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행복감의 관계에서 그릿과 우울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4), 67-83.
DOI : 10.22251/jlcci.2022.22.24.67
- 우영지, 이기학. (2007). 지각된 부모양육태도와 대학생의 진로태도성숙과의 관계: 사회적으로 부과된 완벽주의와 자기제시동기를 매개로.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4), 1023-1039. UCI : G704-000523.2007.19.4.015
- 원영숙. (2009). 어머니의 낙관성과 양육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 유계환, 최희정. (2021). 초등학교 4학년이 지각한 부모의 강요, 자율성 지지가 학업 열의에 미치는 영향: 스마트폰 의존의 매개효과. **아동교육**, 30(3), 109-129.
<http://dx.doi.org/10.17643/KJCE.2021.30.3.06>
- 유민상. (2016).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유설희, 박보경, 도현심. (2015). 학령 후기 아동의 또래관계 및 자아존중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 **아동학회지**, 36(2), 55-74.
DOI : 10.5723/KJCS.2015.36.2.55
- 유성경, 김유진. (2015). 삶의 의미추구와 주관적,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의미발견 및 기본심리욕구 충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2), 53-75.
DOI : 10.15703/kjc.16.2.201504.53

- 유아미, 이경화. (2022). 부모행복감 검사도구 개발 및 타당화. **열린부모교육연구**, 14(4), 1-23. DOI : 10.36431/JPE.14.4.1
- 유아미. (2021). 부모 행복감 구성요인 도출의 탐색 연구. **Global Creative Leader**, 11(2), 79-110. DOI : 10.34226/gcl.2021.11.2.79
- 유영란, 유지원, 박현경. (2015). 고등학생의 그릿(Grit)과 객관적 추론, 자기조절학습 효능감 간의 관계규명. **청소년학연구**, 22(10), 367-385.
UCI : G704-000387.2015.22.10.012
- 유영숙, 하창순. (2016).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자녀 행동 통제와 자기통제의 관계에서 공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7(2), 197-216.
DOI : 10.15703/kjc.17.2.201604.197
- 유지혜, 한재희. (2009).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사회적 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실업계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한국기독교상담학회지**, 18, 121-140.
UCI : G704-001813.2009.18..012
- 유지혜. (2007).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지각된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상담대학원].
- 유진희, 김진숙. (2018). 부모효율성훈련이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10(1), 51-65.
- 유혜경. (2014). **청소년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모형 분석** [박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 윤기봉. (2020). 어머니의 끈기가 청소년의 끈기에 미치는 영향: 부모 자녀 간 대화시간을 통한 양육태도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8(2), 15-28.
DOI : 10.7466/JKHMA.2020.38.2.15
- 윤미리, 이현정, 홍세희. (2020). 어머니와 자녀의 그릿(Grit)과 행복감,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 행위자-상대자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教育問題研究**, 33(3), 1-24.
- 윤상천, 최선영. (2017). 초등 과학영재와 일반학생의 그릿 (Grit) 과 학업적 실패내성 및 심리적 안녕감과 비교. **초등과학교육**, 36(4), 439-446.
DOI : 10.15267/keses.2017.36.4.439
- 윤소민. (2022). 남녀 초등학생의 발달환경 요인이 그릿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청소년 패널(2018)을 바탕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21), 907-923.
DOI : 10.22251/jlcci.2022.22.21.907
- 윤옥희. (2023). **부모 그릿 측정도구 개발 및 타당화**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윤재희, 김선희, 한진주, 영남대학교 산학협력단. (2021).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육 실태와 개선방안 연구**. 국가인권위원회.
- 이경남. (2021). 아동의 자아존중감, 미디어기기 중독과 학교적응 및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4), 925-949.
<http://dx.doi.org/10.22251/jlcci.2021.21.4.925>
- 이경민, 이난, 양경화. (2018). 초등학생의 이타성과 행복감의 관계. **복지상담교육연구**, 7(2), 189-216. DOI : 10.20497/jwce.2018.7.2.189
- 이고은, 정세훈. (2014). 청소년의 사이버 폭력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계획된 행동이론과 사회학습이론을 적용하여.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31(2), 129-162. UCI : G704-001789.2014.31.2.004
- 이도연. (2018). **공군병사의 사회적 지지와 자아존중감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 이미라, 전향신. (2020). 부모양육태도(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 제공), 그릇, 학업열의, 학업성취도와의 구조적 관계: 학교급에 따른 다집단 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14), 779-805. DOI : 10.22251/jlcci.2020.20.14.779
- 이미영. (2020). 부모양육태도가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64, 116-135.
 DOI : 10.17854/ffyc.2020.10.64.115
- 이서연, 서현아. (2019). 실외놀이에서 나타난 보육교사의 그릇과 행복감이 교사-영유아의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14), 181-202.
 DOI : 10.22251/jlcci.2019.19.14.181
- 이서희, 김기민. (2019). 초등학생의 부모양육태도, 학교적응, 자기효능감과 행복감 간의 구조적 관계 연구.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0), 921-945.
 DOI : 10.22251/jlcci.2019.19.20.921
- 이선주, 임효진. (2018).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자존감의 관계에서 학교급에 따른 또래애착의 조절효과. **한국초등교육**, 29(3), 1-18.
 DOI : 10.20972/kjee.29.3.201809.1
- 이선형, 문수백. (2017). 학령기 아동의 회복탄력성과 정서조절, 기본심리욕구, 회복탄력성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생활과학회지**, 26(3), 199-212.
 DOI : 10.5934/kjhe.2017.26.3.199
- 이선형, 문수백. (2020).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교사지지, 아동의 기본심리욕구, 성장 마인드셋과 그릇 간의 인과적 관계 분석. **가정과삶의질연구**, 38(3), 35-52.
 DOI : 10.7466/JKHMA.2020.38.3.35

- 이선형, 최자은. (2019). 학령기 아동의 그릿, 성장 마인드 셋, 기본심리욕구,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 간의 관계 구조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7(3), 155-168.
DOI : 10.7466/JKHMA.2019.37.3.155
- 이선형. (2020). **학령기 아동의 그릿과 관련 변인들 간의 관계 구조분석** [박사학위논문,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 이수란, 손영우. (2013). 무엇이 뛰어난 학업성취를 예측하는가?: 신중하게 계획된 연습과 끈기(Grit).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3), 349-366.
DOI : 10.16983/kjsp.2013.10.3.349
- 이수진, 정익중. (2020). 청소년의 일상생활과 행복 간의 관계: 빈곤과 비빈곤 청소년의 비교. **학교사회복지**, 49, 175-200. DOI : 10.20993/jSSW.49.8
- 이 숙, 박성연. (1988).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및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아동학회지**, 9(2), 61-94.
- 이승진, 최려나, 정익중. (2022). 부모양육태도가 그릿(Grit)을 매개로 청소년의 학업 성적 및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성별차이. **청소년복지연구**, 24(1), 117-143. <http://dx.doi.org/10.19034/KAYW.2022.24.1.06>
- 이영주. (2007). **부모의 하나님 개념과 신앙생활 및 양육태도가 유아의 하나님 개념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원례, 한천우. (2022). 중학생이 지각한 긍정적 부모양육태도와 자아존중감의 관계에서 학업열의와 그릿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9(9), 53-81.
DOI : 10.21509/KJYS.2022.09.29.9.53
- 이은경, 한세영. (2016). 부모의 애정과 감독 및 비일관적 양육행동이 아동과 청소년의 정서문제에 미치는 영향. **인간발달연구**, 23(3), 153-172.
DOI : 10.15284/kjhd.2016.23.3.153
- 이은서, 정혜원. (2022).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친구관계, 교사관계가 그릿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4), 855-870. DOI : 10.22251/jlcci.2022.22.4.855
- 이은혜, 김정윤, 오원정. (2001). 아동의 또래지위 및 친구관계와 학교적응의 관계. **아동학회지**, 22(1), 1-18.
- 이은화, 이경우. (1985). **부모교육 입문**. 창지사.
- 이재경, 조혜정. (2012). 학령기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종단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40), 41-71. UCI : G704-000946.2012..40.004
- 이정림, 권대훈. (2016). 통제소재, 마인드셋, 그릿, 학업성취 간의 구조적 관계 분석. **청소년학연구**, 23(11), 245-264. DOI : 10.21509/KJYS.2016.11.23.11.245

- 이정림, 최지은, 이민경, 강은진, 이예진, 송신영, ... 홍수종. (2015). 한국아동패널 2008-2014 자료 심층 분석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 이정숙, 명신영. (2007). 청소년의 휴대폰 사용실태 및 휴대폰 중독 정도에 따른 또래 관계의 질, 학교생활 부적응에 대한 연구. **가정과삶의질연구**, 25(4), 67-86.
UCI : G704-000320.2007.25.4.003
- 이종일, 송수길, 윤창영. (1998). ‘아버지의 양육태도척도’개발에 관한 예비연구. **소아청소년정신의학**, 9(1), 34-46.
- 이주리. (1994). 아동의 역량지각과 관련변인들간의 인과모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4), 193-208.
- 이주연, 문예은. (2021). 유아의 사회도덕성에 대한 유아 연령 및 아버지 양육참여의 영향. **한국보육지원학회**, 17(5), 63-82.
DOI : 10.14698/jkcce.2021.17.05.063
- 이주연, 한세영. (2021). 부와 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감도 및 청소년의 성에 따른 청소년 자녀의 행복감. **한국생활과학회지**, 30(1), 63-77.
DOI : 10.5934/kjhe.2021.30.1.63
- 이진솔. (2007). **부모양육태도에 따른 여중생의 관계적 공격성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해순. (2023).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이 분노 표현방식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 이현정, 전주성. (2021).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 및 교사관계와 그릿의 이중매개효과. **영재와 영재교육**, 20(4), 35-56.
DOI : 10.17839/jksgr.2021.20.4.35
- 이형실. (2015). 부모의 양육행동이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7(4), 109-119.
DOI : 10.19031/jkheea.2015.12.27.4.109
- 이혜원, 최진수, 이수란. (2021). 아버지 그릿이 여고생 자녀 그릿에 미치는 영향: 자녀 성장 마인드셋을 통한 아버지 놀이참여의 조절된 매개 효과 검증. **한국가족관계학회지**, 25(4), 3-20. DOI : 10.21321/jfr.25.4.3
- 이희길. (2008). 자기통제력의 세대 간 전이 과정에 대한 연구. **사회이론**, (33), 165-202. UCI : G704-001341.2008..33.007
- 임민옥. (2020). **다문화 가정 부모양육태도가 유아의 사회적응에 미치는 영향** [박사학위논문, 칼빈대학교 대학원].
- 임선영. (2015). PTGI 영적 변화 요인 (spiritual change) 의 심리측정적 이질성: 성

- 장애 대한 인식과 종교 변인에 따른 비교. **인지행동치료**, 15(2), 377-400.
 UCI : G704-SER000008935.2015.15.2.008
- 임양미. (2021). 부모의 긍정적 양육행동이 중학생의 협동역량에 미치는 영향: 또래관계 및 그릿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2(1), 62-74.
<https://doi.org/10.5723/kjcs.2021.42.1.61>
- 임은숙, 정민자. (2023). 초등 4학년 학생들의 부모행복감이 자녀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부모양육태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융합기술연구학회**, 9(12), 315-330. <http://dx.doi.org/10.47116/apjcri.2023.12.26>
- 임정자. (2022). **사이버비행경험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의 거부적·비일관적 양육태도가 학업무기력에 미치는 영향: 행복감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서울한영대학교 대학원].
- 임혜림, 김서현, 정익중. (2018). 가정 및 학교 내 대인관계와 아동의 행복감 간 구조적 관계: 학교급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70(2), 145-170.
 DOI : 10.20970/kasw.2018.70.2.006
- 임효진, 하혜숙. (2017). 원격대학 여성 성인학습자들의 끈기 (Grit) 와 목표인식, 학업-가정갈등 및 사회적 지지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교육심리연구**, 31(1), 59-81. DOI : 10.17286/KJEP.2017.31.1.03
- 임효진, 하혜숙, 황매향. (2016). 초등학생의 끈기 (Grit), 자기효능감, 성취목표, 학업적 자기조절의 구조적 관계. **교육과학연구**, 47(3), 43-65.
 DOI : 10.15854/jes.2016.09.47.3.43
- 임효진. (2018). 그릿, 내-외재가치, 수업참여, 인지조절과 학업성취의 구조적 관계. **The SNU Journal of Education Research**, 27(3), 235-256.
- 임효진. (2019). 그릿 개념의 재정립: 목적, 열정, 인내의 재검토. **教育心理研究**, 33(3), 317-339. DOI : 10.17286/KJEP.2019.33.3.01
- 임효진. (2021). 그릿과 학업열의의 유형 및 자존감의 예측력. **教育學研究**, 59(1), 79-104. <http://dx.doi.org/10.30916/KERA.59.1.79>
- 장경문. (2007). 아동이 지각하는 부/모의 심리적 통제와 아동의 내외향적 성격특성에 따른 자기결정성 및 학업성적의 차이. **초등교육연구**, 20(1), 165-180.
 UCI : G704-000649.2007.20.1.004
- 장영애, 김상림. (2016). 아버지의 양육참여도 및 양육행동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7(2), 265-280.
<http://dx.doi.org/10.7856/kjcls.2016.27.2.265>
- 장인실, 장석진. (2012).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태도와 또래관계에서 자기

- 효능감의 매개효과 분석. **청소년학연구**, 19(6), 291-313.
 UCI : G704-000387.2012.19.6.016
- 전미경, 장재숙. (2009). 아동의 행복감 발달에 대한 종단적 연구. **대한가정학회**, 47(3), 103-118. UCI : G704-000012.2009.47.3.008
- 전향신, 박분희. (2020). 어머니그릿, 자녀그릿, 학업열의와 학업무기력 간의 구조적 관계: 성별에 따른 다집단 분석. **청소년학연구**, 27(8), 329-355.
 DOI : 10.21509/KJYS.2020.08.27.8.329
- 정계숙, 최은실. (2012). 사회인구학적, 심리적, 관계적 요인이 영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7(5), 143-163.
 UCI : G704-000666.2012.17.5.027
- 정교영, 신희천. (2011). 자기결정이론을 근거로 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검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23(3), 603-634.
 UCI : G704-000523.2011.23.3.006
- 정교영, 신희천. (2011). 한국판 부모 양육행동 척도(Korean-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 K-PSCQ) 의 타당화. **상담학연구**, 12(4), 1287-1305.
 DOI : 10.15703/kjc.12.4.201108.1287
- 정미애, 김효진. (2022). 부모의 공동양육 정도, 부모의 행복감, 부부갈등이 유아기 자녀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논집**, 26(2), 205-227.
 DOI : 10.32349/ECERR.2022.4.26.2.205
- 정복자, 박은아. (2016). 부모양육태도, 또래관계의 질과 휴대폰 사용행동의 관계: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연구**, 1, 53-73.
<https://www.earticle.net/Article/A291571>
- 정선아. (2021).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양육태도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 또래관계와 진로태도성숙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 정성원, 장유나, 홍세희. (2021). 부모의 긍정적 양육태도와 자녀의 학업 무기력의 관계: 자녀의 삶의 만족도와 그릿의 순차적 매개효과 검증. **한국교육학연구**, 27(3), 205-229. DOI : 10.29318/KER.27.3.8
- 정연자. (2023). **중년 여성의 개인 심리적 요인과 행복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정우정. (2020). **유아교사의 그릿과 교사 효능감이 유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원식. (1991). **아동의 창의성 요인과 가정의 심리적 과정 환경 변인간의 관계 연구** [석사학위논문,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 정은선, 조한익. (2009). 부모양육태도가 주관적 행복감과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강
인성의 매개역할. **한국심리학회지**, 21(1), 209-227.
UCI : G704-000523.2009.21.1.003
- 정이나. (2015). **초등학생이 인식하는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분석** [박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정익중, 이수진, 정수정, 유다영. (2021). **2021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아동행복지수**.
아동복지연구소 보고서 2021. 4, 1-196.
- 정정자. (2020). **청소년의 심리적 가정환경과 주관적 행복감과의 관계에서 자아정체
성, 자아탄력성, 자아효능감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순복음대학원대학교].
- 정혜식, 권지성, 정선욱, 김성아, 전영섭, 권석만, 김석호, 신혜란, 이봉주, 채수홍, 홍
석철, 구서정, 진예린, 유지수. (2019). **한국인의 행복과 삶의 질에 관한 종합
연구-국제 비교 질적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정혜원, 박소영. (2020). 청소년 그릇 및 행복감에 대한 잠재프로파일 분류와 개인,
부모, 친구, 교사요인 영향 검증. **중등교육연구**, 68(1), 135-167.
- 정혜원, 김예림, 박소영. (2020). 초·중학생의 그릇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탐색: 별점
화 회귀모형 적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8), 673-693.
DOI : 10.22251/jlcci.2020.20.8.673
- 조규영, 김승윤. (2021).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가 자녀 및 부모의 삶의 만족도
에 미치는 영향에서 그릇 및 또래관계의 이중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8(1),
23-47. DOI : 10.21509/KJYS.2021.01.28.1.23
- 조대웅. (2008). **돈을새김 푸른책장 시리즈 12. 니코마코스 윤리학**. 돈을새김.
- 조부월. (2017). 어머니의 정서지능 및 행복감과 유아의 자아탄력성과의 관계. **미래유
아교육학회**, 24(1), 91-115. DOI : 10.22155/JFECE.24.1.91.115
- 조성희, 김희수. (2016). 초등 고학년 아동의 자아존중감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
향: 또래애착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6(5),
355-376. UCI : G704-001586.2016.16.5.018
- 조수진. (2017). **중학생이 인식한 부모의 사회적 지지가 행복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
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 조은혜, 송주연, 이우걸. (2022). 부모 자율성 지지와 구조 제공의 상호작용이 중학생
의 내적통제신념, 삶의 만족도,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교육방법연구**, 34
(1), 167-185. <http://dx.doi.org/10.17927/tkjems.2022.34.1.167>
- 조정숙, 박경애. (2021). 중학생이 지각한 부정적 부모양육태도와 공격성의 관계 : 사
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상담심리교육복지**, 8(1), 25-40.

DOI : 10.20496/cpew.2021.8.1.25

- 지선례. (2018). 저소득가정 아동의 부모의 애정적 양육태도, 친구지지, 교사지지와 아동의 행복감간의 관계에서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9(2), 207-219. DOI : 10.7856/kjcls.2018.29.2.207
- 진병주, 정혜원. (2020). 청소년의 부모양육태도, 친구 및 교사관계가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그릿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5), 141-165. DOI : 10.22251/jlcci.2020.20.5.141
- 채구묵. (2018). **SPSS와 AMOS를 이용한 고급통계학 (2판)**. 양서원.
- 채서일. (2003). **사회과학조사방법론**. 학현사.
- 천수혜. (2008). **청소년의 여가활동과 또래애착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최성광. (2014). **농촌 소규모 초등학교 공간의 특수성 연구**. 초등학교문화연구소 발표자료, 미발행 자료.
- 최아론, 이영순. (2015). 어머니의 행복감과 초등학생 자녀의 행복감 관계에서 자녀의 생활스트레스,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1), 337-351.
DOI : 10.15703/kjc.16.1.201502.337
- 최애리. (2022).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박사학위논문, 배재대학교 대학원].
- 최예라. (2022). **어머니의 그릿과 아동의 문제행동: 양육행동과 아동의 그릿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정윤, 임효진. (2021).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학업탄력성을 예측하는 요인: 그릿과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1), 921-950.
DOI : 10.22251/jlcci.2021.21.1.921
- 최정화, 김정화. (2021). 아동권리를 존중하는 어머니의 양육 행동이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과 권리**, 25(4), 511-530.
<http://doi.org/10.21459/kccr.2021.25.4.511>
- 최주혜. (2018). 청소년들의 자기 조절 능력 발달을 위한 제안 : 뇌 발달을 중심으로. **신학과 실천**, 61, 331-356. DOI : 10.14387/jkspth.2018.61.331
- 최지은, 신용주. (2003).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 또래 관계, 교사와의 관계가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1(2), 199-210.
UCI : G704-000012.2003.41.2.009
- 최진희. (2010). **중학생 자녀가 지각한 부모양육태도와 또래관계의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해훈. (2015). **애착의 세대 간 전이에서 어머니 반영 기능의 매개효과**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최현철, 엄우용. (2020).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양육태도, 자기결정성동기, 정서지능, 자기조절학습 간의 구조적 관계. **아동교육**, 29(1), 91-113.
DOI : 10.17643/KJCE.2020.29.1.05
- 최혜정, 김형관, 김진희. (2017). 농촌지역 거주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복지상담교육연구**, 6(1), 331-351.
DOI : 10.20497/jwce.2017.6.1.331
- 최효선, 양수진. (2018). 고등학생의 여가활동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에서 그릿과 긍정심리자본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31(2), 105-123.
DOI : 10.35574/KJDP.2018.06.31.2.105
- 통계청. (2021). **인구주택총조사**. <http://www.kostat.go.kr/> 2022.08.20. 인출.
- 통계청. (2022). **국민 삶의 질 조사**. <http://www.kostat.go.kr/> 2022.08.20. 인출.
- 하문선. (2020). 청소년과 어머니의 자아존중감, 그릿 및 삶의 만족 간 관계: 자기-상대방 상호의존모형(APIM)의 적용.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0(24), 1297-1323.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24.1297>
- 하상희, 정혜정. (2008). 원가족 건강성과 자기분화의 세대 간 전이. **상담학연구**, 9(2), 789-806. DOI : 10.15703/kjc.9.2.200806.789
- 하형석, 이종원, 정은진, 김성은, 한지형, 구분호. (2018).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사업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1-344.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23).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8(KCYPS 2018) 유저 가이드**.
-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21). **한국어린이·청소년 행복지수 국제비교연구조사 결과보고서**.
https://kossda.snu.ac.kr/bitstream/20.500.12236/25322/4/kor_report_20210010.pdf
- 한보현. (2017). **아동이 지각한 가족건강성과 학교행복감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석사학위논문,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한복희, 정민자. (2018). 언어네트워크를 활용한 학부모교육 프로그램 동향 분석-17개 시도교육청 사업을 중심으로-. **人間發達研究**, 25(4), 175-194.
DOI : 10.15284/kjhd.2018.25.4.175
- 한세영, 유설희. (2019). 청소년의 중간체계환경이 주관적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 소속감의 매개적 역할을 중심으로. **인간발달연구**, 26(1), 69-89.

DOI : 10.15284/kjhd.2018.26.1.69

한수연, 박용한. (2018). 중학생의 그릿 변화와 관련된 가정·학교 환경요인 탐색. **열린교육연구**, 26(4), 175-201. DOI : 10.18230/tjye.2018.26.4.175

한영숙. (2020). 어머니와 아버지의 온정적 양육과 아동의 주관적 행복감 간의 종단적 관계 : 아동의 친사회적 행동과 또래관계의 역할. **아동학회지**, 41(3), 13-23. DOI : 10.5723/kjcs.2020.41.3.13

한정옥, 박선미. (2018). 중학생이 인지한 부모 지지와 학업성취압력이 그릿 (Grit)에 미치는 영향.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8(20), 165-182. DOI : 10.22251/jlcci.2018.18.20.165

한정원. (1997). **정서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중혜. (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자녀의 인성과의 관계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한지숙. (2011). 저소득가정 아동의 행복감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내적 변인 탐색. **人間發達研究**, 18(3), 1-18. UCI : G704-000726.2011.18.3.006

한지연. (2021). 부모-자녀의 행복 수준과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요인 분석.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67, 86-107. DOI : 10.17854/ffyc.2021.07.67.85

한혜원, 이정민. (2021). 초등학교 전문상담교사가 인식한 코로나19에 따른 학생들의 어려움과 비대면 상담 장벽에 관한 탐색적 연구. **교사교육연구**, 60(1), 51-66. DOI : 10.15812/ter.60.1.202103.51

함영난, 박분희. (2021). 부모양육태도가 협동의식과 학업활동을 매개하여 청소년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성별 간 다집단분석. **한국청소년연구**, 32(2), 301-328. DOI : 10.14816/sky.2021.32.2.301

함영란. (2023). 부모와 자녀의 행복감과 그릿, 학업무기력, 학업열의, 학업성취 간 관계: 성별간 다집단분석.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3(9), 587-605. DOI : 10.22251/jlcci.2023.23.9.587

함정숙. (1981). **父母의 養育態度에 대한 兒童의 知覺과 情意的 및 認知的 特性과의 關係** [석사학위논문, 淸州大學校 敎育대학원].

허 은. (2021). 부모의 긍정적·부정적 양육태도가 아동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행복감 및 사회적 위축의 매개효과.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1(21), 793-809. <https://doi.org/10.22251/jlcci.2021.21.21.793>

허묘연. (2004).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행동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2(2), 170-189. UCI : G704-000485.2004.12.2.011

- 허영주. (2023).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태도와 중학생 창의적 성격의 종단적 관계에서 그릿의 매개효과 : 성별 차이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9(2), 429-451. DOI : 10.24159/joec.2023.29.2.429
- 형영옥. (2017). 초기청소년의 부모애착, 정서지능, 사회기술, 또래관계 간의 구조적 관계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홍봉선. (2018). 부모의 과잉간섭이 자녀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과 자아탄력성의 매개효과. **사회복지정책과 실천**, 4(2), 81-117.
- 홍은비, 노성향. (2022). 부모양육태도가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의 행복감에 미치는 영향: 아동 그릿(Grit)의 매개효과. **한국영유아보육학**, 134, 57-80. DOI : 10.37918/kce.2022.5.134.57
- 홍주영, 도현심. (2002). 부부갈등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청소년의 또래관계간의 관계. **가정과삶의질연구**, 20(5), 125-136. UCI : G704-000320.2002.20.5.006
- 황용재, 김창겸. (2020). 부모 그릿이 자녀의 그릿에 미치는 영향 -자율성 지지와 강요에 의한 다중매개효과-. **미래청소년학회지**, 17(4), 27-47. DOI : 10.34244/JFOYS.2020.17.4.27
- 황정우. (2011). **정신장애인의 행복감 영향요인 연구** [박사학위논문, 숭실대학교 대학원].
- 황창순. (2006). 초기 청소년기의 부모 및 또래애착과 애착의 변화. **한국청소년연구**, 17(1), 201-225. UCI : G704-001385.2006.17.1.006
- Andrews, F. M., Withey, S. B., Andrews, F. M., & Withey, S. B. (1976). Measuring global well-being. *Social Indicators of Well-Being: Americans' Perceptions of Life Quality*, 63-106. https://doi.org/10.1007/978-1-4684-2253-5_3
- Ainsworth, M. D. S. (1989). Attachments beyond infancy. *American Psychologist*, 44(4), 709-716. <https://doi.org/10.1037/0003-066X.44.4.709>
- Allaman, J. D., Joyce, C. S., & Crandall, V. C. (1972). The antecedents of social desirability response tendencies of children and young adults. *Child Development*, 43(4), 1135-1160. <https://doi.org/10.2307/1127504>
- Allen, J. P., & Land, D. (1999). Attachment in adolescence. In J. Cassidy & P. R. Shaver (Eds.), **Handbook of attachment: Theory, research, and clinical applications** (pp. 319-335). The Guilford Press.
- Aparicio, M., Bacao, F., & Oliveira, T. (2017). Grit in the path to e-learning success. *Computers in Human Behavior*, 66, 388-399. <https://doi.org/10.1016/j.chb.2016.10.009>

- Argyle, M., & Crossland, J. (1987). The dimensions of positive emotions.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6*(2), 127–137.
<https://doi.org/10.1111/j.2044-8309.1987.tb00773.x>
- Armsden, G. C., & Greenberg, M. T. (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dividual difference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4. <https://doi.org/10.1007/BF02202939>
- Austin, J. T., & Vancouver, J. B. (1996). Goal constructs in psychology: Structure, process, and content. *Psychological bulletin, 120*(3), 338–375.
<https://doi.org/10.1037/0033-2909.120.3.338>
- Baard, P. P., Deci, E. L., & Ryan, R. M. (2004). Intrinsic need satisfaction: A motivational basis of performance and well-being in two work setting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34*(10), 2045–2068.
<https://doi.org/10.1111/j.1559-1816.2004.tb02690.x>
- Baldwin, A. L., Kalhorn, J., & Breese, F. H. (1949). The appraisal of parent behavior. *Psychological Monographs: General and Applied, 63*(4), i–85.
<https://doi.org/10.1037/h0093577>
- Barber, B. K. (1996).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Revisiting a neglected construct. *Child Development, 67*(6), 3296–3319.
<https://doi.org/10.1111/j.1467-8624.1996.tb01915.x>
- Barnow, S., Lucht, M., & Freyberger, H. J. (2005). Correlates of aggressive and delinquent conduct problems in adolescence. *Aggressive Behavior: Official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Research on Aggression, 31*(1), 24–39. <https://doi.org/10.1002/ab.20033>
- Batool, S. S., & Lewis, C. A. (2020). Does positive parenting predict pro-social behavior and friendship quality among adolescents? Emotional intelligence as a mediator. *Current Psychology, 41*, 1997–2011.
<https://doi.org/10.1007/s12144-020-00719-y>
- Baumgardner Steve, R., & Crothers Marie, K. (2009). *Positive Psychology*. (first edition). India: dorling Kindersley,. pearson education.
- Baumrind, D. (1967). Child care practices anteceding three patterns of preschool behavior. *Genetic Psychology Monographs, 75*(1), 43–88.
 PMID: 6032134

- Baumrind, D. (1971). Current patterns of parental autho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4(1, Pt.2), 1-103. <https://doi.org/10.1037/h0030372>
- Baumrind, D. (1976). Nature and definition of informed consent in research involving deception. *The 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of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 Washington DC: Department of Health, Education, and Welfare.
- Baumrind, D. (1991). The influence of parenting style on adolescent competence and substance us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1(1), 56-95. <https://doi.org/10.1177/02724316911111004>
- Becker, W. C. (1964). Consequence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Vol 1)*. N.Y.: Russel Sage Foundation.
- Belsky, J., Gilstrap, B., & Rovine, M. (1984). The Pennsylvania infant and familydevelopment project: I. Stability and change in mother- infant and father -infant interaction in a family setting at one, three, and nine months. *Child Development*, 55(3), 692-705. <https://doi.org/10.2307/1130122>
- Berndt, T. J. (1982). The features and effects of friendship in early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53(6), 1447-1460. <https://doi.org/10.2307/1130071>
- Berndt, T. J. (2002). Friendship quality and social development.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11(1), 7-10. <https://doi.org/10.2307/1130071>
- Berndt, T. J., & Perry, T. B. (1990). Distinctive feature and effects of early adolescent Friendships. In R. Montemayor, G. R. Adams, & T. P. Gullotta (Eds.), *From childhood to adolescence: A transitional period?* (pp. 269-287). Sage Publications, Inc.
- Biddulph, S. (2005). 아이에게 행복을 주는 비결 1 [The Secret of Happy Children1]. (전순영 역). 상담학연구. 북하우스(원전은 1984에 출판).
- Bishop, D. V. M., Snowling, M. J., Thompson, P. A., Greenhalgh, T., & and the CATALISE-2 consortium (2017). Phase 2 of CATALISE: a multinational and multidisciplinary Delphi consensus study of problems with language development: Terminolog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and allied disciplines*, 58(10), 1068-1080.

<https://doi.org/10.1111/jcpp.12721>

- Blos, P. (1979). *The adolescent passage: Developmental issues*.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Boden, J. M., Fergusson, D. M., & Horwood, L. J. (2007). Self-esteem and violence: Testing links between adolescent self-esteem and later hostility and violent behavior.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2*(11), 881-891. DOI: 10.1007/s00127-007-0251-7
- Bohman, J. H., Hiley, D. R., & Shusterman, R. (1991). *The Interpretive turn : philosophy, science, cultur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Bolger, K. E., Patterson, C. J., & Kupersmidt, J. B. (1998). Peer relationships and self-esteem among children who have been maltreated. *Child development*, *69*(4), 1171-1197. PMID: 9768492
- Bollmer, J. M., Milich, R., Harris, M. J., & Maras, M. A. (2005). A friend in need: The role of friendship quality as a protective factor in peer victimization and bullying.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0*(6), 701-712. <https://doi.org/10.1177/0886260504272897>
- Bowen, M. (1976). Theory in the practice of psychotherapy. In Guerin, P. J.(Ed.). *Family Therapy*. New York: Gardner Press.
- Bowlby, J. (1982). Attachment and loss: retrospect and prospect.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52*(4), 664-678.
<https://doi.org/10.1111/j.1939-0025.1982.tb01456.x>
- Bowlby, J. (1988). Developmental psychiatry comes of age.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5*(1), 1-10. <https://doi.org/10.1176/ajp.145.1.1>
- Bricker, J. B., Peterson Jr, A. V., Sarason, I. G., Andersen, M. R., & Rajan, K. B. (2007). Changes in the influence of parents' and close friends' smoking on adolescent smoking transitions. *Addictive behaviors*, *32*(4), 740-757.
<https://doi.org/10.1016/j.addbeh.2006.06.020>
- Bronfenbrenner, U. (1976). The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History and perspectives. *Psychologia Wychowawcza*, *19*(5), 537-549.
- Bronfenbrenner, U. (1977).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2*(7), 513-531.
<https://doi.org/10.1037/0003-066X.32.7.513>
- Bronfenbrenner, U., & Morris, P. A. (2006). *The Bioecological Model of Human*

- Development*. In R. M. Lerner & W. Damon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 (pp. 793–828). John Wiley & Sons, Inc..
- Brunstein, J. C. (1993). Personal goals and subjective well-being: A longitudinal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5), 1061–1070. <https://doi.org/10.1037/0022-3514.65.5.1061>
- Brunstein, J. C., Schultheiss, O. C., & Grässman, R. (1998). Personal goals and emotional well-being: The moderating role of motive disposi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2), 494–508. <https://doi.org/10.1037/0022-3514.75.2.494>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Russell Sage Foundation.
- Casey, B. J., Tottenham, N., Liston, C., & Durston, S. (2005). Imaging the developing brain: What have we learned about cognitive development?. *Trends in Cognitive Science, 9*(3), 104–110. <https://doi.org/10.1016/j.tics.2005.01.011>
- Caskey, M. M., & Anfara, V. A., Jr. (2007). Research summary: Young adolescents' developmental characteristics. Retrieved 6/14/2013, from <http://www.nmsa.org/Research/ResearchSummaries/DevelopmentalCharacteristics/tabid/1414/Default.aspx>
- Claes, M., Lacourse, E., Ercolani, A.-P., Pierro, A., Leone, L., & Presaghi, F. (2005). Parenting, peer orientation, drug use, and antisocial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A cross-national study.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5), 401–411. <https://doi.org/10.1007/s10964-005-7258-8>
- Coleman, J. S. (1961) *The adolescent society: The social life of the teenager and its impact on education*. New York:Free Press of Glencoe.
- Connell, J. P., & Wellborn, J. G. (1991). Competence, autonomy, and relatedness: A motivational analysis of self-system processes. In M. R. Gunnar & L. A. Sroufe (Eds.), *Self processes and development.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23* (pp. 43–77).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https://psycnet.apa.org/record/1991-97029-002>
- Corsano, P., Majorano, M., & Champretavy, L. (2006).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the contribution of interpersonal relations and experience of being alone. *Adolescence*, *41*(162), 341–353.

PMID: 16981621

Covay, E., & Carbonaro, W. (2010). After the bell: Participation in extracurricular activities, classroom behavior, and academic achievement. *Sociology of Education*, *83*(1), 20–45.

<https://doi.org/10.1177/0038040709356565>

Credé, M., Tynan, M. C., & Harms, P. D. (2017). Much ado about grit: A meta-analytic synthesis of the grit litera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13*(3), 492–511. <https://doi.org/10.1037/pspp0000102>

Csikszentmihalyi, M., Rathunde, K., & Whalen, S.(1993). *Talented teenagers: The roots of success and failur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Cunsolo, S. (2017). Subjective wellbeing during adolescence: A literature review on key factors relating to adolescent's subjective wellbeing and education outcomes. *Studi sulla formazione*, *20*(1), 81–94.

https://doi.org/10.13128/Studi_Formaz-20941

Dahlsgaard, K., Peterson, C., & Seligman, M. E. (2005). Shared virtue: The convergence of valued human strengths across culture and history. *Review of general psychology*, *9*(3), 203–213.

<https://doi.org/10.1037/1089-2680.9.3.203>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https://doi.org/10.1037/0033-2909.113.3.487>

Deci, E. L. & Ryan. R. M.(1985). The general causality orientations scale: Self-determination in personality.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9*(2), 109–134. [https://doi.org/10.1016/0092-6566\(85\)90023-6](https://doi.org/10.1016/0092-6566(85)90023-6)

Deci, E. L., & Ryan, R. M.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ew York: Plenum Press.

<http://dx.doi.org/10.1007/978-1-4899-2271-7>

Deci, E. L., & Ryan, R. M. (2000). The "what" and "why" of goal pursuits: Human needs and the self-determination of behavior. *Psychological Inquiry*, *11*(4), 227–268. https://doi.org/10.1207/S15327965PLI1104_01

Deci, E. L., & Ryan, R. M. (2012). *Motivation, personality, and development*

- within embedded social contexts: An overview of self-determination theory.* In R. M. Ryan (Ed.), *Oxford handbook of human motivation* (pp. 85–107). Oxford, UK: Oxford University Press.
- Deci, E. L., & Ryan, R. M. (2012). Self-determination theory. *Handbook of theories of social psychology, 1*(20), 416–437.
<https://doi.org/10.4135/9781446249215>
- Deci, E. L., & Ryan, R. M. (Eds.). (2002). *Handbook of self-determination research*. New York: University of Rochester Press.
- Deci, E. L., Eghrari, H., Patrick, B. C., & Leone, D. R. (1994). Facilitating internalization: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62*(1), 119–142.
<https://doi.org/10.1111/j.1467-6494.1994.tb00797.x>
- Deković, M., & Janssens, J. M. (1992). Parents' child-rearing style and child's sociometric status. *Developmental Psychology, 28*(5), 925–932.
<https://doi.org/10.1037/0012-1649.28.5.925>
- Diener, E. (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https://doi.org/10.1037/0033-2909.95.3.542>
- Diener, E. (1995). A value based index for measuring national quality of life. *Social indicators research, 36*(2), 107–127.
<https://doi.org/10.1007/BF01079721>
- Diener, E. (1996). Traits can be powerful, but are not enough: Lessons from subjective well-being.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30*(3), 389–399.
<https://doi.org/10.1006/jrpe.1996.0027>
- Diener, E. (2000).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55*(1), 34–43.
<https://doi.org/10.1037/0003-066X.55.1.34>
- Diener, E., & Biswas-Diener, R. (2002). Will money increase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57*(2), 119–169.
<https://doi.org/10.1023/A:1014411319119>
- Diener, E., & Emmons, R. A. (1984). The independenc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5), 1105–1117. <https://doi.org/10.1037/0022-3514.47.5.1105>
- Diener, E., & Seligman, M. E. P. (2002). Very happy people. *Psychological*

- Science*, *13*(1), 81–84. <https://doi.org/10.1111/1467-9280.00415>
- Diener, E., Sandvik, E., Pavot, W., & Gallagher, D. (1991). Response artifacts in the measurement of subjective well-being.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1), 35–56. <https://doi.org/10.1007/BF00292649>
- Diener, E., Wirtz, D., Biswas-Diener, R., Tov, W., Kim-Prieto, C., Choi, D.-w., & Oishi, S. (2009). New measures of well-being. In E. Diener (Ed.), *Assessing well-being: The collected works of Ed Diener* (pp. 247–266). https://doi.org/10.1007/978-90-481-2354-4_12
- Diener, M. L., & Lucas, R. E. (2004). Adult's desires for children's emotions across 48 countries: Associations with individual and national characteristic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35*(5), 525–547. <https://doi.org/10.1177/0022022104268387>
- Douvan, E. A., & Adelson, J. (1966). *The Adolescent Experience*. New York: John Wiley.
- Duckworth, A. L. (2006). *Intelligence is not enough: Non-IQ predictors of achievemen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Pennsylvania. UMI 3211063
- Duckworth, A. L. (2016). *Grit: The power of passion and perseverance*.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Duckworth, A. L., & Quinn, P. D. (200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91*(2), 166–174. <https://doi.org/10.1080/00223890802634290>
- Duckworth, A. L., Kirby, T. A., Tsukayama, E., Berstein, H., & Ericsson, K. A. (2011). Deliberate practice spells success: Why grittier competitors triumph at the National Spelling Be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2*(2), 174–181. <https://doi.org/10.1177/1948550610385872>
- Duckworth, A. L., Peterson, C., Matthews, M. D., & Kelly, D. R.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6), 1087–1101. <https://doi.org/10.1037/0022-3514.92.6.1087>
- Duckworth, A. L., Quinn, P. D., & Seligman, M. E. P. (2009). Positive predictors of teacher effectivenes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 4(6), 540-547. <https://doi.org/10.1080/17439760903157232>
- Erikson E. H. (1963). *Youth: change and challenge*. New York: Basic Books.
- Erikson, E. H. (1963). *Childhood and society* (2nd Ed.). New York: Norton.
- Erikson, E.H. (1964) *Insight and Responsibility*. New York: Norton.
- Erwin, P. (2001).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친구관계*(박영신 역). 시그마프레스(1998년 원저발간).
- Eskreis-Winkler, L., Shulman, E. P., Beal, S. A., & Duckworth, A. L. (2014). The grit effect: predicting retention in the military, the workplace, school and marriage. *Frontiers in psychology, 5*(36), 1-12. <https://doi.org/10.3389/fpsyg.2014.00036>
- Farkas, M. S., & Grolnick, W. S. (2010). Examining the components and concomitants of parental structure in the academic domain. *Motivation and Emotion, 34*(3), 266-279. <https://doi.org/10.1007/s11031-010-9176-7>
- Fingerman, K. L., Cheng, Y. P., Birditt, K., & Zarit, S. (2012). Only as happy as the least happy child: multiple grown children's problems and successes and middle-aged parents' well-being.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s, 67*(2), 184-193. <https://doi.org/10.1093/geronb/gbr086>
- Fishbein, M., & Ajzen, I. (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Fordyce, M. W. (1988). A review of research on the happiness measures: A sixty second index of happiness and mental health. *Social indicators research, 20*(4), 355-381. <https://doi.org/10.1007/BF00302333>
- Furnham, A., & Cheng, H. (2000). Perceived parental behaviour, self-esteem and happines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The International Journal for Research in Social and Genetic Epidemiology and Mental Health Services, 35*(10), 463-470. <https://doi.org/10.1007/s001270050265>
- Gallagher, B., & Cartwright-Hatton, S. (2008).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factors and trait anxiety: Mediating role of cognitive errors and metacognition. *Journal of Anxiety Disorders, 22*(4), 722-733. <https://doi.org/10.1016/j.janxdis.2007.07.006>
- Gilman, R., & Huebner, S. (2003). A review of life satisfaction research with

- children and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8*(2), 192–205.
<https://doi.org/10.1521/scpq.18.2.192.21858>
- Gorrese, A., & Ruggieri, R. (2012). Peer attachment: a meta-analytic review of gender and age differences and associations with parent attachmen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1*(5), 650–672.
<https://doi.org/10.1007/s10964-012-9759-6>
- Grolnick, W. S. & Ryan, R. M. (1989). Parent styles associated with children's self-regulation and competence in school.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1*(2), 143–154. <https://doi.org/10.1037/0022-0663.81.2.143>
- Grolnick, W. S., Deci, E. L., & Ryan, R. M. (1997). Internalization within the family: The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In J. E. Grusec & L. Kuczynski (Eds.), *Parenting and children's internalization of values: A handbook of contemporary theory* (pp. 135–161). John Wiley & Sons Inc.
- Grolnick, W. S., Gurland, S. T., DeCoursey, W., & Jacob, K. (2002).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mothers' autonomy support: An experimental investig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38*(1), 143–155.
<https://doi.org/10.1037/0012-1649.38.1.143>
- Gross, M. W., & Siperstein, G. N. (1997).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in the adjustment of children with learning problems. *Exceptional Children*, *63*(2), 183–203. <https://doi.org/10.1177/001440299706300203>
- Guttman, L. (1954). Some necessary conditions for common-factor analysis. *Psychometrika*, *19*(2), 149–161. <https://doi.org/10.1007/BF02289162>
- Haerpfer, C., Inglehart, R., Moreno, A., Welzel, C., Kizilova, K., Diez-Medrano J., M. Lagos, P. Norris, E. Ponarin & B. Puranen (eds.). 2022. *World Values Survey: Round Seven* – Country-Pooled Datafile Version 5.0. Madrid, Spain & Vienna, Austria: JD Systems Institute & WWSA Secretariat.
[doi:10.14281/18241.20](https://doi.org/10.14281/18241.20)
- Hardy, S. A., Pratt, M. W., Pancer, S. M., Olsen, J. A., & Lawford, H. L. (2011). Community and religious involvement as contexts of identity change across late adolescence and emerging adulthoo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35*(2), 125–135.
<https://doi.org/10.1177/0165025410375920>
- Hartup, W. W. (1983). Peer relationship. In E. M. Hetherington (Ed.),

-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4: Socialization, personality, and social development* (pp. 103–196). New York: Wiley.
- Hartup, W. W., & Moore, S. G. (1990). Early peer relations: Developmental significance and prognostic implications. *Early Childhood Research Quarterly, 5*(1), 1–17. [https://doi.org/10.1016/0885-2006\(90\)90002-I](https://doi.org/10.1016/0885-2006(90)90002-I)
- Hartup, W. W., Laursen, B., Stewart, M. I., & Eastenson, A. (1988). Conflict and the Friendship Relations of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59*(6), 1590–1600. <https://doi.org/10.2307/1130673>
- Havewala, M. C. (2012). *The effects of perceived parenting styles on psychopathology, attachment, self esteem and grit in American and Indian student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merican University, Washington DC. Corpus ID: 55137922
- Hayes, A. F. (2018). Partial, conditional, and moderated moderated mediation: Quantification, inference, and interpretation. *Communication monographs, 85*(1), 4–40. <https://doi.org/10.1080/03637751.2017.1352100>
- Hayes, Andrew F. (2009). Beyond Baron and Kenny: Statistical Mediation Analysis in the New Millennium. *Communication Monographs, 76*(4), 408–420. doi:10.1080/03637750903310360
- Heckman, J. J. (2006). Skill formation and the economics of investing in disadvantaged children. *Science, 312*(5782), 1900–1902.
DOI: 10.1126/science.1128898
- Heckman, J. J., & Rubinstein, Y. (2001). The importance of noncognitive skills: Lessons from the GED testing program. *American economic review, 91*(2), 145–149. DOI: 10.1257/aer.91.2.145
- Heckman, J. J., Moon, S. H., Pinto, R., Savelyev, P. A., & Yavitz, A. (2010). The rate of return to the High/Scope Perry Preschool Program. *Journal of public Economics, 94*(1–2), 114–128.
doi: 10.1016/j.jpubeco.2009.11.001
- Henricsson, L., & Rydell, A. M. (2006). Children with behaviour problems: The influence of social competence and social relations on problem stability, school achievement and peer acceptance across the first six years of school. *Infant and child development, 15*(4), 347–366.
<https://doi.org/10.1002/icd.448>

- Howard, J. M., Nicholson, B. C., & Chesnut, S. R. (2019). Relationships between positive parenting, overparenting, grit, and academic succes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60*(2), 189–202.
<https://doi.org/10.1353/csd.2019.0018>
- Hurlock, E. B. (1978). *Child development (6th ed.)*. New York, NY: McGraw Hill.
- J. Bowlby. (1988). *A Secure Base: Parent-child Attachment and Healthy Human Development*. NY: Basic Books.
- Jerry J. Bigner (1985). 부모교육입문(이 경우, 이은화 역). 창지사.
- Johnson, S. A.(2004). The relationship of parenting with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and healthy development: An application of a motivational model of development. *Dissertations and Theses*. Paper 4265.
<https://doi.org/10.15760/etd.6149>
- Jose, P. E., Ryan, N., & Pryor, J. (2012). Does social connectedness promote a greater sense of well-being in adolescence over time?.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22*(2), 235–251.
<https://doi.org/10.1111/j.1532-7795.2012.00783.x>
- Kashdan, T. B., Biswas-Diener, R., & King, L. A. (2008). Reconsidering happiness: The costs of distinguishing between hedonics and eudaimonia.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3*(4), 219–233. DOI: 10.1080/17439760802303044
- Kevin. J., Veena. P., Aiswarya. P. R., & Vandana, V. S.(2020). Influence of parent’s grit on student’s grit and the effect of other social determinants upon the relation. *Indian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11*(2), 71–74.
- Keyes, C. L. (2002). The mental health continuum: From languishing to flourishing in lif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3*(2), 207–222.
<https://doi.org/10.2307/3090197>
- Kleiman, E. M., Adams, L. M., Kashdan, T. B., & Riskind, J. H. (2013). Gratitude and grit indirectly reduce risk of suicidal ideations by enhancing meaning in life: Evidence for a mediated moderation model.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47*(5), 539–546.
<https://doi.org/10.1016/j.jrp.2013.04.007>
- Kraut, R. (1979). Two conceptions of happiness. *The philosophical review, 89*(1), 162–176.

88(2), 167–197. <https://doi.org/10.2307/2184505>

- Ladd, G. W., Kochenderfer, B. J., & Coleman, C. C. (1996). Friendship quality as a predictor of young children's early school 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3), 1103–1118. <https://doi.org/10.2307/1131882>
- Lavrič, M., & Naterer, A. (2020). The power of authoritative parenting: A cross-national study of effects of exposure to different parenting styles on life satisfac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16*, DOI:10.1016/j.chilyouth.2020.105274
- Leonard, J. A., Garcia, A., & Schulz, L. E. (2020). How Adults' Actions, Outcomes, and Testimony Affect Preschoolers' Persistence. *Child development, 91*(4), 1254–1271. <https://doi.org/10.1111/cdev.13305>
- Leonard, J. A., Lee, Y., & Schulz, L. E. (2017). Infants Make More Attempts to Achieve a Goal When They See Adults Persist. *Science, 357*(6357), 1290–1294. <https://doi.org/10.1126/science.aan2317>
- Levy, J. M., & Steele, H. (2011). Attachment and grit: Exploring possible contributions of attachment styles (from past and present life) to the adult personality construct of grit. *Journal of Social and Psychological Sciences, 4*(2), 16–49.
- Lin, C. L. S., & Chang, C. Y. (2017). Personality and family context in explaining grit of Taiwanese high school students. *Eurasia journal of mathematics, science and technology education, 13*(6), 2197–2213. <https://doi.org/10.12973/eurasia.2017.01221a>
- Lipsitz, L. (1977). *The test score decline: Meaning and issues*. Educational Technology.
- Llorca, A., Cristina Richaud, M., & Malonda, E. (2017). Parenting, peer relationships, academic self-efficacy, and academic achievement: Direct and mediating effects. *Frontiers in Psychology, 8*, Article 2120. <https://doi.org/10.3389/fpsyg.2017.02120>
- Lucca, K., Pospisil, J., & Sommerville, J. A. (2018). Fairness informs social decision making in infancy. *PloS one, 13*(2), e0192848. <https://doi.org/10.1371/journal.pone.0192848>
- Lyubomirsky, S. (2001). Why are some people happier than others? The role of cognitive and motivational processes in well-being. *American*

- psychologist*, 56(3), 239-249. <https://doi.org/10.1037/0003-066X.56.3.239>
- Lyubomirsky, S., & Lepper, H. S. (1999). A measure of subjective happiness: Preliminary reliability and construct valid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46(2), 137-155. <https://doi.org/10.1023/A:1006824100041>
- Lyubomirsky, S., & Ross, L. (1997). Hedonic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 a contrast of happy and unhappy peo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6), 1141-1157. <https://doi.org/10.1037/0022-3514.73.6.1141>
- Maister, D. H., Green, C. H., & Galford, R. M. (2009). 신뢰의 기술(The trusted advisor.) (정성목 역). 해냄출판사.
- Mandelbaum, T. (2016).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and grit* (Doctoral dissertation, Bryn Mawr College, Graduate School of Social Work and Social Research).
- Marsh, H. W., Vallerand, R. J., Lafrenière, M.-A. K., Parker, P., Morin, A. J. S., Carbonneau, N., Jowett, S., Bureau, J. S., Fernet, C., Guay, F., Salah Abduljabbar, A., & Paquet, Y. (2013). Passion: Does one scale fit all? Construct validity of two-factor passion scale and psychometric invariance over different activities and languages. *Psychological Assessment*, 25(3), 796-809. <https://doi.org/10.1037/a0032573>
- Maslow, A. H. (1970). New introduction: Religions, values, and peak-experiences. *Journal of Transpersonal Psychology*, 2(2), 83-90.
- Maté, G. (2012). Addiction: Childhood trauma, stress and the biology of addiction. *Journal of Restorative Medicine*, 1(1), 56-63. DOI 10.14200/jrm.2012.1.1005
- Michalos, A. C. (1985). Multiple discrepancies theory (MDT). *Social indicators research*, 16, 347-413. <https://doi.org/10.1007/BF00333288>
- Milevsky, A., Schlechter, M., Netter, S., & Keehn, D. (2007). Maternal and paternal parenting styles in adolescents: Associations with self-esteem, depression and life-satisfaction.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16(1), 39-47. <https://doi.org/10.1007/s10826-006-9066-5>
- Moffitt, T. E., Arseneault, L., Belsky, D., Dickson, N., Hancox, R. J., Harrington, H., Houts, R., Poulton, R., Roberts, B. W., Ross, S., Sears, M. R., Thomson, W. M., & Caspi, A. (2011). A gradient of childhood

- self-control predicts health, wealth, and public safety. *PNA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8*(7), 2693–2698. <https://doi.org/10.1073/pnas.1010076108>
- Myers, D. G., & Diener, E. (1995). Who is happy?. *Psychological science*, *6*(1), 10–19. <https://doi.org/10.1111/j.1467-9280.1995.tb00298.x>
- Nangle, D. W., Erdley, C. A., Newman, J. E., Mason, C. A., & Carpenter, E. M. (2003). Popularity, friendship quantity, and friendship quality: Interactive influences on children's loneliness and depression. *Journal of Clinical Child and Adolescent Psychology*, *32*(4), 546–555. https://doi.org/10.1207/S15374424JCCP3204_7
- Noddings, N. (2003). *Happiness and educ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https://doi.org/10.1017/CBO9780511499920>
- OECD (2013),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Subjective Well-be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191655-en>.
- Parker, G., Tupling, H., & Brown, L. B. (1979). A parental bonding instrument. *British Journal of Medical Psychology*, *52*(1), 1–10. <https://doi.org/10.1111/j.2044-8341.1979.tb02487.x>
- Parker, J. G., & Asher, S. R. (1993). Friendship and friendship quality in middle childhood: Links with peer group acceptance and feelings of loneliness and social dissatisfac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9*(4), 611–621. <https://doi.org/10.1037/0012-1649.29.4.611>
- Pennings, S. M., Law, K. C., Green, B. A., & Anestis, M. D. (2015). The impact of gri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hopelessness and suicidality. *International Journal of Cognitive Therapy*, *8*(2), 130–142. <https://doi.org/10.1521/ijct.2015.8.2.130>
- Perris, C., Jacobsson, L., Lindström, H., von Knorring, L., & Perris, H. (1980). Development of a new inventory assessing memories of parental rearing behaviour.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61*(4), 265–274. <https://doi.org/10.1111/j.1600-0447.1980.tb00581.x>
- Perris, C., Jacobsson, L., Lindström, H., von Knorring, L., & Perris, H. (1980). Development of a new inventory for assessing memories of parental rearing behaviour. *Acta psychiatrica Scandinavica*, *61*(4), 265–274. <https://doi.org/10.1111/j.1600-0447.1980.tb00581.x>

- Perry, D. G., & Bussey, K. (1984). *Social Development*.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Peterson, C., & Seligman, M. E. P. (2004). *Character strengths and virtues: A handbook and classification*. NY: Oxford University Press/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eterson, C., Park, N., & Seligman, M. E. (2005). Orientations to happiness and life satisfaction: The full life versus the empty life. *Journal of happiness studies*, *6*(1), 25-41.
<https://doi.org/10.1007/s10902-004-1278-z>
- Piko, B. F., & Hamvai, C. (2010). Parent, school and peer-related correlates of adolescents' life satisfac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2*(10), 1479-1482. <https://doi.org/10.1016/j.chilyouth.2010.07.007>
- Preacher, K. J., & Hayes, A. F. (2004). SPSS and SAS procedures for estimating indirect effects in simple mediation models. *Behavior research methods, instruments, & computers*, *36*, 717-731.
<https://doi.org/10.3758/BF03206553>
- R. Veenhoven (1991). 'Questions on Happiness: Classical Topics, Modern Answers, Blind Spots. In Strack, F., Argyle, M., & Chwartz N.(Eds.) *Subjective Well-Being*'. Oxford: Pergamon Press.
- Raboteg-Saric, Z., & Sakic, M. (2014). Relations of parenting styles and friendship quality to self-esteem, life satisfaction and happiness in adolescents. *Applied Research in Quality of Life*, *9*, 749-765.
<https://doi.org/10.1007/s11482-013-9268-0>
- Reed, L., & Jeremiah, J. (2017). Student grit as an important ingredient for academic and personal success. *In Developments in Business Simulation and Experiential Learning: Proceedings of the Annual ABSEL conference (Vol. 44)*.
- Riff, M. A. (1989). The Ambiguity of Masaryk's Attitudes on the 'Jewish Question'. *In TG Masaryk (1850-1937) Thinker and Politician* (pp. 77-87).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https://doi.org/10.1007/978-1-349-20366-6_6
- Roff, M. (1949). A factorial study of the Fels Parent Behavior Scales. *Child Development*, *20*, 29-45. <https://doi.org/10.2307/1125663>

- Rogers, C. R. (1951). Perceptual reorganization in client-centered therapy. <https://doi.org/10.1037/11505-011>
- Rohner, R. P. (1994). Patterns of parenting: The warmth dimension in worldwide perspective. In W. J. Lonner & R. S. Malpass (Eds.),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pp. 113-120). Allyn & Bacon. https://www.researchgate.net/profile/Ronald-Rohner/publication/255709456_Patterns_of_parenting_The_warmth_dimension_in_worldwide_perspective/links/574d98d908ae061b33034113/Patterns-of-parenting-The-warmth-dimension-in-worldwide-perspective.pdf
- Rohner, R. P., Khaleque, A., & Cournoyer, D. E. (2005).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Theory, methods, cross-cultural evidence, and implications. *Ethos*, *33*(3), 299-334. <https://doi.org/10.1525/eth.2005.33.3.299>
- Rook, K. S. (1984). The negative side of social interaction: impact on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6*(5), 1097. <https://doi.org/10.1037/0022-3514.46.5.1097>
- Rubin, K. H., Bukowski, W. M., Parker, J. G. (2006).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In W. Damon & R. M. Lerner (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Social emotional and personality development* (pp. 571-645). Wiley.
- Rubin, K. H., Bukowski, W., & Parker, J. G. (1998). Peer interactions, relationships, and groups. W. Damon (Ser. Ed.) & N. Eisenberg (Vol.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9^{ed.})*, 633-652.
- Rubin, K. H., Dwyer, K. M., Booth-LaForce, C., Kim, A. H., Burgess, K. B., & Rose-Krasnor, L. (2004). Attachment, friendship, and psychosocial functioning in early adolescence.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4*(4), 326-356. <https://doi.org/10.1177/02724316042685>
- Ryan, R. M., & Deci, E. L. (2001). On happiness and human potentials: A review of research on hedonic and eudaimonic well-being.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1), 141-166. <https://doi.org/10.1146/annurev.psych.52.1.141>
- Ryan, R. M., & Deci, E. L. (2003). On assimilating identities to the self: A self-determination theory perspective on internalization and integrity within cultures.

- Ryan, R. M., & Deci, E. L.(2000). Self-determination theory and the facilitation of intrinsic motivation, social development, and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5*(1), 68. <https://doi.org/10.1037/0003-066X.55.1.68>
- Ryan, R. M., Deci, E. L., & Grolnick, W. S. (1995). *Autonomy, relatedness, and the self: Their relation to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 Santrock, J. W. (1990). *Adolescence*. USA: Wm. C.
- Schaefer, E. S. (1959). “A circumplex model for maternal behavior.” *The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59*(2), 226–235.
<https://doi.org/10.1037/h0041114>
- Schaefer, E. S. (1965). A configurational analysis of children’ s reports of parent behavior.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29*, 552–557.
<https://doi.org/10.1037/h0022702>
- Schaefer, E. S., Bell, R. Q. and Bayley N. (1959). Development of a material behavior: Research instrument,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95*, 83–104. <https://doi.org/10.1080/00221325.1959.10534247>
- Schlein, A., Guerny, B. G., & Stover, L. (1971). Relationship enhancement. Sanfrancisco, CA: Josey-Bass.
- Seligman, M. (2009). **마틴 셀리그만의 긍정심리학** [Authentic happiness]. (김인자 역). 물푸레.
- Seligman, M. E. (2002). *Authentic happiness*: Using the new positive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Simon and Schuster.
- Seligman, M. E., Rashid, T., & Parks, A. C. (2006). Positive psychotherapy. *American psychologist*, *61*(8), 774.
<https://doi.org/10.1037/0003-066X.61.8.774>
- Seligman, M. E., Steen, T. A., Park, N., & Peterson, C. (2005). Positive psychology progress: empirical validation of interventions. *American psychologist*, *60*(5), 410. <https://doi.org/10.1037/0003-066X.60.5.410>
- Shaffer, D., Fisher, P., Lucas, C. P., Dulcan, M. K., & Schwab-Stone, M. E. (2000). NIMH Diagnostic Interview Schedule for Children Version IV (NIMH DISC-IV): description, differences from previous versions, and reliability of some common diagnoses.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39*(1), 28–38.

<https://doi.org/10.1097/00004583-200001000-00014>

Shahar, B. T. (2007). *Happier: Learn the Secrets to Daily Joy and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McGraw-Hill Companies.

Shahar, B. T. (2014). *Choose the Life You Want: The Mindful Way to Happiness*. The Experiment.

<https://books.google.co.kr/books?id=bR-9BgAAQBAJ&lpg=PP1&ots=7wHKUXN0Ki&dq=Choose%20the%20Life%20You%20Want%3A%20The%20Mindful%20Way%20to%20%20Happiness.%20&lr&hl=ko&pg=PP1#v=onepage&q=Choose%20the%20Life%20You%20Want:%20The%20Mindful%20Way%20to%20%20Happiness.&f=false>

Shaw, K. (2017). Hovering or Supporting: Do Parenting Behaviors Affect Their College-Offspring's Persevera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ami University. Oxford, OH, USA.

<http://orcid.org/0000-0003-3091-1545>

Shechtman, N., DeBarger, A. H., Dornsife, C., Rosier, S., & Yarnall, L. (2013). Promoting grit, tenacity, and perseverance: Critical factors for success in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Education, *Department of Educational Technology, 1*, 1-107.

Sheldon, K. M., & Kasser, T. (1995). Coherence and congruence: two aspects of personality integr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8*(3), 531. <https://doi.org/10.1037/0022-3514.68.3.531>

Sheldon, K. M., Ryan, R., & Reis, H. T. (1996). What makes for a good day? competence and autonomy in the day and in the pers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12), 1270-1279. <https://doi.org/10.1177/01461672962212007>

Skidelsky, E., & Skidelsky, R. (2012). *How much is enough?: money and the good life*. Penguin UK.

Skinner, E. A., Johnson, S., & Snyder, T. (2005). Six dimensions of parenting: A motivational model. *Parenting: Science and Practice, 5*(2), 175-235. https://doi.org/10.1207/s15327922par0502_3

Skinner, E. A., Wellborn, J. G., & Regan, C. (1986). *The "Parents as Social Context Questionnaire"(PASCQ): Parent-and child-reports of parent involvement, structure, and autonomy support*. (Tech Rep.) Rochester,

NY: University of Rochester.

- Skinner, E. A., Wellborn, J. G., Lerner, R., Featherman, D., & Perlmutter, M. (1994).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In Coping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A motivational perspective*, 12, 91-12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ttps://books.google.co.kr/books?id=-zz3DwAAQBAJ&lpg=PA91&ots=Y6uSp7RL4J&dq=Life-span%20development%20and%20behavior.%20In%20Coping%20during%20childhood%20and%20adolescence%3A%20A%20motivational%20perspective.%2012&lr&hl=ko&pg=PA82#v=onepage&q=Life-span%20development%20and%20behavior.%20In%20Coping%20during%20childhood%20and%20adolescence:%20A%20motivational%20perspective.%2012&f=false>
- Soenens, B. & Vansteenkiste, M.(2005). Antecedents and outcomes of self-determination in 3 life domains: The role of parents' and teachers' autonomy support.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4(6), 589-604.
<https://doi.org/10.1007/s10964-005-8948-y>
- Soenens, B. & Vansteenkiste, M.(2010). A theoretical upgrade of the concept of parental psychological control: Proposing new insights on the basis of self-determination theory. *Developmental Review*, 30(1), 74-99.
<https://doi.org/10.1016/j.dr.2009.11.001>
- Soenens, B., Elliot, A. J., Goossens, L., Vansteenkiste, M., Luyten, P., & Duriez, B. (2005).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perfectionism: parents' psychological control as an intervening variable.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9(3), 358. <https://doi.org/10.1037/0893-3200.19.3.358>
- Steinberg, L. & Silk, J. (2002). Parenting adolescents. In M. H. Bornstein(2002). Handbook of parenting (2nd ed.): Vol 1. *Children and parenting*. pp. 103-133.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Publishers.
- Steinberg, L. (2001). We know some things: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s in retrospect and prospec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1(1), 1-19. <https://doi.org/10.1111/1532-7795.00001>
- Stoltz, P. G. (2015). *Grit : the new science of what it takes to persevere, flourish, succeed*. [n. p.]: Climb strong press.

- Sullivan HS (1953). *The interpersonal theory of psychiatry*. New York: Norton
- Symonds, P. H. (1949). *The dynamics of parent-child relationship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ublication.
- Symonds, P. M. (1949). Education and psychotherap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40*(1), 1-32. <https://doi.org/10.1037/h0060125>
- Teja, Z., & Schonert-Reichl, K. A. (2013). Peer relations of Chinese adolescent newcomers: Relations of peer group integration and friendship quality to psychological and school adjustment. *Journal of International Migration and Integration*, *14*, 535-556.
<https://doi.org/10.1007/s12134-012-0253-5>
- Thaler, L. K., Koval, R. (2015). *Grit to great*. NY: Crown Business.
- Tilton-Weaver, L C., & Galambos, N. L (2003). Adolescents' characteristics and parents' beliefs as predictors of parents' peer management behaviors.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3*(3), 269-300.
<https://doi.org/10.1111/1532-7795.1303002>
- Tod, D., Hardy, J., & Oliver, E. (2011). Effects of self-talk: A systematic review. *Journal of Sport and Exercise Psychology*, *33*(5), 666-687.
DOI: <https://doi.org/10.1123/jsep.33.5.666>
- Vallerand, R. J. (2008). On the psychology of passion: In search of what makes people's lives most worth living. *Canadian Psychology/Psychologie canadienne*, *49*(1), 1-13.
<https://doi.org/10.1037/0708-5591.49.1.1>
- Vallerand, R. J. (2010). On Passion for Life Activities: The Dualistic Model of Passio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 97-193.
[https://doi.org/10.1016/S0065-2601\(10\)42003-1](https://doi.org/10.1016/S0065-2601(10)42003-1)
- Vallerand, R. J. (2015). *The psychology of passion: A dualistic model*. London: Oxford University Press.
- Vallerand, R. J., Blanchard, C., Mageau, G. A., Koestner, R., Ratelle, C., Léonard, M., Gagné, M., & Marsolais, J. (2003). Les passions de l'âme: On obsessive and harmonious pa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5*(4), 756-767. <https://doi.org/10.1037/0022-3514.85.4.756>
- Vallerand, R. J., Salvy, S. J., Mageau, G. A., Elliot, A. J., Denis, P. L., Grouzet, F. M., & Blanchard, C. (2007). On the role of passion in performance.

- Journal of Personality*, 75(3), 505–534.
<https://doi.org/10.1111/j.1467-6494.2007.00447.x>
- Vansteenkiste, M., Sierens, E., Goossens, L., Soenens, B., Dochy, F., Mouratidis, A., Aelterman, N., Haerens, L., & Beyers, W.(2012). Identifying configurations of perceived teacher autonomy support and structure: Associations with self-regulated learning, motivation and problem behavior. *Learning and Instruction*, 22(6), 431–439.
<https://doi.org/10.1016/j.learninstruc.2012.04.002>
- Vansteenkiste, M., Zhou, M., Lens, W., & Soenens, B.(2005). Experiences of autonomy and control among Chinese learners: Vitalizing or immobiliz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7(3), 468–483.
<https://doi.org/10.1037/0022-0663.97.3.468>
- Vaquera, E., & Kao, G. (2012). Educational achievement of immigrant adolescents in Spain: Do gender and region of origin matter?. *Child development*, 83(5), 1560–1576.
<https://doi.org/10.1111/j.1467-8624.2012.01791.x>
- Vartanian, T. P., & Buck, P. W. (2005). Childhood and Adolescent Neighborhood Effects on Adult Income: Using Siblings to Examine Differences in OLS and Fixed Effect Models. *Social Service Review*, 79, 60–94. <https://doi.org/10.1086/426718>
- Veenhoven, R. (1991). Is happiness relative?. *Social indicators research*, 24, 1–34. <https://link.springer.com/article/10.1007/BF00292648>
- Veit, C. T., & Ware, J. E. (1983).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distress and well-being in general population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1(5), 730. <https://doi.org/10.1037/0022-006X.51.5.730>
- Von Culin, K. R., Tsukayama, E., & Duckworth, A. L. (2014). Unpacking grit: Motivational correlates of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The Journal of Positive Psychology*, 9(4), 306–312.
<https://doi.org/10.1080/17439760.2014.898320>
- Watson, D., & Tellegen, A. (1985). Toward a consensual structure of mood. *Psychological bulletin*, 98(2), 219.
<https://doi.org/10.1037/0033-2909.98.2.219>
- Weiss, D. J. (1982). Improving measurement quality and efficiency with

- adaptive testing.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ment*, *6*(4), 473-492.
<https://doi.org/10.1177/014662168200600408>
- Wenz-Gross, M., Siperstein, G. N., Untch, A. S., & Widaman, K. F. (1997). Stress,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of adolescents in middle school. *The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17*(2), 129-151.
<https://doi.org/10.1177/0272431697017002002>
- Wilkinson, R. B. (2004). The role of parental and peer attachment in the psychological health and self-esteem of adolescent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3*(6), 479-493.
<https://doi.org/10.1023/B:JOYO.0000048063.59425.20>
- Willingham, W. W. (1985). Success in college: *The role of personal qualities and academic ability*. College Board Publications, Box 886, New York, NY 10101.
- Wilson, W. R. (1967). Correlates of avowed happiness. *Psychological bulletin*, *67*(4), 294. <https://doi.org/10.1037/h0024431>
- Yang, Y. (2008). Social inequalities in happiness in the U.S. 1972-2004: An age-period Cohort analysi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73*(2), 204-226. <https://doi.org/10.1177/000312240807300202>
- Zimmerman, B. J., & Kitsantas, A. (1997). Developmental phases in self-regulation: Shifting from process goals to outcome goal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9*(1), 29.
<https://doi.org/10.1037/0022-0663.89.1.29>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아동·청소년용(초등)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2021년)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조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대행기관 :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402002호)로서, 조사를 통해 얻어진 개인 및 학교 관련 정보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결과는 오직 정책 개발과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오니, 각 조사 항목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사
주
관
기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www.nypi.re.kr
데이터아카이브 : www.nypi.re.kr/archive
TEL : 044-415-2129
E-mail : kcyps@nypi.re.kr

조사
대
행
기
관

칸타퍼블릭

홈페이지 : kantarpublish.co.kr
TEL : 010-3509-0914
E-mail : jiyoung.hwang@kantarpublish.com

설문지

문) 다음 각 문항에 대해 평소 본인의 생각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는 곳에 응답해 주십시오(그릿).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무엇을 하다가 다른 생각이 나면 집중하기가 어렵다	①	②	③	④
2) 나는 문제를 해결하다가 어려움이 생겼을 때 크게 좌절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들보다 빨리 좌절에서 벗어난다	①	②	③	④
3) 나는 어떤 문제에 잠깐 집중하다가 곧 흥미를 잃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4) 나는 노력가이다	①	②	③	④
5) 나는 자주 목표를 세우지만 그것을 이루기 전에 다른 목표를 세우고는 한다	①	②	③	④
6) 나는 무엇을 완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면 계속 열심히 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7) 나는 시작하면 무조건 끝낸다	①	②	③	④
8) 나는 부지런하다	①	②	③	④

문) 부모님(부모님이 안 계신 경우에는 보호자)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부모양육태도).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신다	①	②	③	④
2) 부모님은 나와 함께 있는 것을 좋아 하신다	①	②	③	④
3) 부모님은 항상 나를 반가워 하신다	①	②	③	④
4) 부모님은 나를 특별하게 여기신다	①	②	③	④
5) 부모님이 나를 좋아하시는지 가끔 궁금할 때가 있다	①	②	③	④
6) 부모님은 내가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7) 부모님은 나로 하여금 불필요한 존재라고 느끼게 하신다	①	②	③	④
8) 부모님은 내가 하는 어떤 것도 만족스러워하지 않으신다	①	②	③	④
9) 부모님은 나를 믿어주신다	①	②	③	④
10) 부모님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 주신다	①	②	③	④
11) 부모님은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해주신다	①	②	③	④
12) 부모님은 나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신다	①	②	③	④
13) 부모님은 나에게 늘 무엇을 하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14) 부모님은 나에게 이래라저래라 하신다	①	②	③	④
15)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할 때 오로지 그분들의 방식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신다	①	②	③	④
16) 부모님은 모든 것에 대해 “안 돼.” 라고 하신다	①	②	③	④
17)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할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다	①	②	③	④
18) 어떤 일이나 사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알고 싶어할 때, 부모님께서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19) 내게 문제가 있을 때 부모님이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을 주신다	①	②	③	④
20) 부모님은 내게 규칙을 말씀하실 때, 왜 지켜야 하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신다	①	②	③	④
21) 부모님이 약속을 해도, 그 분들이 지키실지는 알 수 없다	①	②	③	④
22) 부모님은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고는 실제로는 하지 않으실 때도 가끔 있다	①	②	③	④
23) 부모님은 나에게 대한 규칙을 자주 바꾸신다	①	②	③	④
24) 부모님은 사전에 주의도 주지 않고 화부터 내신다	①	②	③	④

문) 다음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또래관계).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①	②	③	④
2) 친구들은 속상하고 힘든 일을 나에게 털어놓는다	①	②	③	④
3) 친구들에게 내 이야기를 잘한다	①	②	③	④
4) 친구들에게 내 비밀을 이야기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5)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친구들은 나를 도와준다	①	②	③	④
6) 친구들은 나를 좋아하고 잘 따른다	①	②	③	④
7) 친구들은 나에게 관심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친구들과의 관계가 좋다	①	②	③	④
9) 친구들과 의견 충돌이 잦다	①	②	③	④
10) 친구와 싸우면 잘 화해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11) 친구가 내 뜻과 다르게 행동하면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낸다	①	②	③	④
12) 나와 다른 아이들과는 친해질 생각이 없다	①	②	③	④
13) 친구들은 나의 어렵고 힘든 점에 대해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문)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행복감).

문 항	아주 불행한 사람이다	불행한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다	아주 행복한 사람이다
1) 전반적으로 나는 ……	①	②	③	④
2)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나는 ……	①	②	③	④

문) 아래 문항을 읽고 자신을 가장 잘 설명한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전반적으로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의치 않고 즐겁게 지내는 편이다. 나는 ……	①	②	③	④
2) 전반적으로 아주 불행한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특별히 우울한 일이 없어도 행복하지 않아 보인다. 나는 ……	①	②	③	④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보호자용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2018 제4차년도(2021년)



동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 등) 통계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조사주관기관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조사대행기관 : **KANTAR PUBLIC**

안녕하십니까?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국무총리 소속의 국책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의 성장·발달 과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KCYPs)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는 **국가승인통계(제402002호)**로서, 조사를 통해 얻어진 개인 및 학교 관련 정보는 **동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와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원칙)**에 따라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조사결과는 오직 정책 개발과 학술 연구의 목적으로만 활용될 예정이오니, 각 조사 항목에 대하여 자신에게 해당되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조사에 참여해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건강과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조사
주
관
기
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홈페이지 : www.nypi.re.kr
 데이터아카이브 : www.nypi.re.kr/archive
 TEL : 044-415-2129
 E-mail : kcyps@nypi.re.kr

조사
대
행
기
관

칸타퍼블릭

홈페이지 : kantarpublish.co.kr
 TEL : 010-3509-0914
 E-mail : jiyoung.hwang@kantarpublish.com

Abstract

The Effects of Parental Grit and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Happiness

-Focusing on the mediating effects of grit and peer relationships-

Im, Eun-Suk

Major in Child and Family Welfare
Graduate School, University of Ulsan
Supervised by Prof. Jung, Min-Ja

To investigate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n adolescents' happiness, this study selected grit, an adolescents' intrapersonal variable; peer relationships as their school environment variable; and grit and parenting attitudes as parental variables in adolescents' direct developmental environment. This study would examine the impacts of parental grit and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happiness and the mediating effects of adolescents' grit and peer relationships in this relationship.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data of 2,241 students who were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and their parents (2,241), using data from the fourth year of the Korean Child and Youth Panel Survey 2018. Descriptive statistics, Pearson's correlation, One-way ANOVA, mediation model analysis using Process Macro Model 4, and bootstrapping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 statistical package.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checked the correlations among the main variables in this study and found that parental grit, parenting attitudes, adolescents' grit,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and adolescents' happiness are all positively related. Based on these results, it was confirmed that all the key variables hypothesized in this study are positively related to each other.

Second, this study conducted a two-step regression analysis to determine

the effect of parental grit on adolescents' happiness. In Step 1 of the analysis, parental grit had a positive impact on adolescents' grit, while peer relationships had no significant impact.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had a positive impact on youth grit and a positive impact on peer relationship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had a negative impact on adolescents' grit and a positive impact on peer relationships. Next, in Step 2, parental grit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happiness, while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had a positive impact on happiness, an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had a negative impact. Adolescents' grit and peer relationships were found to have positive impacts on happiness.

Third, to test the mediating effect of adolescents' grit and peer relationships on the impacts of parental grit and parenting attitudes on adolescents' happiness, this study conducted an effect decomposition and found that parental grit had no direct impact on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and happiness, but only an indirect impact through adolescents' grit. This suggests that when parental grit is high, children may model their parents' behaviors and attitudes, which improves adolescents' grit, which in turn may indirectly affect adolescents' happiness, leading to increased happin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direct effects of parental grit to improve adolescents' happiness.

Next, it was found that parental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not only affected directly the adolescents' happiness but also indirectly through adolescents' grit and peer relationships. This suggests that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not only directly promote adolescents' happiness, but also indirectly promote adolescents' happiness by promoting adolescents' grit. Therefore, both the direct and indirect influences of positive parenting attitudes should be considered to promote adolescent well-being.

In addition to having a direct negative effect on adolescents' happiness, parental negativity had an indirect negative impact on adolescents' grit and an indirect positive impact on adolescents' peer relationships. This shows that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not only directly decrease adolescents' happiness, but als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ir grit and a positive impact on their peer relationships, which may lead them to become more dependent on their

peer relationship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rect and indirect impacts of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avoid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in order to promote adolescents' happiness.

The conclus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promote adolescents' happiness, adolescents need to know their strengths and pay attention to their own growth and development, and parents are required to improve their own grit so that their adolescent children can model it. Parents should help their adolescent children grow up healthy by providing a loving and supportive parenting style. Second, measures should be explored at the home, school, and community levels to increase adolescents' grit, a variable that affects their happiness. Third, peer relationships have been identified as a variable that affects adolescents' happiness, and it is necessary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m to live a happy life through positive peer relationships.

The limitations and sugg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is study uses data from the fourth year of the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2018 and limits the study to only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first grade. In subsequent studies, it would be necessary to take this into consideration and expand the sample to include all middle school students to obtain more meaningful results. Second, despite the fact that there are various variables that can affect adolescents' happiness, this study was limited by the fact that it used panel data, which means that it could not consider a wider range of variables. Follow-up studies should consider a wider range of variables in their analyses, which would provide a richer picture of adolescents' happiness.

Key Words: Parental grit, Parenting attitudes, Adolescents' grit, Peer relationships, Happiness, Adolescent children.